

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일제시대 자료 수집은 의무
근대 통해 현재를 바로 본다"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7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5호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성보 문화재 보존 '총체적 부실'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재 7393여 점을 조사한 결과 반수 이상의 보존 · 관리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긴급조치가 필요한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의 비중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7393여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 7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정기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왔지만 전체문화재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조사는 보존관리, 소방방재, 생물피해(흰개미), 유물다량소장처 등 4분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 특히 보존관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재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조사에서 A~F까지 보존 등급을 부여했고 전체 문화재 중 정비와 즉시조치가 필요한 D, E, F 등급은 23%인 1683건으로 나타났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의 문제는 심각했다. 보물급 이상에서 관리가 시급한 D 이하 등급을 받은 문화재는 149건으로 이중 불교문화재가 123건(국보 29건, 보물 94건)으로 80%가 넘었다. 국보급만 해도 불교문화재는 총 68건 중 D 이하가 29건(D 8건, E 21건)으로 42%가 넘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석탑 등 건조물을 대상으로 해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가 많은 불교문화재가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훼손도도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진단 됐다.

문화재청 7일 전수조사서
국보 · 보물 중 성보 80%
'보존등급 D 이하' 판정
사찰 32곳은 방재도 엉망

"불교 자체 보존기구 필요
문화재연구소 역할 확대해야"

대표적인 문화재로 부석사 무량수전(E등급)의 경우 추녀의 부식과 공포재 균열 등이 확인 돼 당장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E등급)는 지난 보수에 사용된 시멘트의 이탈로 2차 오염이 드러나고 침수가 우려되는 것도 지적됐다.

이번 문화재 조사의 시발점이 된 석굴암의 경우 대좌부와 궁륭천장에 균열이 관찰돼 D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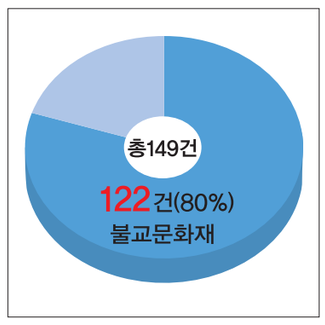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소방방재 분야에서는 국보 · 보물 · 사적급 277건 중 72건이 작동미흡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32건이 불교문화재로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양양 낙산사, 경주 불국사 등 전통사찰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치부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의를 모아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문화재 관련 기구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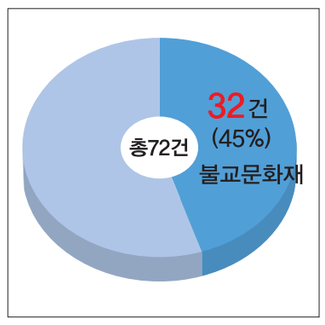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현장에 나가보면 국보나 보물이 방치됐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며 "조계종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찰 · 시민단체 등을 연계해 상시 감시 ·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대상 외에도 사태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조사한 팀 별로 조사 수준이 같지 않으며 어떤 부분은 겉핥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보존 위험' 국보·보물 비율



'방재 부실' 국보·보물 비율



문명대 성보문화재위원(동국대 명예교수)는 종단 산하 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현재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수주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재, 진단 등에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소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등급이 낮게 나온 성보박물관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오히려 불교계에서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살피는 기회로, 종단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내용을 토대로 3대 핵심과제로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유형별 방재 점검안내서를 마련하고, 문화재관리사 제도를 내후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 스님과 아시아불교도협회 대표 스님들이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10주년을 맞아 봉은사 경내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로 한일 평화 기반 다져"

파라미타,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10주년 맞아

최근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독도 도발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두 나라의 관계를 풀어낼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활동을 해온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라미타는 8월 4일 봉은사에서 10년간 교류를 해온 일본 불교단체인 아시아불교도협회(Asia Buddhist Association, 이하 ABA)를 초청해 '한 · 일 청소년 불교교류활동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 파라미타 고문 원택 스님,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 등을 비롯한 ABA 이사장 우시오 닛슈 스님 등 일본 스님 10명과 한국 일본 청소년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인 학생들은 8월 4~8일 템플스테이와 한국 가정 체험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했다.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2002년 한 · 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작됐다. 파라미타는 월드컵 이후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사찰문화체험을 비롯해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파라미타는 200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일 미래를 향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2004년 1월 ABA에 일본 청소년 파견을 요청했다. ABA는 2004년 1월 5~10일 일본 묘법사 청소년 20명을 파견하고 한국 전통사찰과 백제불교문화권을 탐방하는 등 불교문화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ABA는 2005년 8월, 당시 파라미타 회장이었던 원택 스님과 8명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일 정부가 제창한 '한일 우정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제 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교류를 통해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한 두 나라는 일본 측이 2007년 'ABA 한일 청소년 교류 지원실'을 설립하면서 교류를 정례화 하기에 이르렀다.

파라미타와 ABA는 10년간 400여명의 한 · 일 청소년들이 참여해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김정아 파라미타 기획팀장은 "수년전 행사에 참가했던 인연으로 일본에 유학 간 한국 청년들이 몇몇 있다. 이번에 통역을 맡은 한국 청소년은 교류에 참가하면서 일본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친구들"이라며 "일본의 청소년 가운데는 내국에서 한국관광을 안내하는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스님으로 출가하는 등 참가 청소년들은 한 · 일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파라미타와 ABA는 동남아 불교국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한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류에 앞장설 방침이다.

대표 정여 스님은 "향후 한일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 청소년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는 등 참가대상을 확대하고, 한국 불교명상에 대한 지침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법경 스님은 "현재 ABA에서는 미얀마에 학교와 병원 건립, 식수정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함께하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파라미타 한 · 일 청소년국제활동 연혁

2004년 1월
제1회 한일청소년국제교류
무령왕릉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007년 11월
한일불자청소년국제교류 협약서 체결

2010년 4월
파라미타 대표단 묘법사 50주년 기념행사 참여(묘법사)

2014년 3월
아시아불교도협회 일한교류실 방한
(부산 여여선원)

한일 월드컵 계기로 교류
10년 간 400여 청소년 찾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
명상 불서 번역 日 보급 계획

전국 2천여 수좌들 다시 만행을 떠나다

10일 103개 선원 하안거 해제

하안거 해제를 맞아 8월 10일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한 전국 제방 선원은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갑오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103개 선원에서 총 2,222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스님들은 안거를 마치고 만행에 올라 세상 속에서 수행 정진을 이어가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하안거 해제 법어 2면〉

불교, 장병 심성 · 리더십 변화 이끈다

병영혁신위 장성화 실장 참여… "병사들 공감 이끌 것"

최근 구타 사망 사고와 총기 사고로 군대 내 병영문화에 대한 변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불교계가 병영문화 혁신에 일임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5일 발족한 병영혁신위원회에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병영혁신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군 현실을 진단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게 된다. 장 기획실장이 참여한 분과는 '병사 심성 · 리더쉽 분야'이다.

장 기획실장은 "병영문화는 군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군승법사들을 비롯해 군포교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일방적인 설법보다 병사들과 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 전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종교구는 8월 6일자로 전방부대(GP 및 철책선 경계 부대) 및 격오지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지침을 내렸다. 군종교구 지침에 따르면 군승법사들이 장병들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으로 인성 교육, 상담, 위문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것이다.

군종교구는 "군승들의 본분 활동이 전법활동도 있지만 장병들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해 심성 순화나 상담 등을 강화하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결제·해제 상관말고 게으름없이 정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鐵牛耕破洞中天〈철우경파통중천〉하니
桃花片片出深源〈도화편편출심원〉이라
秦人一去無消息〈진인일거무소식〉이나
千古峰巒色轉新〈천고봉만색전신〉이로다.

철로 만든 소가 동중천을 갈아 엎애니
복숭아 꽃잎들이 깊은 근원에서 나옴이라.
진나라 사람은 한 번 감에 소식이 없음이나
천년 봉우리들은 빛깔이 전전히 새로움이로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석두(石頭) · 마조(馬祖) 두 선지식이 쌍벽을 이루어 부처님 심인법(心印法)을 선양하며 천하를 횡행하였는데, 그 아래 무수의 도인(道人)이 쏟아져 나와 중국 천하를 덮은 때가 있었다. 당시에 방거사(龐居士)라는 철저히 신심있는 단월가(檀越家)가 있어 '나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도인이 되어야겠다' 작심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수백리를 걸어서 석두 선사를 찾아갔다.

찾아가 석두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 여쭙기를,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하니, 석두 선사께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으로 방거사의 묻는 입을 틀어막으셨다.

얼마나 고준한 진리의 안목을 갖추었기에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벗을 삼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가. 바로 이 말 끝에 방거사는 진리의 눈이 팔부(八部)가 열리었다.

그래서 "선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고는 또다시 수 백리를 걸어 마조 선사를 친견하러 갔다. 도착하여 마조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는 석두 선사께 물었던 것과 같이,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여쭈니, 마조 선사께서는 입을 틀어막지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서강수(西江水)의 물을 한 입으로 다 마셔버리고 온다면 그때에 그대를 향해 일러주리라!" 하셨다.

이 말 끝에 방거사가 여지없이 견성대오(見性大悟)하였다. 이로서 진리를 깨달은 마조 도인의 재가(在家)제자가 된 것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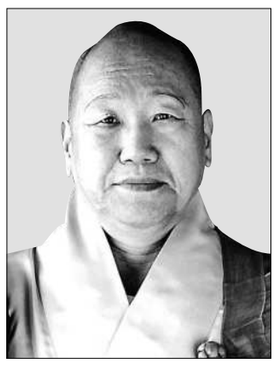
방거사가 그렇게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하루는 세연(世緣)이 다한 것을 알고는 좌복에 앉아 있다가 딸 영조가 들어오니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정오(正午)에 열반(涅槃)에 들 것이니 정오가 되었는지 밖에 나가서 해를 보고 오너라!"

이에 영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은 일식(日食)이 되어서 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나가서 보고 오지."



이렇게 방거사가 밖에 나간 사이에 딸 영조가 아버지 좌복에 앉아서 홀연히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다. 그러자 밖에 나갔다 들어온 방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였다.

"이 요물이 나를 속였구나! 장하다, 내 딸이여! 천성 나는 너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열반에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고는 딸을 화장하고 일주일 후에 일생을 같이 도를 닦았던 도반(道伴)보살이 있었지만 간다온다 말도 없이 좌복에 앉아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셨다. 때마침 이웃집 노보살이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으므로 문을 열었는데, 방거사가 좌복 위에 앉아서 열반에 든 것을 보고는 그 옆 채소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 방거사 보살에게 갔다.

"거사님이 열반에 드신 거 같소."

풀을 매던 방거사 보살이 이 말을 듣고는 말 떨어지자마자 한 손으로는 풀을 당기고 한 손으로는 호미로 풀을 매는 자세 그대로 열반에 들었다.

참으로 위대한 방거사 일가족의 열반상이로다. 찰나지간에 이 몸뚱이를 벗는 영조와 방거사 보살의 수행력도 대단하지만, 열반을 일주일 연기하는 방거사의 저력은 더욱 대단함이로다.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생사(生死)를 요달하기 위함인데 참으로 위대한 도인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큰 법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출가자는 더욱 분발하고, 재가자는 큰 본보기로 삼아 결제 해제에 상관없이 게으름없는 정진을 이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루빨리 무수의 안목자(眼目者)들이 나와서 온 지구촌에 영원토록 부처님 진리의 법문이 선양되기를 바람이로다.

그러면 모든 정진대중은 위대한 방거사와 딸 영조 그리고 방거사 보살 이 세분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양구(良久)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음에 이르시기를,〕

세 분 다 山僧의 주장자 三十棒을 면치 못함이로다.

來年更有新條在〈내년갱유신조재〉하여
惱亂春風卒未歇〈뇌란춘풍졸미헐〉로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어
봄바람에 어지러히 갑자기 쉬지 못함이로다.

산하대지에도 佛法이 있나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법진신조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산 가운데 어떤 것이 대수산 입니까?"

"천산 만산이니라."

법진신조(法眞神照)선사는 사천성(四川省) 팽주(彭州) 대수산(大隨山)에서 산문을 개창한 인연으로 이 산을 매개로 많은 선문답을 남겼습니다. 어떤 때는 '대수산이 무엇이냐' 고 묻는 질문에 '천산 만산 있는 그대로가 대수산' 이라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대수산의 한켠 일(一面事)' 을 물으니 '동서남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수산에서 사해(四海)를 품었고, 사해 속에서 대수산을 안았으니 선사에게는 대수산이 곧 천하요, 천하가 곧 대수산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납자가 대수산 안의 불법(佛法)을 물으니 "석두대저(石頭大底)는 대(大)하고 소저(小底)는 소(小)하느니라.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큰 돌은 크다고 알되 그것에 주착(住着)하지 말고 작은 돌은 작다고 알되, 그것에 주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늘이려면 근심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줄이려면 또 근심이 되는 법입니다.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 그대로가 불신(佛身)의 현현인 것입니다. 헤아릴 때는 헤아리는 대로 불법이 있지만, 헤아리지 않을 때는 헤아리지 않는 대로 또 불법이 있는 법입니다.

해제를 앞두고 경산지우(徑山智愚)선사는 "하안거 수행을 시작한 이래로 제대로 공부한 시간이 전혀 없었구나. 매일 승당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자리만 지켰고, 쉴 때는 누각에 올라가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제 해제를 앞두니 발은 절뚝거리고 손은 떨리는데 입에서는 '90일이 벌써 다 지나가버렸다' 라는 한탄만 나오는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대다수의 해제대중의 심경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둘 일이지만, 그래도 오는 것은 오는 대로 제대로 맞이할 일입니다. 결제 때 화두를 제대로 챙긴 납자는 챙긴 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납자는 챙기지 못한 대로 해제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제 때의 가야산에는 결제대로 불법이 있고, 해제 이후의 산하대지에는 해제대로 불법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해제대중은 신조선사의 '대수산' 화두를 진정으로 나의 화두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도불범무인식(通途不犯無人識)하니
거목하증식대수(擧目何曾識大隨)리오
길 전체를 밟지않고서 알 수 없는 것이니
눈뜨고 있다한들 어찌 대수산을 알겠는가?

참회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信為道元功德母)
갖가지 착한 법을 자라나게 하며
(增長一切諸善法)
모든 의심과 미혹을 사라지게 하고
(除滅一切諸疑惑)
위 없는 도를 드러내 보인다
(示現開發無上道).

'화엄경'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내면이 청정해지고, 신뢰와 확신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지도론(大智度論)' 에서도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며 지혜로 건넌다(佛法大海 信爲能入 智爲能度)"고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밑바탕으로 법(眞理)을 깨달아 지혜를 얻기 위함이고, 진리를 바탕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깨달음을 통해 체험되고 이해되며, 그 법을 이해하면 가슴속에 희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청정해지며 지혜로워지고,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며, 그 마음은 흐르지 않는 물처럼 편안하고(心靜如止水),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心不妄動).

그러나 신심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전생의 업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고 번뇌망상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며, 진리를 맛보았다 해도 마장이 일어남은 마찬가지니 비록 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마장을 극복하기 위해 진참회를 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깊은 믿음에는 진심으로 참회(懺悔)하는 마음이 기본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육조단경' 에 "참(懺)이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懺者終身不作), 회(悔)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悔者知於前非), 영구히 악업을 끊어 짓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참회라 한다(永斷不作 名爲懺悔)"고 하였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악행이 일시에 스스로의 성품에서 영원히 끊어져 제거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참회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속을 떠나 그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해 온 여러분들은 해제일인 오늘 자자(自恣)를 통해 그동안 보고(見) 듣고(聞) 의심난(疑) 것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함과 아울러 참회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 새로운 신앙적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를 통한 청정한 믿음의 마음이 도의 근원이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이고 살아서 죽음으로 거듭나는 마음이며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자의(自意)에 죄 없음을 희열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분심 채워 돌아와 앉아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我人山下逢三毒 아인산하봉삼독
逆順途中遇八風 역순도중우팔풍
惑苦紛然難制止 혹고분연난제지
也宜頻喚主人公 야의빈환주인공

한 철을 기한하고 각자가 일대사를 해결코자 화두와 씨름했습니다. 폭염의 무더위도 정진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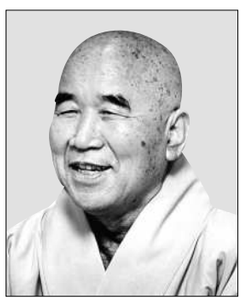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망상은 어느새 아인의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역경과 순경도 팔풍이라는 태풍으로 불어와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천진면목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화두는 치솟는 분별의 산을 깎아내리는 빗자루가 되어 간신히 평정을 되찾게 했습니다. 불현듯 앞을 가로 막아 캄캄하게 했던 무명과도 대적할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화두비질을 하며 지키려 했던 대중의 주인공은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그 화두가 여여 한지 점검하려고 행각을 나섭니다. 행주좌와 어떤 상황에도 성성한 화두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불시에 생사의 미끄럼을 타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히고 친했던 길이라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쓸어내 버려야 합니다.

깨어있는 수행자는 오직 지혜가 눈입니다. 어떤 유혹과 곤란이 닥쳐와도 분명하게 판단하고 끊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틈을 놓아두면 언젠가는 큰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잠시 방심한 사이 생사마가 들어와 자신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불퇴의 분심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중략〉

오늘 해제는 고단한 심신을 잠시 가다듬고 다잡는 그 이름이 해제일 따름입니다.

이 일은 "본래 의심할 것 없는 것을 의심했다"고 선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그 이치를 밝히기 전에는 마칠 수 없습니다. 걸망에 한 철의 아쉬움과 번민을 담아 산문밖에 쏟아버리고 대분심을 가득 채워 돌아와 다시 앉아야 할 것입니다.

斜風時撲面 사풍시박면 하고
細雨又沾衣 세우우첨의 라
杖拂垂林露 장불수림로 하며
山中獨自歸 산중독자귀 로다

비껴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고
가랑비에 어느 듯 옷이 젖었네.
지팡이로 풀숲에 이슬을 휘저으면서
산중으로 홀로 돌아 왔노라.

"천안이 통하니 대도는 참구할 것 없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인생의 이상은 무엇인가?

인생의 구경(究竟)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최고의 경지는 무엇인가? 어떤 마음자리에 도달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한다.

또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 한다.

그 경지는 기쁨이요, 무아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세계요.

물아(物我)가 둘이 아니요, 대조화요, 법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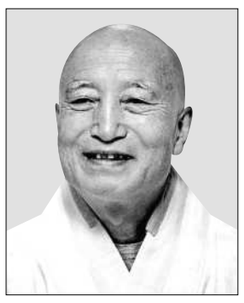
우주와 자아가 혼연일체가 된 세계이다.

그것은 자유자재요, 무애원융의 세계다.

그것은 안심입명의 경지다.

마음이 편안함이요, 두려움과 번뇌가 없는 것이요, 불안과 초조가 없는 부동의 경지다.

혼연자약(渾然自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일체종지를 이루고 십호를 성취한 자리요.



자성삼보(自性三寶)를 성취한 자리다.

밝고 신령스러워 조작이 없는 자리요.

탐애를 아주 떠나 맑고 깨끗한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과거, 현재가 끊어지고 홀로 들어나 당당하여 법과 법이 원만히 통하고 티끌과 티끌이 해탈한 자리더라.

雲捲秋空月印水
寒光無際誰與談
割開透地通天眼
大道分明不用參

구름 걷힌 가을하늘 달은 만강에 비치는데
무한한 진리의 광명을 누구와 말할까.
툭 트여 천안으로 통했음이여
대도는 분명 참구할 것이 없어라.

수좌들이여 은산철벽은 만나보았는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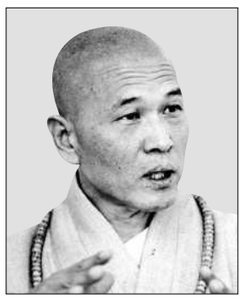
西山大師께서 頌하시기를
萬法由來空裏花 만법은 본래 허공 속에 핀 꽃과 같은데
豈宜徒算海中沙 어째서 부질없이 바닷가 모래를 헤아리는가?
但從鐵壁銀山透 다만 공안을 좇아 은산철벽을 뛰어넘을지언정
不問如何又若何 참선하는 납자는 이유 여하를 묻지 마라
하셨습니다.

삼하구순안거 무더위 속에 정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화두참구하기를 은산철벽을 만난 나그네처럼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전심전력으로 본참공안을 참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절박성이 부족하거나 악각악지(惡覺惡知)의 습관성으로 느슨한 시간보내기의 안거였다면 참으로 안타가운일입니다. 정진이 여일하신 스님들께서도

첫째는 선지식에게 점검하고

둘째는 진척이 없는 공부라 생각되며 미진한 갈등이 있는 분은 삶속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실천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공부와 현실현상 속에서 어떠한 차이와 괴리감이 있는지 실천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큰 공부입니다. 느슨해진 상태나 공부상의 병폐들을 실천해 봄으로서 걸러지고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만 쌓이고 침공체적(沈空滯寂)으로 자기개조의 혁명은 영원히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중득활(死中得活)이니 갱참삼십년(更參三十年)이니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걸음마 연습 없는 사람은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걸음마 연습을 했어야 앉고 서고 달리기가 활발발한 무애자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지금까지의 삶과 앎을 전부타파하고 출신활로의 길을 찾는 정진기간에는 굶고 굶은 정글의 맹수가 먹이만 생각하듯 참구해 가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만약 깨달아야 만이 실천할수 있다는 잡념이나 알아야 행(行)을 할수 있다는 생각 등의 자유주의적 사고는 허물투성이 인것입니다.

답을 알거나 느끼면서 하는 공부도 잘못됨이요, 선행(作福作善)과 보살행이라도 천당불찰에 머물며 오가는 행복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어떤 경지라도 업식환영의 반복임을 알아야합니다. 일생궁극적인 의미는 공이라느니 하면서 남들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실수를 해서는 않됩니다. 부처님이 가던 길도 가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인생 자기가 가는 길을 터득해 가지 못하고 모두 모두가 공문(空門)에 출입하는 식객이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위에든 서산스님 게송같은 지침이 왜 나왔겠습니까?

참선수행이던 무슨 공부이던 모든 것들의 귀착점은 요익중생(饒益衆生)이어서 중생 현실고를 해결해 주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은산철벽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은 해제일이나 화두 참구하는 공부인들은 의심이 진행되는 한 결재요, 공안타파하여 실천행에 나서는 날이 진정한 해제가 될것입니다.

지면 구성과 편집일정으로 법어의 전문 및 모든 총림 방장 스님의 법어를 싣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터스월드, ‘UN 특별협의 NGO’로

UN 경제이사회서 특별협의지위 자격 얻어
韓 30개 NGO 동일 지위… 불교 JTS도 자격
구호에서 인권 운동으로 사업범위 확대 전망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NGO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로써 로터스월드는 NGO 문제에 관해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UN 주최 관련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 다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의제 제안은 제한된다.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와 부속기구에 서면 의견서 및 구두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N NGO행사 조직, 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UN 시설 출입 등의 기회도 부여받게 됐다.

특별협의지위 자격 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로터스월드는 UN에 4년 간격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UN에 관련 자격 신청을 한 로터스월드는 1년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가 개최한 조정 · 관리 회의(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에서 특별협의지위를 얻게 됐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30개 NGO단체가 동일 지위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단체로는 2007년 JTS가 같은 지위를 얻었다.

JTS 측은 “아직 UN에 의견 제출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관련 자격 획득으로 구호활동이 한결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UN에 검증된 단체라는 약력을 추가하면서 국제NGO단체로서 신뢰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었을 당시 UN과 연계해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터스월드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빈곤국 교육 · 위생사업 등 프로젝트별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권, 평화 등 권리옹호활동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보다 공신력있는 단체로 인정받게 된 만큼 전문적인 국제개발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 사회,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민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협의지위를 부여해왔다. 지위는 3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상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문만 구하는 전문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로는 굿네이버스와 국제월드비전이 각각 1996년과 2004년에 관련 자격을 획득했다. 이외 특별협의지위를 얻은 국내 단체로는 한국국제봉사기구, 열매나눔재단, 구세군 등이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조계종,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멸빈’ 청구

호법부 7일 호계원에 요청… 제적원 제출 주도 등 이유

다른 임원진 보류, 등원 재요청

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반대하며 종단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멸빈 징계가 청구됐다.

조계종 호법부는 8월 7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 스님의 징계 이유는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등의 정관을 삭제 △임원 선동해 6월 30일 제적원 제출 등이다. 호법부는 법진 스님의 일련의 행위가 조계종을 탈종, 분종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다만 다른 임원진들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으며, 재등원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의 멸빈 징계 청구는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법〉 46조 8항은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로 멸빈 징계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 사유에 대해 호법부는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학원 이사들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고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등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도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거나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고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지난 7월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행위는 분종과 탈종을 기도하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이석기 탄원서’ 조계종, 한센인에게 사과

5일 도법 스님, 한센인협회 사과방문… “한센인 위해 노력”

조계종이 한센총연합회에 공식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이석기 탄원서’에 한센인을 비하하는 구절이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8월 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센총연합회 본부에서 이길용 한센인총연합회장과 최광현 전무이사 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한센인 인권증진 추진을 위한 확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문제가 된 구절은 ‘나병환자들이 사람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때, 전염이 두려워 그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도법 스님은 확약서에서 △한센인 및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종단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법 스님은 6일 약속 이행을 위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6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불교계가 진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아시아 종교인들 한반도 평화 논한다

ACRP, 25~29일 인천서 총회

25개국 450명의 아시아종교인들이 참석하는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8월 25~29일 동안 개최된다.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 위원장 장재언) 참석 가능성도 열려있다.

ACRP는 평화, 인권, 종교 분쟁 해소 등의 의제를 다루며 주요 국가에 이를 담당하는 활동센터를 건립 · 운영해오고 있다. 국내에는 ACRP서울평화교육센터가 설립돼 있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200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제3차 총회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조화속에 하나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회는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위원회 세 분과로 이뤄진다. 총회기간동안 분과별로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주제로도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댄다. 각국 대표단은 8월 25일 입국할 예정이다.

ACRP 한국지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에 따르면 북한측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석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에는 남북관계상황을 고려해 참석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6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기자



한국 전통 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조계종은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 14개 기관과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전통산사인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 등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진행했다.

글 · 사진=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영산대재 열고 ‘국민화합’ 발원

8월 15~19일 구인사서… 생전예수재, 삼회향놀이도

천태종이 세월호 사태 등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 발전을 발원하는 대규모 수륙영산대재를 거행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양 구인사 광명전 및 조사전서 ‘남북평화통일과 국민화합 기원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삼회향놀이’를 연다.

첫날인 8월 15일 입재식 및 괘불 점안에 이어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19일까지 5일동안 연이어 진행한다. 16~18일에는 재의식, 19일에는 재의식, 삼회향놀이에 이어 회향식 및 소전식으로 회향된다.

이번에 펼쳐질 의식은 영산재, 짓소리, 각배재, 식당작법, 예수재, 수륙재 등으로 이어진다. 의식은 구인사 삼회향놀이 보존회와 천태종 범음범패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장엄은 석용 · 원공 스님과 노전스님들이 각각 맡는다.

한편, 천태종의 삼회향놀이는 영산재와 수륙재 등 큰 재의식이 끝난 뒤 동참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펼쳐지는 일종의 뒤풀이 행사다. 조선시대 이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1950년대 영산재와 삼회향놀이 기능을 보유했던 권수근 스님이 구인사에 머물며 천태종 스님들에게 전수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주일 기자

본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 잇달아

용주사 8월 20일 · 불국사 9월 5일 개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용주사는 차기 주지를 선출하지 못해 주지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산중총회는 경선을 통한 주지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구대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강문도회로 구성된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성관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을 차기 주지 후보로 추천했고, 월암문도회 운영위원회는 성월스님(정수사 주지)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오후 1시에는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앞서 불국사는 8월 28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현 주지 성타 스님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주지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선원장 종우 스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법화정사 법화경 7만자 석경 새법당 개원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어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을 행복하게 인도하신지도 260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화행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촉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정하게 수행하면서 전국 전세계에 널리 사경 전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건립하였고, 천안구룡사에 천불천탑을 건립하여 삼국통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조선 5백년 동안 임금님께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온을 위해 제사올리던 동대문구 제기동 성스러운 땅에 지하2층 지상9층으로 법화정사 새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한문 희평석경 예서체 법화경과 훈민정음 법화경을 돌에 새겨서, 새법당이 한권의 법화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전국 전세계 법화행자님들의 사경수행과 전법원력으로 기도하고 보시해주신 은덕으로 성스런운 법당을 완성하여 광복절의 환희속에 개원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과 불교의 정법중흥을 위해 함께 부처님께 축원올리고 법화경 성불인연 맺으시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법의 전당을 빛내주시옵소서.

비구 석도림 합장
일백만 법화행자 청정발원



장 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38 (제기역 1번 출구)
일 시 불기2558년 8월 24일 일요일 (법회시작 오전10시~)
문 의 02-928-1331, 928-1340

일 주 문



현성 스님 안양교도소 생수 보시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8월 7일 말복을 맞아 안양교도소에 생수 4000병을 보시했다.



NH농협은행, 종교평화기금 후원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8월 6일 종교평화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양상문 감독, 생명나눔 기부

양상문 LG트윈스 감독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후원했다.

"경전 공부, 부처님 가르침 알아가는 수행"

경전수련회 여는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

오는 16~17일 경전수련회 열고
'유식 20론' 매일 9시간 강의
주입식 교육아닌 토론 위주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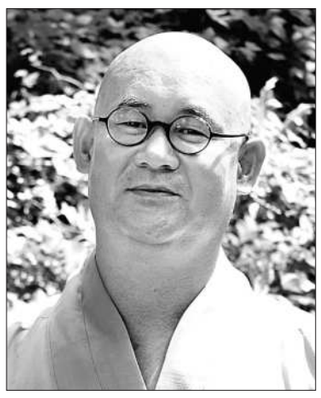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수련회와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이들 대부분이 참선, 절, 불교 문화 체험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전 강의를 주제로 매년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이 있다. 바로 안동 보경사다. 보경사 주지로 주석하며 경전 수련회를 이끌고 있는 보경 스님은 경전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전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안동 보경사는 오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식 20론'을 주제로 1박 2일 경전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미 지난 7월 17~18일에도 같은 주제로 수련회를 원만 회향하기도 했다.

강의는 주지 오경스님〈사진〉이 직접 진행하며, 조석예불과 새벽 참선 수행을 제외하고는 매일 3시간 3차례 경전 강의로 프로그램이 채워진다. 빡빡한 강의 일정이지만 참가자들은 토론과 질의 응답을 통해 경전을 깊이 있게 익힌다.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경전의 진의를 배우는 것이어서 수련회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스님은 이번 강의 경전인 '유식 20론'에 대해 존재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유식은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그 누구라도 우리를 둘러싼 대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섭하는 사상이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사상이므로 유식을 배워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관적 사고와 서술에만 익숙해진 우리 불교의 현주소에 분석적, 논리적 유식불교를 보완하면 불교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보경사의 경전 수련회는 정해학당 회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은 부산과 안동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공부 모임이다. 정해학당 회원들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경전과 선어록 등을 꾸준히 공부해왔다.

스님은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바른 삶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현대인들은 학력이 높기는 하지만 지혜와 성찰이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은 길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불교 경전 공부는 이 같은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054)842-408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종교구, 면장갑 33만 켤레 보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7일 7사단 사령부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2차 사업으로 면장갑 33만 켤레를 전달했다. 5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준비된 면장갑은 최전방 철책선 부대 및 예비사단의 동계작전준비와 해안경계 부대 및 내륙 작전부대 진지공사 작업용으로, 서해5도 경계근무 부대, 울릉도 · 독도 경비 등 48개 부대에 전해진다.

정우 스님은 "월동을 준비 중인 장병들에게 작업용 면장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참해 준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우 스님은 전달식에 이어 7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훈련병들에게 자장면 800그릇과 수박 50통을 공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행원문화상에 정목 스님(특별상) · 성의신 단장(예술상)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서 시상식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23회 행원문화상에 정목 스님(특별상)과 성의신 마하연 단장(예술상)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은 지난 7월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이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목 스님은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국내 첫 비구니 MC로 활동하였고 각종 불교방송 활동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1위에 선정되는 등 한국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명상과 마음공부전문 인터넷 방송 '유나방송'(una.or.kr)을 개국해 세계 34개국의 청취자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상과 마음공부를 전파하고 있다.

방송 외에도 감동적인 공개강좌 등을 통해 위안과 자비가 필요한 사부대중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많은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불교교리 전파에 일익을 담당한 점이 크게 인정되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서로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등이 있다.

예술상 수상자 성의신 마하연 단장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악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국내 최고의 해금연주자다. 성 단장은 1993년 불교실내악단 '마하연'을 창단하고 대표를 맡아 20여년 동안 대중들에게 불음을 전하는 불자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불교음악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성 단장이 발간한 음반은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해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2010년에는 KBS국악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패음악을 현대화한 공연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는 등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목 스님



성의신 마하연 단장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국염불만일회 17차 염불정진대회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8월 2~3일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원과 구룡사에서 200여 염불행자가 모인 가운데 제17차 염불정진대회를 성료했다.

염불행자들은 48대원을 새기며 북소리에 맞춰 나무아미타불 염불 1만 송을 철야로 진행했으며 3일 구룡사까지 행선염불을 진행했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는 2025년 12월 21일 회향한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한마음…광화문서 두차례 3천배 정진

박종린 불력회 회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3천배의 절을 올렸다. 남들은 주말을 반기며 한껏 여유를 부려보는 시간에 신행단체 불력회(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박종린 · 사진) 회원 30여 명은 8월 2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했다. 8월 둘째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단식농성중인 유가족과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불자라면 누구나 동체대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일이라고 보기에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종린 법사(59,동국대 역경위원)의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294명의 희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정부를 향해 불력회 회원들의 마음은 유가족과 함께였다.



절에는 참회의 의미도 담겨있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참사를 야기한 만큼 모두의 공업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불력회가 3천배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 박 법사는 "물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색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절은 자신의 의지하에 몸을 조복받기 위한 몸짓"이라며 현대사회에 절이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 절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법연수생 45기 템플스테이



새내기 법조인들이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자로 거듭났다. 사법연수원 45기 중 다르마법우회 회원 10여 명은 8월 1일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봉은사 템플스테이에는 예불, 108배, 발우공양 등 불교예절을 비롯해, 명상과 숲길 걷기, 편지쓰기, 소금만다라 체험 등 지친 일상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차담에서 법조인들의 정법구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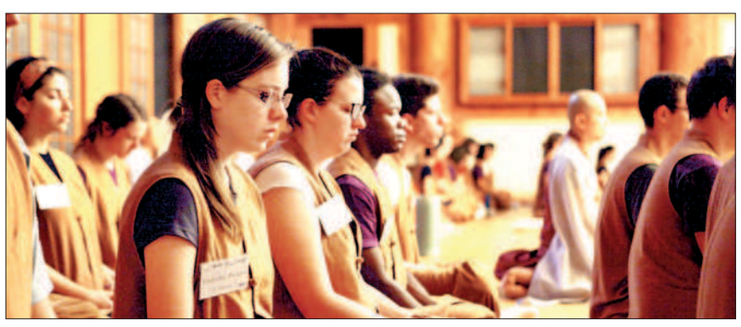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청고 스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벽예불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에 들었다.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8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에 선발된 미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발우공양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남탓말고 '나' 내려놓고 'Wake up'

깨어나라

광명선원, 8월 2~3일 풀브라이트 장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분노 · 걱정 등을 내려놓는 연습은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수행인 것 같다.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 텐데 이번 템플스테이가 많은 도움이 됐다." 푸(여 · 21)

"이번 프로그램에서 많은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쾌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명상을 거듭할수록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 에밀리(여 · 24)

8월을 여는 첫 주말.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에서는 영어로 이야기 하는 소리가 쉴새 없이 들렸다. 독일계 · 아시안계 · 아프리카계 등 다인종으로 구성된 평균 나이 23세의 미국국적 학생들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 모였다.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8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에 선발된 미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풀브라이트재단의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경제학, 역사학, 생물학 등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재원으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중 ·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로 2년간 파견된다.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한 마음선원 스님들이 대거 투입됐다. 안양 본원에서 청고 · 청동 · 혜각 · 혜눌 · 혜형 · 혜교 스님이, 광명선원에서 청강 · 청송 · 청훈 스님이, 제주지원에서 혜홍 스님이 지도 법사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안양본원 청년회 학생과 공양 담당 보살 등 10여명의 자원봉사자도 동참했다.

2일 첫날. 예상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참가자들은 경내를 둘러 본 후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청송 스님의 집전으로 입재식이 거행됐고, 주지 청백 스님이 환영사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광명선원은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해나가는 도량입니다. 마음공부를 일러주신 대행 스님께서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인 참 나를 밝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몫과 맺어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곳 광명선원까지 왔으리라 생각되며, 템플스테이 체험을 계기로 자기 안의 진정한 나를 찾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발된 美 우수장학생 52명 참가
촛불재 · 화엄놀이 · 발우공양 등 체험
"음식 인연 되새기는 발우공양 인상적"

이어 참가자들은 지도 법사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합장 · 절하는 법 등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익혔다. 명상에 들기 전에는 청고 스님의 특강도 있었다. 스님은 생활 속 모든 일이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명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라는 생각이 들면 놓아버리세요.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나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멈추게 하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내면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 하루 24시간 동안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이 수행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과 만나기 위해 집중하게 되니 이는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양초에 불을켜고 'Buddha nature' 를 정근했다.



청동 스님과 차담을 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회향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학생들은 청고 스님의 법문을 새겨듣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에 들었다.

명상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도량을 둘러봤다. 한 남학생은 도량에 있는 불상을 보며 스님에게 "저 불상은 굽타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대웅전에서 명상을 하고 나온 여학생은 자원봉사자에게 "한국말로 '상쾌하다(fresh)' 를 어떻게 말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도량 곳곳에 있는 영탑과 요사채가 신기한지 연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스님과 마주치면 첫날 배웠던 합장반배를 정성들여 해보기도 했다.

저녁예불이 끝난 후에는 발우공양이 이어졌다. 청강 스님이 발우 공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훈 스님이 시범을 보였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굶주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공양하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밥과 찬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공양을 시작했다. 양 조절이 안됐는지, 찬을 더 가져다가 먹거나, 청수물을 다 마시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테드 쿠퍼(24 · 남)는 "발우공양을 할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말하고 먹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음식을 먹기까지 많은 인연을 거쳐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하니, 또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져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고 말했다.

밤이 되자 촛불재가 거행됐다. 청고 스님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촛불재" 라며 마음의 불을 밝히는 뜻에 대하여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양초를 받아 'Buddha nature(자성본래불)' 를 정근하며 줄을 이어 도량을 돌면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밤 10시가 되었고, 모두들 취침에 들었다.

둘째 날인 3일 새벽 3시 30분. 참가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대웅전에 모여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옆에서 스님들이 지도하기 전에 자연스레 먼저 명상에 드는 모습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웅전을 나올 때는 정중히 합장 반배의 예를 올리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었다.

이어서 화엄놀이가 진행됐다.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러 떠나는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연꽃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명상을 차례로 경험했다. 여자친구를 위해 단주를 만드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이 부족했는지 명상할 때 조는 이들도 있었고, 스님에게 불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어서 청고 스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과거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마음공부를 통해 깨닫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만 하는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가?' 등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질문에 청고 스님은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회향식과 단체사진 촬영 후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갔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히 대해준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고 말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해보려는 마음을 체험함으로써 한국불교와의 인연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템플스테이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15년 전부터 육임학습서와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육임 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 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 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또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 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 이내각 부총장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신행 단신

법륜 스님 세계 100회 강연 나선다

8월 26일~12월 18일, 유럽 · 북미 · 남미 · 동남아 등 순회

즉문즉설로 깨달음을 주는 법륜 스님이 해외순회 강연에 나선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8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럽, 캐나다,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아시아지역에서 115회에 걸쳐 '법륜 스님의 세계순회' 강연을 개최한다.

정토회는 "이번 강연은 '2014 희망세상만들기' 라는 주제로 해외의 대도시뿐 아니라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중소 도시까지 확대해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찾아가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희망을 함께 찾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은 선착순 무료강연이며 해외교민과 청년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토회는 현지에서 강연장을 찾고 홍보를 맡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강연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org)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원봉사 희망자는 전화나 이메일(jungtooverseas@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1-240-786-7528)

이나은 기자

위빠사나 내 근기에 맞게 수행하자

위빠사나붓다선원, 10월까지 집중수행 개최

위빠사나를 통한 심리치료를 하는 집중수행이 열린다.

위빠사나붓다선원(선원장 김열권 법사)은 10월까지 문경 한산사에서 '위빠사나, 붓다호흡'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개인에 따른 초 · 중 · 고급으로 맞춤형 수행을 진행하는 붓다선원은 8월 14~18일, 9월 4~10일, 10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초로 미얀마 비구계를 수계받은 김열권 법사의 지도로 위빠사나 붓다호흡을 배우게 되며 동대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위숫디 선생이 사마타단식과 위빠사나 심리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사마타 단식수행은 1일 단식, 4~5일 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빠사나를 오래 수행해도 선정을 얻지 못하거나 심신정화와 체질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위빠사나 심리프로그램은 △나의 정체보기 △바라보기 등을 통해 위빠사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빠사나붓다선원은 이밖에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불광산사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엔 조계사 앞 두산위브 836호 열린선원에서 사마타 심리프로그램과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010-2779-7864

이나은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지도자 연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진우)는 8월 23~24일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지도자 연수교육 및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법륜사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안성 칠장사, 용인 와우정사, 남양주 봉선사 등을 참배한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8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총동창회장 진우 스님은 "최근 불교센터 건립 등 불교대학원 동문들의 힘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이번 지도자 연수 교육과 순례가 불자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37-1053

노덕현 기자

'금강경' 일만 독송 일일법회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8월 25일 대웅전에서 '도반과 함께하는 〈금강경〉 일만 독송 일일법회' 입재를 봉행한다.

금강경 독송의 생활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법회는 저녁예불 후 〈금강경〉 독송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6시부터 7시30분까지 100일 동안 진행하며 입재 후 100일마다 주지스님의 지도와 법문으로 회향식이 열린다.

이나은 기자

7만字 법화 석경 품은 사찰로 재탄생

서울 법화정사 증축 마치고 8월 24일 개원 법회

〈법화경〉 사경 수행으로 잘 알려진 서울 법화정사(회주 도림)가 〈법화경〉 석경 7만자를 품은 사경 수행 전문 도량으로 새 모습을 갖추고 재탄생한다.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 위치한 법화정사는 1년여의 중창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 중창 ·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화정사 중창은 매년 늘어나는 사경 법화행자들에게 쾌적한 수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회주 도림 스님이 제주도에서 시작한 〈법화경〉 법회와 사경 등 전법 운동은 한라산 기슭에 평화통일불사리탑과 천안 구룡사 천불천탑, 서울 제기동 법화정사로 이어졌다. 현재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에 분원과 지역별 수행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법화정사는 이번 중창으로 사경 전문 수행 도량으로서의 면모을 완연히 갖췄다. 두 동으로 나눠 중창된 법화정사는 대지 860㎡, 연면적 4,134.09㎡에 본관 지하 2층 지상 9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를 자랑한다.

본관에는 지하에 발우공양간을 비롯해 대웅보전, 사경법당, 극락보전, 법화보궁(성보박물관), 적멸보궁 · 진신사리탑, 승방, 영산회상 등이 들어섰으며, 별관은 '법화경' 사경수행과 교육관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 법화정사가 1년여의 중창불사를 통해 사경전문도량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적 외형과 더불어 도량의 외벽을 법화경 7만자 석경으로 장엄해 눈길을 끈다.

법화경 사경 전문도량 위용 갖춰
연면적 4134㎡, 2개동으로 구성
법화경 석경으로 외벽 둘러 '장엄'
"법화경 널리 전하는 계기 되길"

법화정사가 사경 전문 도량임을 표방하고 있음은 새로 디자인된 사찰의 외벽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후한시대 학자이자 서예가인 채옹이 임금의 명을 비에 새겼던 '희평석경' 의 예서체로 〈법화경〉을 석경해 법당의 외벽을 장엄했다. 외벽을 〈법화경〉으로 장엄하는 데에는 가로 50cm, 세로 100cm 석판 1400여장이 소요됐다.

'희평석경' 의 예서체에 대해 법화정사 관계자는 " '희평석경' 의 글자들은 소박하면서도 짜임새가 평정하고 단정해 근엄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웅대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는 '희평석경' 의 예서체가 가장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석경에 사용된 〈법화경〉도 눈길을 끈다. 조선조 세종대왕이 만든 '간경도감' 에서 훈민정음으로 간행한 〈법화경〉을 담고 있어서다. 법화정사는 '간경도감' 간행 〈법화경〉 중 '여래수량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여래신력품' 을 선별해 석경했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전국, 전세계 100만 법화행자들의 물러섬 없는 수행정진과 전법 원력으로 기도하고 사경해 '희평석경 7만자 법당' 을 완성했다"면서 "〈법화경〉을 깊이 믿고 읽고 쓰고 널리 전하면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화(法華)란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큰 지혜를 깨닫게 하고 불국정토의 꽃을 세상에 피운다는 뜻"이라며 "법화경을 항상 읽고 외우고 사경하면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가 마음에 피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자들이 〈법화경〉을 부지런히 쓰고 읽고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개원법회는 삼귀의, 헌공기도, 부처님 세안식(미얀마 스님 집전), 감사패 수여, 도림 스님 인사말,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928-133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禪으로 상담 심리치료 하는 워크숍 열린다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 초청, 8월 한달 간 세차례 걸쳐 진행

영국 불교수행지도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와 함께하는 여름 워크숍이 열린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와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상담개발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8월한달 간 3차례에 걸쳐 서울 법련사에서 불교심리치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선치료연구소 한국지부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8월 11~15일에는 '가장 소중한 관계' 를 주제로 치료자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치유 과정의 본질과 가치, 윤리, 역할, 기능, 방법의 문제를 다룬다.

8월 19~24일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선치료의 핵심-반야심경의 선치료적 이해' 를 주제로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을 계발하기 위한 단계로 구성됐다. 이론적 내용과 주제를 반야심경에서 착안해 공(空), 너머(바라밀), 지혜(반야), 오온, 무상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살피고,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소규모 집단실습을 병행한다.

마지막 8월 26~28일에는 '선치료 지도자 과정' 이 열리며 상담시연과 함께 분석을 주로 하게 되며, 기법, 실습, 피드백과 토론 등 실습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 포함된 '가장 소중한 관계' 45시간, '선치료의 핵심' 54시간, '선치료 지도자 과정' 27시간을 수료하면 국제선치료연구소(ITZI: International Zen Therapy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자격증(Diploma)이 발급된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 50명에 한하며 전체 일정동안 한국어로 통역된다.

한편 8월 16~17일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는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와 함께하는 '주말 선치료 코스' 가 열린다.

브레이저 박사는 응용불교심리학으로서 선치료의 위치와 원리 및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를 주제로 불교심리학 중심요소인 집착문제를 다루게 되며 인간관계에 불교심리학을 적용한 선치료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열린 산사워크숍에 초청된 브레이저 박사(사진 가운데)가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현대 불교심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브레이저 박사는 세계적인 불교상담전문가로 영국 아미다 트러스트(Amida Trust) 창립했다.

브레이저 박사는 10대 후반,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쵸감 트룽파 린포체에게 처음으로 불교를 접했으며, 영국 킬(Keele)대학교에서 '불교가 서양 심리치료에 미친 영향' 을 주제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선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제선치료 연구소(ITZI)를 설립해 영국, 스페인, 벨기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불교심리학에 뿌리를 둔 심리치료와 불교심리학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워크숍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kabp@hanmail.net)로, 주말 선치료 코스는 불교상담개발원(jabi7378@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8월 2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8월 18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 보금자리 찾는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그동안 시설노후로 불편을 겪었던 중앙승가대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의 장애아동시설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이 인근 부지로 터를 옮기고 승가원 서울희망행복타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승가원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당초 중앙승가대 기숙사로 쓰여진 건물이다. 1970년대 지어졌으니 시설이 노후화된 건 당연지사. 건물 벽을 타고 종종 지하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배관누수, 결로현상 등도 골칫거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수리에 나서지만 아이들 건강 걱정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낡아버린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75명에 달하는 아동들의 교육, 생활 공간으로 쓰기에 현재 건물은 좁고 불편하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이 없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보관할 공간마저 여의치 않다. 치료실 역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봉사자들이 이동을 도와줘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가원을 방문한 후원가족들이 먼저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선다.

이처럼 승가원장애아동시설 환경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09년부터 승가원에서는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했다. 희망행복타운에 필요한 부지를 6년 동안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의뢰한 후,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은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초 취임한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 역시 건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대지 매입 역시 원행 스님의 지시로 연초부터 진행중이다.

매달 모이는 후원금 중 일부를 알뜰살뜰 적립한 덕에 현재 약 530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현재 대지와 비슷한 크기의 750평 확보를 목표로 나머지 220평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 중이다.

1970년대 건축…시설 노후화 물론
엘리베이터 · 휠체어 · 경사로 없어

2009년부터 인근으로 이전 계획
토지매입 진행 중…내년 착공 예정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는 계단이 난공불락이다. 1970년대 지어진 탓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경사로 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가원측은 인근 부지로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건축설계 역시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아동들의 생활반경을 고려해 고층이 아닌 단층 건물을 계획중이다.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과 문턱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린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절감역시 도모한다.

이를 위해 승가원 복지사들은 거리캠페인을 실시, 신규 후원가족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전체 1만4천명의 신규후원자중 78%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거리캠페인을 통해 모집됐을 만큼 복지사들의 열의가 남다르다.

이런 노력에 승가원에는 후원자들의 나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어르신은 용돈을 모아 5백만원을 전해주는가 하면 부부간, 모자간 사이좋게 기부한 가족도 심심찮게 있다.

최근 일본에 거주하는 한 후원자는 승가원에 찾아와 1천만원을 후원했으며 한 사업가 역시 같은 금액을 기부한 후 승가원의 감사 인사마저 괜찮다며 사양했다. 기금 모두 승가원 장애인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 뿐이었다.

승가원측은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후원가족들 덕분에 희망행복타운 건립이 멀지 않았다"며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있다.

"희망행복타운 건축을 필두로 장애인영화제 개최, 장애복지연구소 설립 등 장애전문 복지 법인으로 점차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는 승가원은 희망행복타운 건립에 뜻있는 이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문의)1688-0750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찰신도가 불교 사회복지 디딤돌 돼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자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사찰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자비나눔으로 함께하는 직할교구 불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불교자원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서울경기지역 직할교구 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8월 18일 인천불교회관, 20일 진관사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화계사와 약수사에서는 지난 8월 12~13일 교육을 완료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이 '사찰의 사회적 역할과 자원봉사'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만들기'가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직원 강의로 이어진다.

교육 수료자 전원에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참여사찰에는 '자비나눔실천도량' 명패가 전달된다. 교육참여자가 일정기간 활동과 교육을 이수하면 조계종 자원봉사단원으로 등록된다.

조계종복지재단에서는 전국 사찰 대상으로 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받은 사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봉사단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만들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전국 사찰들이 나눔 실천을 통해 영향력과 조직력을 갖춰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하고 불교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야기되면서 기후변화 시대 올바른 정책제시와 재난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개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문명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불교사회복지포럼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국내 사회복지계 학술연구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생태주의 관점으로의 전환'(한동우 교수, 강남대 사회복지학), '기후변화로 인한 천인재해 증가와 적응 한계'(김지석 선임담당관,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난구호체계 구축 방안'(성기환 교수, 서일대 사회복지학) 발제가 이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간의 문명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신청 (02)723-5101

배현진 기자

뇌병변장애 9살 김윤호 어린이

생명나눔실천본부 8월 치료비 지원환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환자로 선정된 김윤호 어린이는 목에 튜브를 꽂아 식사를 해야만 한다.

건강해진다면 멀끔했을 얼굴이다. 큼지막한 두 눈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9살 어린이의 가녀린 목에 구멍이 뚫려있다.

김윤호 어린이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사지마비는 물론 언어 · 청각 ·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제 힘으로는 음식물조차 삼키지 못해 기관지 절개 후 위관으로 연결해 식사를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8월 치료비지원환자로 김윤호 어린이를 선정했다.

김 군은 근육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호흡장애로 인한 가래 제거,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교정도 수시로 뒤따라야 하지만 김 군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라 온전히 간호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일용직을 하는 아버지가 김 군을 돌보고 있고 한 살 터울의 누나는 할머니가 맡아 기른다.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증상이 완화된다면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러나 일용직 수입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안 되는 실정.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입원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지 김 군 아버지는 오늘도 가슴을 졸인다.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북새통 복지관…증축으로 노인편의 증대

강북복지관, 8월 27일 기념효잔치도


8월 27일 증축 완공식을 개최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조감도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이 신관 증축 사업을 거쳐 친환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리모델링 및 증축에 나서 지상 4층, 연면적 638㎡ 규모의 복지관 신관 건물이 완공됐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하루 이용 인원은 1천200명 가량. 당초 5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졌던 터라 건물 증축 요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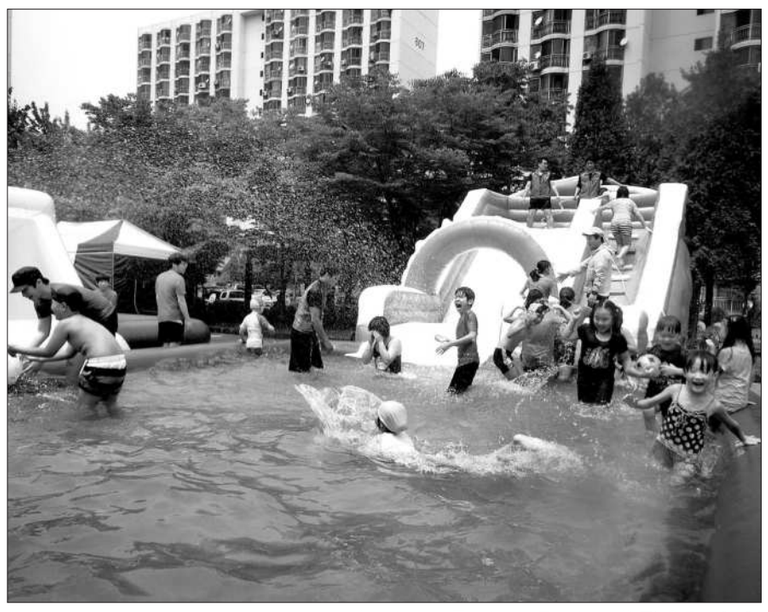
서울시 역시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복지관 증축 공사에 착수,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측에 14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증축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5개 늘었고 탁구실, 바둑실, 휴게공간도 생겨났다.

복지관측은 이를 기념해 오는 8월 27일 어르신들의 상호간 결속력 증대 및 화합 도모를 위해 효잔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을 거쳐 방문 어르신들에게 1천명 분량의 짜장면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회의소가 중식봉사에 동참한다.

배현진 기자


더위 쫓으러 오세요!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 앞마당에 야외수영장이 뚝딱 만들어졌다. 8월 5~7일까지 '청솔 물풀&빙수 축제'가 개막한 것이다. 뜻밖의 야외풀장에 신난 건 역시나 아이들. 더위에 지친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팥빙수로 열을 식혔다. 800인분의 팥빙수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시원한 동네 잔치에 오랜만에 주민들 얼굴에 꽃이 폈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고운사 특강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承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强號之謂大乘

있다(有)는 것에 이끌어도 한결같은(一如) 그 쓰임이 공(空)과 같고, 없다(無)는 것을 얻어도 만물(萬物)이 그것을 타고 나오니(生), 알지 못함이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굳이 대승(大乘)이라 이름이니라.

大乘起信論 海東沙門 元曉 疏 본문 중에서



◐ 일 시 : 2014년 8월 18일(월) ~ 8월 2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www.gosusa.net

탑속 작은 탑 장엄…화엄 우주관 담았다

불교중앙박물관 2014특별전 초청 강연

'요나라 불탑, 불사리 장엄과 우주관'

김연미 교수(예일대 미술사학과)

불교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열반 궁극의 행복' 전시를 기념해 예일대 미술사학과 김연미 교수(35)를 초청했다. 예일대 첫 한국인 미술사 교수로 주목받는 그녀의 강연에는 250여 관중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요나라 불탑을 통해 화엄사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공사상을 이야기하려 했던 요나라의 찬란했던 불교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요나라가 조성한 조양북탑. 지붕 부분을 겹겹이 쌓아올린 밀첨식 전탑으로 1043년 완성한 42.6m의 거대한 규모다. 12층 사리공에서 상당수의 유물이 출토됐다. 사진제공=김연미 교수



김연미 교수는 … 서울대에서 동양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고 2010년 하버드대에서 '요나라 조양북탑(朝陽北塔)과 화엄우주관, 요대 밀교 의례와 일본 진언종 의례의 관련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하이오주립대 미술사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예일대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목민 거란족 요나라를 세우다

거란족은 요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산맥의 동쪽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유목민족이 북방에 살고 있었는데 907년경 야율아보기가 거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카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한 뒤 스스로를 천황제라 부르며 거란국을 세웠고, 중국 남쪽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요나라를 설립 송나라와 대결구도를 이루었습니다. 1004년에 요는 송나라를 공격해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매년 송은 요에 은 십만냥과 비단 이십만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었던 요나라는 제국을 세우고 거란 문자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도시 건축을 통해 다섯 개의 수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권위를 보여줄 궁전을 만들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샤머니즘을 믿어왔던 거란족들은 발달된 종교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때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불교는 황실의 대대적 후원을 받아 발전하게 되는데 이 흔적들은 현재 광활한 초원에 남아 있는 거란족의 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경의 경주 백탑은 7층 높이의 전탑을 세우고 정교하게 돌을 깎아 장식했습니다. 기단부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데 전체 높이가 25층 아파트 높이로 매우 거대하죠.

요나라의 문화는 무척이나 발달했는데 거란족은 스스로의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요사〉라든지 몇몇 기록은 송나라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짧게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라 역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로 보는 찬란한 요나라 불교

하지만 1984년~1996년 활발한 고고학 발굴로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요나라는 학계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 내몽고에서 발견된 진국 공주와 남편의 무덤인데요, 여기에는 황금가면, 불상, 은으로 그물을 떠서 만든 옷, 호박 목걸이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물들은 당시 요나라가 금세공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국 공주의 금관 위쪽에는 도교상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교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고, 남편의 관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어 한 집안에서 여러 종교를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요녕성 조양북탑인데요, 지붕 부분을 겹겹이 쌓아올린 밀첨식 전탑으로 1043년 완성한 42.6m의 거대한 규모의 탑입니다. 인근에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현재는 탑만 남아 있습니다. 12층과 탑 지하에는 사리공이 있는데 이미 지하의 사리공은 도굴을 당했고, 12층의 사리공은 다행히 잘 보존되어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탑의 규모가 워낙 컸기에 여기서 나온 수많은 유물로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진신사리, 사리장엄구, 판석 비문, 공양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리는 빨간색과 흰색 두 과가 나왔는데 빨간색은 부처님의 피에서 흰색은 뼈에서 나온 것이라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밀첨식 탑은 요나라 탑의 특징으로 조양북탑에서 시작되어 조양시 인근의 다른 탑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각형 탑은 이후에 팔각형으로 변하면서 요나라의 중요한 탑형식이 됩니다.

조양북탑 8대 성지 상징 탑장엄 '눈길'

조양북탑 1층 면을 장엄하고 있는 부조들은 굉장히 정교한데 이 안에는 두 개의 소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면에 두 개씩 총 네 면에 위치해 있으니 총 8개의 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남벽에서 시계 방향으로 탑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탑을 탑으로 장엄했을까요? 이는 부처님 일생과 관련한 탑으로 〈대승본생심지관경〉의 8개 탑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룸비니 보드가야 등 부처님 8대 성지와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팔대 성지는 중국과 한국 스님들이 〈오공 입축기〉의 오공 스님, 〈송고승전〉에 실린 신라의 무루 스님, 〈왕오천축국전〉의 혜초 스님 등은 모두 인도의 8탑을 참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만큼 8대 성지를 가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탑 안의 탑은 비록 인도에 갈 수는 없지만 탑돌이를 하면서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8대 성지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으니 이 탑은 불교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화엄우주관이라는 매우 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던 탑 1층의 장엄 소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양북탑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양북탑의 미니어처죠. 또 그 안에는 다시 탑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사면에 두 개 씩 총 8개의 탑이 있고, 여기에 각각 다시 두 개의 탑이 새겨져 있고 또 그 안에 탑이 새겨지고 또 그 안에 탑이 새겨져 탑이 무한 반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나라 법장 스님이 거울방을 만들고 촛불을 설치해 제자들에게 한 공간에 무수한 공간이 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유사한 비유입니다. 즉 화엄 우주관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양북탑은 이를 조성하신 온규 스님이 화엄연화장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한 요나라 조양북탑
거란족의 찬란한 불교문화 대변
탑 1층면에 새겨진 탑의 무한 반복
화엄의 세계 담으며 공사상 전해

화엄우주관 '공사상'을 말하다

탑의 다른 유물들도 화엄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제목이 쓰여진 명문이 전돌에서 여러 개 발견 되었고 장엄구도 발견 되었습니다. 진주 크리스털을 그물로 꾀어 1.5m 소탑 형태로 조성해 놓은 유물도 있습니다. 이 탑의 모양을 살펴보면 계단이 있고 층층마다 처마가 있는데 매우 특이한 구슬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화엄우주관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비유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인드라, 거울처럼 비추는 구슬 또 그 구슬 안에 다른 모든 구슬이 투명하게 비쳐지고 비쳐집니다. 이 또한 화엄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연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인드라망을 비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층 사리공 안에는 각 면마다 아주 섬세한 동서남북 면의 성곽을 새겨놓았고 동벽에는 삼신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신 중 노사나불은 화엄연화장세계를 주관하는 주존불입니다.

화엄 연화장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은 공사상입니다. 탑 외부에서도 공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탑들은 각 면 가운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모두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입니다. 북쪽에는 '불공성취불' 동쪽에는 '아촉불' 서쪽에는 '아미타불' 남쪽에는 '보생불'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비로자나불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비어있습니다. 원래부터 비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라의 여타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이런 배치는 다른 유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로자나불을 공간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여기에 법신불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양북탑을 조성한 온규 스님은 공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 안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은 중국어와 범어(중국어로 음사)로 각 한 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공사상에 중점을 두어 조성된 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탑 속에 탑을 그려 넣는 형식은 한국에서도 요나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리, 무구정광다라니경들이 나옵니다. 이 전통이 요나라로 가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발해 스님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요나라의 불교와 문화가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준 예도 있습니다. 조양북탑 12층 사리공 안에는 밀교 의식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만다라가 있습니다. 사리공 안에 만다라를 새기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밀교 의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 진원종의 밀교의례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다완의 해무리굽도 요나라를 다녀온 스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나라는 여진족과 송나라가 손을 잡고 공격하면서 서쪽으로 옮겨가 서요를 만들게 됩니다. 〈고려사〉에도 거란족이 고려로 투항한 뒤 귀화했다는 기록이 있고 개성에는 거란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라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공 고

(사)국제불교승가회의 이사장 박형규(혜암)스님이 2014년 5월 30일 승가회 이사장 직 포기각서를 제출하므로,

그 당시 구성된 모든 조직표, 직위는 원인무효되며 아래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중지되었음을 공고하고

더불어 2014년 5월 30일 이후 발생된 사항은 귀책의 사유로 인정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 래

1. 단체 명칭 사용 (유사 명칭 포함)
2. 수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3. 법계수여(종단지부 등록 또는 회원가입)외 관련된 모든 업무 등 승가회의 공식승인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2014년 8월 8일

(사)국제불교승가회

이 사 장 송경지 법사 (010-4000-7816)
부이사장 무상 스님
이 사 대명 스님 외 7인

연기론·무애 사상, 한국 문학에 큰 영향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2014만해축전서 다양한 문학세미나

열반 70주기를 맞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을 기리는 '2014 만해축전' 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등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에서 다채로운 학술행사를 열고 500여 문학인들이 함께 불교와 문학의 접합점을 논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3년 열린 만해축전문학세미나 모습. 올해는 불교의 연기 · 무아사상 등과 연계된 문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불교문학사상, 새롭게 개편해야"

현대불교문인협회 '연기론과 한국문학'

현대불교문인협회가 8월 11일 개최한 '연기론과 한국문학' 에서는 김옥성 단국대 국문과 교수의 '한국현대 시인의 연기사상',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의 '연기법 관점에서 본 연애소설',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불교의 연기론과 서구의 인과론', 박상란 강남대 연구교수의 '업보윤회담의 근대적 양상 의의' 등 한국문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 논의됐다.

먼저 만해 스님을 이광수 · 서정주 등과 비교한 **김옥성 교수**는 "만해 스님은 이광수나 서정주 등에 비해 합리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며 "그의 문학에서는 연기사상이 만유의 평등사상으로 드러나며,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 활용된다" 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광수는 만해 스님이 말한 영혼불멸과 달리 모든 행위를 전생의 업의 결과로 해석하는 불교의 이해를 보인다. 그는 내세의 선과를 위한 현실의 희생을 권장하는 논리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서정주의 문학은 불교적 영원주의로 대변되는데 이는 한국전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교적 영원주의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며 "전후 고통에 대한 자기 치유와 자기구원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광수와 유사하게 현생의 고통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 분석했다.

송희복 교수는 맹목적인 갈애를 추구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김인숙의 〈우연〉과 권지예의 〈4월의 물고기〉 등 2편의 연애 소설을 연기적 관점에서 해석해 냈다. 송 교수는 "소설에서는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가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해 생긴 갈애는 숭산 스님이 말했듯 내려놓음으로 해결이 된다. 이번 만해축전이 우리 소설사에 새로운 인물 유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화인들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선시, 현대인의 삶에 나침반 역할"

시와세계 '선시와 아방가르드시의 회통'

이와 함께 시와세계에서 개최한 '선시와 아방가르드 시의 회통' 에서는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의 '조사선 시학', 설태수 세명대 교수의 '윌리엄 블레이크와 중도', 송준영 시인의 '왜 선시인가' 등이 발표됐다.

송준영 시인은 "선시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무아라는 실재 앞에 슬픔과 비탄, 근심 등 물질문명과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 오는 병폐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명예교수는 "조사선에서 말하는 청정심 무념은 순수하고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과도 닿아있기에 '동시' 에서 조사선 시학은 출발한다" 며 "조사선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맑은 마음으로 걸릴 것이 없는 무애의 삶" 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시의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고고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 속의 수행의 일환" 이라며 "선은 세속에 나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나타낸다" 고 강조했다.

설태수 교수는 1700년대 영국의 시인 윌리엄블레이크의 중도사상을 소개했다. 설 교수는 "블레이크는 모든 존재의 구성원자는 형태만 달리할 뿐 한몸을 이루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세계관 하에 시를 썼다" 며 "존재의 전부가 곧 나와 한몸이므로 어느 한 개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사상의 전개, 극락과 지옥도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그 근간이 기독교적임에도 불교와 소통하는 부분이 많다" 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11일에는 창작21작가회의 '민족주의와 아시아문학', 유심시조아카데미의 '시조형식과 그 운용의 미학' 등이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4명 선정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연구자 지원사업에 금강대 교수 1명과 연구교수 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2014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장민호 교수(글로벌인재학부 영어통번역학과) 'IFRS채택이 회계정보 가독성에 미친 영향' 은 2016년 4월까지 2년 동안 총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에는 각각 강명희 연구교수의 '자연을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구(아뢰야식과 기세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와 김진숙 연구교수의 '동아시아 불상조상기를 통해 본 정토신앙의 수용과 전개' 가 2017년 6월까지 3년 동안 각기 총 1억 2,000만원을 받는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 후 국내연수)에는 강형철 박사의 '불교 찰나멸론의 철학적 발전과정 연구' 가 2016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 6,8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금강대는 인문한국(HK)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됐으며 저술 출판 지원사업(최기표 교수, 박영길 연구원) 2건, 명저번역 지원사업(박영길 연구원), 신진연구 지원사업(하상군 교수) 등에도 선정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광주 자운사 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

광주 동구는 8월 8일 광주 자운사에 봉안 중인 보물 제1507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과 복장유물 82건에 대해 문화재 보존처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운사 불상은 조각기법이 자연스럽고 신체비례가 적당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줘 오래된 고려시대의 목조 불상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인 자운사 복장유물은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 및 주금강경(注金剛經) 등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직물류 유물과 1611년에 내장된 후령통(候鈴筒), 팔엽연화(八葉蓮花) 등은 불교학 내용연구와 미술 도상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문화재 보존처리는 지난 2006년 12월 보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 유물에 걸쳐 실시된다. 불상은 3차원 정밀실측을 통해 조사한 후 금도금과 옻칠을 모두 벗겨내고 오염물 세척, 균열 부위 접착 등을 시행한다. 복장유물은 배지를 덧대 원형이 훼손되지 않게 처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 간화선 전통 '돈오점수' 로 보았다"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 대각사상 21집에서 주장

한국불교 수행전통으로 자리잡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용성 스님의 시각을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강사인 법상 스님〈사진〉은 용성 조사 탄신 150주기를 맞아 발간된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사상〉 21집에서 '용성진종의 〈선문촬요〉 번역과 간화선 정관' 을 통해 용성 스님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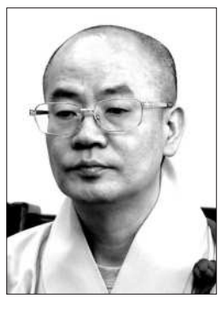
먼저 법상 스님은 "용성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정관은 매우 실제적이란 것이 특징" 이라며 "용성 스님은 설법한 내용을 모두 일심으로 치환해 오직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큰 깨달음이라고 설했다. 점차적인 깨달음의 차례를 단박에 초과해 점차 습기를 제거하는 점수를 드러냈고 이는 능엄경 인용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이와 함께 용성 스님은 〈선문촬요〉를 번역하며 달마의 저작으로 간주된 〈관심론〉 등을 함께 덧붙여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한문 불전에 대한 근현대적 번역은 용성 스님에서 본격화됐다. 특히 용성 스님의 〈선문촬요〉는 간화수행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해 검토했다" 며 "특히 용성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는 개인과 사회, 국가적 실현을 위해 활용돼야 함을 피력한 것이다" 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그 사상이 드러난 부분을 용어의 한글화에서 찾았다. 용성 스님은 불(佛)을 각(覺)으로, 열반(涅槃)은 원적(圓寂) 등으로 본역했으며 다양한 한문어구를 한글로 바꾸었다.

법상 스님은 "불(佛)의 경우 붓다의 음사로 그 의미에서는 '깨달음' 이기에 한글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며 "용성 스님은 '한문 투의 한글 음사' 가 아닌 '한글 의미의 해석' 을 시도함으로서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당시 번역한 다영한 어구는 현대 불교학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어구들이다" 며 "불교학계는 그 가르침에 따라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용어를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학회, 충북대서 제17회 정기발표회

백제학회(학회장 김주성)는 8월 22일 충북대 인문대학 강당에서 '백제사연구 쟁점 대해부' 를 주제로 제17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교수의 '백제사연구를 돌아보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가영 서울대 박물관 학예사의 '고분을 통해본 백제의 국가형성과 발전' △정동준 한성대 한국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의 '백제의 중앙권력과 통치조직' △전우식 국민대 교수의 '백제 지배세력의 권력구조 검토' △박윤선 대진대 교수의 '백제 국제관계사의 체계화 시론'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백제의 지방지배' 등이 발표된다.

김주성 백제학회장은 "백제 초기 성립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043)261-2902

노덕현 기자

'일본불교사 공부방' 12호 발간

일본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모임 일본불교사독서회는 최근 '일본불교사 공부방' 제12호를 펴냈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2005년부터 김호성 동국대 교수를 주축으로 일본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이들은 토론과 연구 내용을 모은 '일본불교사 공부방' 을 내왔다.

이번 제12호에는 △호넨 스님의 '일지소소식' (김호성 · 김현욱) △호넨 스님의 '일매기청문' (김호성) △야나기 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 제18원(독서회)이 실렸다. 특집으로 다룬 '선종과 정토종의 문화' 로 △선종과 정토종(이현옥) △이하백도(二河白道)의 가르침(송재근) △간시궐의 고증(윤창화) △교토의 차 파는 노인, 바이사오(고연미) △ '경허의 얼굴' 을 읽고(안숙경)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불교사연구소를 이어받은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의 원영상 학회장 인터뷰등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71집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71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모집분야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이며 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은 한글요약, 주제어(5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주제어 등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지위, 연락처 등을 명기해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회(hanbulhak@daum.net)로 보내면 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71집 발행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노덕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공약 1순위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불교계·환경단체 반대에 그동안 보류… 강행 분위기 높아

해당지자체 앞다퉈 대통령 건의
정부, 8월 중순 규제완화 발표 예정
불교계 "경제활성화에 가치 훼손"



2009년 지리산 천왕봉에서 열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모습.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전국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은 앞 다투어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8월 중순경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내용이 포함된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산 권역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이미 경남 산청, 함양군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전북 남원, 전남 구례군도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6·4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모두 당선된 지역이다.

문제는 경쟁 심화로 인해 그동안 불교계에서 반대해온 수행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의 목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호남 각 1곳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각 지자체는 자본유치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구례군을 비롯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동부권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동 협력키로 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군 등 지리산권 4개 자치단체와 강원 양양군(설악산)·전남 영암군(월출산)이 신청한 내륙형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성과 공익성 등 그동안 기준점인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북 불교단체 관계자는 "애초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규제했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리산에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된다면 4대강 사업에 이어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 국립공원 지리산의 환경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환경단체들도 4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카 요구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입산객들이 폭증하는 상황에 지리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나 산 정상까지 쉽게 입산을 허용할 경우 자연 훼손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탐방객과 비싼 이용료가 수반돼야 하는데 생태 보전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산국립공원은 생태환경 보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합당한 근거 없이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착한 벗들, 다문화 어린이 포교활동 '눈길'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 벗들(대표 회일)이 '2014 다꿈틔움 어린이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7월 31일~8월 3일까지 김제 모악랜드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세계음식문화체험, 다문화이해 놀이, 치유명상체험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참가 아동들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협력의 공동체 가치관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회일 스님은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포교가 절실한 때"라며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훨씬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불교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다름이란 틀린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문화아동과 (非)다문화아동이 함께 하는 어린이캠프를 지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착한벗들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다문화아동과 (非)다문화아동 참가자에 대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 아동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보조교사진이 함께했다.

한편, (사)착한벗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안정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마인드케어캠프'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聯 어린이 청소년캠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 동원사 주지)은 7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청 법계사와 남원 실상사 등 지리산 일대에서 실시된 '제3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에는 청소년 23명을 비롯해 전체 30명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천왕봉 새벽 산행에 이어 백무동까지 걷기순례, 108배 절명상, 계곡물놀이, 스님과의 대화, 천은사 사찰답사 등이 진행됐다. 지리산마음캠프는 청소년들에게 국토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자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15회 어린이여름생태학교도 8월 1일부터 2박3일 동안 고창 선운사에서 초등학생 42명 등 총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펼쳐졌다. 생태학교에서는 선운산 에코트레킹, 계곡물놀이, 영화상영, 추적놀이, 초록밥상 율동콘테스트, 관음사신협 백미영 선생님의 경제야 놀자, 최순예 한살림생협 교육위원장의 건강한먹거리 강의 및 팥빙수 만들기, 닭싸움 기마전 꼬리잡기 줄다리기 등 공동체놀이, 108배 절 명상이 진행됐다.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보다 많은 사찰과 단체에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새싹불교의 씨앗을 더 활짝 틔워갔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숭림사 청소년 템플스테이 인기



익산 숭림사 템플스테이가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한문 인성교육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외국인 노동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최근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청소년 관련 사고로 인해 보다 안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학부모들과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익산 남성고 학생 39명은 8월 5일과 6일 여름방학 체험학습 일환으로 숭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입재식에 이어 참선, 걷기 명상, 나를 찾는 108배, 발우공양, 둘레길 포행, 다도체험,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지광 스님은 "전통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더 한층 성숙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바른 생활을 이어가기 바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재 학생(17세, 고1)은 "하루하루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며 고민을 토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경험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보람을 표했다. 향후 숭림사는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로 피어난 미얀마 아이들의 꿈



지구촌공생회가 전주 정혜사 스님들의 염원을 담아 미얀마에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8월 6일 미얀마 양곤시 외곽 사우스다곤 타운쉽의 셰인 떼지 아웃 마을에서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기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사무처장 덕림 스님과 시찰단 일행, 남형권 KOICA미얀마 사무소장 등 한국측 인사와 사우스다곤 타운쉽 종교부 대표, 더포아 사원학교 주지 더 꾸따라 사리 스님, 부지 후원자 더포아 씨, 마을 주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미얀마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

미얀마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과 신도들은 4월 26일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더포아 사원에서도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사원 인근 약 3,500여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더포아 사원학교를 후원한 더포아 씨가 학교 전기공사 비용 일체를 후원하기로 해 학교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사장 월주 스님은 기념사에서 "지구촌공생회와 전주 정혜사에서는 학교 건립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을 향한 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원과 교사, 주민들이 함께 학교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학교의 자립 운영을 위한 지역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할 때 지구촌공생회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가 현재까지 지원한 교육시설 중 최대 규모인 더포아 정혜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 과정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교실 12칸, 화장실 8칸 및 급수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건물로 내년 2월에 완공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주사 울화통 캠프… 일탈 청소년 감화

법주사와 충북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법주사 울화통 캠프'가 일탈 청소년 감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은 법주사는 2013년부터 소년사건 대상자나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울화통 산사캠프'를 진행 중이다. 이 캠프는 법주사 불교문화교육원(능인전)에서 하루 동안 명상체험과 요가, 숲 속 걷기 등을 통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총 4차례 12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되는 혜택도 있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호응이 높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6월 한 차례 시행된 뒤 잠정 중단됐지만, 충북경찰청은 이 캠프가 위기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참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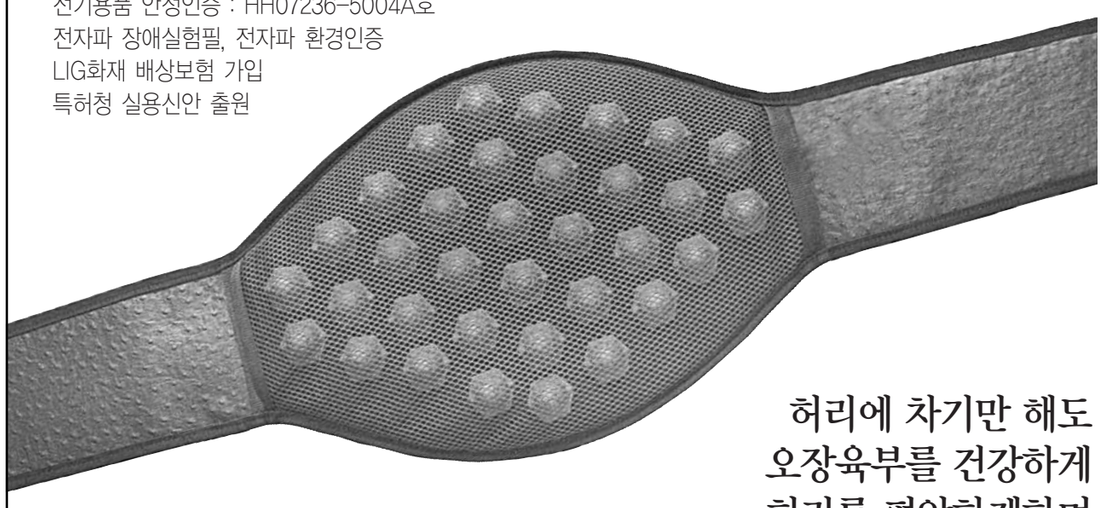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우리 가족 먹는 집밥처럼 어르신 대접"

불지사 매주 화요일 어르신 만발공양 16년

도심 속의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가 16년째 꾸준한 만발공양으로 자비와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불지사 신행학교를 수료한 단체 및 대학입시 백일기도를 주관하는 문수단체 등 불지사의 신행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만발공양팀은 8월 5일 부산 초읍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지부가 있는 부산자유회관에서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만발공양에 나섰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불지사 만발공양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르신들 수만 400명이 넘는다.

50여 불지사 만발공양팀은 새벽 6시부터 나물 다듬기, 밥 짓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장맛비가 끝난 폭염 속에서 불지사 4층 만발공양 전용 부엌을 찾는다.

불지사 만발공양팀 건강밥상 차리기의 신조는 '우리 가족이 먹는 집밥처럼' 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에는 번거롭더라도 위생과 영양에 심혈을 기울여 자비를 실천할 때에도 미비하게 하지 말고 진정성과 함께 제대로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여름에는 계절 특성상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신체와 소화기관이 허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만발공양팀의 의견이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어묵볶음, 김치, 콩나물 무침 등 의 세 가지 반찬과 부추 된장국으로 나물 다듬기, 어묵 기름빼기 등의 정성어린 음식이 만들어졌다. 만발공양팀은 배식장소인 초읍 자유회관으로 이동했다. 낮12시부터 시작한 배식에는 자유총연맹해운대구여성회와 부산문화청소년포럼 뜰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동참해 만발공양으로 자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신도 · 인근 상인 십시일반 모아

500여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

4년 넘게 만발공양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정순옥 무량공양회장(63)은 "고충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고 신심이 생긴다. 몸이 고된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임을 하면서 더 건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순옥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불지사 신도들의 협력과 도움이 항상 있기에 10년이 넘도록 만발 공양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발 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불지사는 1998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 공양을 이어오고 있다.

만발 공양에 동참하고 있는 장정순(63) 불지사 신도는 "맛있게 잘 드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즐겁게 법우들과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것만으로 만발공양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만발공양이 불지사 신도들의 의미 있는 신행활동임을 밝혔다.

한편 불지사의 만발공양은 1998년 IMF 당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신도들이 시주 한 쌀을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로 회향하면서 시작됐다. 거리에서 펼쳐진 만발공양에는 300여명이 몰려와 장소의 제약이 생겼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도들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인연을 맺어 부산자유회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그 후 16년 동안 이어진 선행에는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보시됐다. 불지사 근처 부전시장 상인들은 각종 신선한 야채 및 재료들을 기꺼이 내놓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지부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시설과 쌀, 자원봉사자 등을 제공해 불지사의 만발공양이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나게 해줬다. 또한 운영 상 부족한 부분에는 불지사 신도들이 매달 십시일반 보시금을 내어 만발공양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불지사 만발공양팀은 정기적인 만발공양 외에도 독거노인 반찬 배달, 효 잔치 등을 통해 사회에 진정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원경 스님 일대기 후대에 전하고자"

산청 내원사, 사적비 및 부도 제막식



내원사는 8월 6일 일상당 원경 스님의 사적비와 부도탑을 제막했다.

경남 산청 내원사(주지 영산)가 일상당 원경 스님의 업적과 생애를 기리는 '6주기 추모제 일상당 원경 대선사 사적비 및 부도 제막식' 을 봉행했다.

8월 6일 내원사 앞 터에서 진행된 제막식에는 내원사 주지 영산 스님,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허기도 산청군수 등 내빈을 포함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적비와 부도탑 제막으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주지 영산 스님은 "원경 스님은 폐사지였던 곳에 내원사를 복원하면서 모든 것을 항상 스스로 해결하셨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홀로 내원사를 복원하셨던 원경 스님이 있기에 지금의 내원사가 있다. 오늘 설치된 사적비와 부도탑으로 원경 스님의 참된 일생을 돌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은 "원경 스님의 행적과 일대기로 후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우리 현 불자들의 몫이다. 황폐해진 땅에 불법의 씨앗을 심은 민족의 어머니인 원경 스님을 회상해 본다"며 원경 스님을 추모했다.

한편 일상당 원경 스님은 1959년 400년전 화재로 전소된 덕산사의 터에 내원사를 복원했다. 그 후 도량 가꾸기에 평생을 힘써온 원경 스님은 지난 2008년 세수 85세로 입적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구 법왕사 27회 백고좌 회향법회… 8월 2일 봉행

마가 스님 초청 힐링콘서트


법왕사는 8월 2일 경내에서 제27일 백고좌 회향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왕사(주지 실상)는 8월 2일 경내에서 제27회 백고좌 회향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초청 힐링 콘서트를 겸해 의미를 더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구도자적 자세만 있다면, 부패된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혼탁한 기류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보살행을 하여, 잠에서 깨어나 자유롭게 살아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풍물 공연은 물론 우담바라 합창단과 연합합창단의 합창, 상정 스님(대구 즐거운절 주지)과 보현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고집을 버리면 행복해지고 또 고집을 버리면 더 행복해진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의 고집을 버리자.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법왕사는 백고좌 법회 회향으로 8월 20일에는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불명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왕사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 약 500여평 시설규모에 약 50여명을 정원으로 해오름 전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순직장병 극락왕생 및 군부대 무사안전 발원"

신흥사 · 삼광사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거행

최근 총기난사와 폭력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군대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법회를 열어 순직장병의 극락왕생과 군부대 무사안전을 기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8월 8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육군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천도법회' 를 거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난 6월 21일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한 지 49일째 되는 날로, 순직장병의 영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건봉사 주지 마근 스님 등을 비롯해 8군단 관계자와 장병, 22사단 율곡부대 관계자 및 장병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추모묵념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신흥사 한마음합창단의 조가 합창, 영가법문, 추모사, 사홍서원, 헌화, 시식, 소대봉송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신흥사…건봉사서 49재 거행

삼광사…유족과 극락왕생 기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영가법문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의 인연을 다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군부대 지휘관, 군장병 여러분들도 영가들이 극락왕생했다는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피속에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8월 8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육군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천도법회' 를 거행했다.

신흥사는 49재 거행 후 총기난사 사고 희생자 5명의 위패를 봉안했다. 한편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도 같은 날 오전 9시 삼광사 경내 지장전에서 스님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사단 총기사고' 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 장병을 위한 49재를 거행했다.

이나은 기자

동련 전국어린이 연합 불교학교 캠프

8월 15~1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8월 15~1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 를 개최한다.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품안에서 나를 찾는 캠프'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불교학교는 독자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열기 어려운 사찰 및 어린이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8~13세의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전교육과 기초습의를 시작으로 입재식, 조별 텐트 설치, 예불, 우리 모두 멋쟁이(조별활동), 합장주 만들기, 〈부모은중경〉 사경, 포행, 신나는 찬불가 율동, 신나는 물놀이(야외 수영장), 신나는 갯벌체험, 나에게 쓰는 편지, 신나는 캠프파이어, 숲속명상, 시원한 부채만들기,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들의 인성을 위한 심성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051)864-4569

김나영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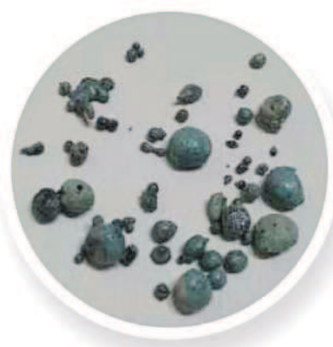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묫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재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정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천운사 TEL.02)952-9918 / HP.010-3566-3019 분양문의 (주)천운효행 TEL. 02)935-0521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00-6(수락산)

풀옷으로 몸 가린 산사 축제의 성지

암자를 찾아서- ⑤ 정릉 심곡암

비바람이 몰아친 후 썩은 가지들을 훌훌 털고선 나무들의 기상이 더욱 싱그럽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8월 서울 인근의 작은 사찰을 가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바로 북한산 심곡암(深谷庵)이다.

심곡암은 북한산 동편 형제봉 아래 자리하고 있는 자그마한 암자다. 국민대를 지나 북한산 입구 긴골을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심곡암이 있다. 깊은 계곡인 심곡(深谷)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심곡암은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안에 위치해있다. 지금은 길이 나 있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

정릉의 북악터널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 옆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심곡암에는 115년 된 굴참나무 아래 커다란 너럭바위가 보기 좋게 놓였다. 이 바위를 중심으로 매년 4월과 10월이면 산사음악회가 열린다고 한다. 바삐 오르느라 송글송글 맺힌 땀을 돌계단 아래 약수물로 날려버린다.

아들 낳는 관음바위 유명해

심곡암은 개창된 지 100여년 정도 된 사찰이다. 하지만 심곡암의 유래는 조선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관음바위'의 전설이다. 심곡암 대웅전 위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일명 '물개바위' 또는 '관음바위'다. 이 곳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기도해 소원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특히 정릉 김판서 댁 마님이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어 조선시대부터 기도 행렬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 관음굴이라는 전각이 남아있다. 그 설화가 재미있다.

조선시대 말엽 정릉에는 김참판이라는 이가 있었다. 김참판의 집안은 대대로 큰 부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가문의 이름을 나라에 올리면서 곤궁하지 않은 삶을 살아 왔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언제나 근심거리가 있었다. 바로 손이 귀한 것이었다. 육대 째 내려오는 독자인 김참판은 그 대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첫째 부인으로부터 자식을 보았는데 딸이 셋이나 됐다. 집안에서는 후처라도 두어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자 했으나 허사였다. 둘째부인 역시 딸 셋을 낳고 친정으로 쫓겨 나고 말았다.

김참판의 부인은 매일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부처님. 부디 후사가 생겨 대를 잇게 해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반드시 이 집안에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난다.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그러며 북한산 형제봉 아래 커다란 졸참나무가 있는 곳에서 물개바위를 찾고, 기도를 해보게."

그 곳은 길도 없고 곳곳이 칡덩쿨에 뒤덮혀 자주 맹수가 나타나는 곳이었다. 김참판의 부인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길을 올랐고, 물개바위를 찾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김참판의 부인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 눈앞에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새가 하얀 새로 바뀌어 날아올랐다. 그 하얀 새의 온몸은 백옥 같이 변했고, 곧 천수천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바로 관음보살의 현신이었다.


심곡암 관음굴 옆의 바위가 '물개바위' 혹은 '관음바위'로 불리는 신령스런 바위다. 기도 후 아들을 낳았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이 곳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관음굴 안에 모셔진 옥불 관음보살상. 심곡암에 전해지는 관음설화를 대변한다.


심곡암 대웅전 왼편의 좌선대에서 내려다 본 모습. 맑은 날 좌선대에서는 서울이 모두 보인다.

봄 · 가을이면 음악회와 단풍축제 열려

관음 바위 얽힌 전설 고스란히 전해져

서울시 문화재 '목조보살좌상' 눈길

좌선대에 앉으면 서울 전경 한눈에

어서며 작은 암자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바로 심곡의 시작이었다.

봄 가을 산사음악회 열리는 문화사찰

현재 심곡암은 조계종 송광사 분원으로 원경 스님이 머물면서 봄이면 산꽃축제, 가을이면 단풍축제를 13년째 열고 있다.

사찰의 특설무대에서 벗어나 사찰 자연을 활용해 양희은 · 장사익 씨 같은 예인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조각가 오채현 씨가 천진불과 석탑을 조각해 사찰에 전시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맛볼 수 있다. 절마당의 너럭바위는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무대가 된다.

이밖에 심곡암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7호인 목조보살좌상이 있다. 이 불상은 높이가 88.3cm 정도로 중형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얼굴 상체, 하체의 형태가 안정감을 띠고 있다. 비록 발원문이 남아있지 않아 제작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은 불상 앞에 잠시 서서 경건히 기도를 올린다.

심곡암 한켠에는 높은 바위위에 좌선대가 마련돼 있다. 이 곳에 오르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거침없이 대려다 보인다. 깊고 깊되 어둡지 않고 높고 높되 드러나지 않은 절묘한 도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내려오는 길 심곡암 석가진신사리탑 옆에는 5심글이 눈에 띈다. 수용심(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하심(내려놓는 마음이 불심입니다), 기도심(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자발심(행복에 대해 원력을 지니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세요), 자비심(참사람과 평화의 길을 걸으세요)다. 심곡암의 노보살님은 심곡암 대중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글을 읽고 내려가는 길은 아까와 달리 마음이 편안하다. 비록 잠시뿐이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다. 올라오며 흘린 땀방울도 어느새 날아가버리고, 이곳이 바로 깊은 계곡의 무릉도원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시간. '무아'(無我)라고 이름붙여진 공양간에서 시원한 냉수 한잔을 마시고 다시 속세로 길을 떠난다.

심곡암=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변 둘러볼만한 곳

▲정릉

정릉은 조선 태조의 2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릉으로 사적 제208호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 지금의 정동에 자리하게 됐다.

태종(이방원)이 1409년 옮겼는데 이는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데 대한 앙갚음이라는 설이 있다.

태종은 릉을 옮긴 뒤 정자각을 헐고 석물을 모두 묻어 없애기도 했다. 이후 수백년간 왕후의 릉으로 불리기 어려울 정도의 격을 지니고 있었다. 1669년 송시열의 계청으로 종묘로 꾸며졌으며 재실이 중건됐다.

▲북한산 명상길

북한산 정릉입구에서 형제봉으로 오르는 길은 북한산 둘레길 5구간으로 정릉 명상길이라 불린다.약 2.4km 구간으로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다.

'둘레길'이란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돼 있어 안내에 따라 걷기 쉽게 해 놓았다. 초반에는 가파른 길이 조금 있지만 계단이 놓여있어 걷는데 불편하지 않다.

명상길의 끝인 형제봉은 형봉과 제봉으로 이뤄진 쌍둥이 봉우리다. 여기서는 능산을 따라 사자바위 등으로 갈 수 있다.

▲정릉계곡과 청수장터

정릉계곡은 오랜 옛날부터 청수동의 계류를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여름철이면 피서를 위해 찾아드는 인파가 길을 메웠다고 한다. 특히 정릉유원지 깊은 곳에 위치한 청수장은 장안의 부호들이 즐겨찾는 장소였다. 청수장이라는 명칭은 삼각산 남측의 깊은 계곡의 맑은 물과 산수가 조화를 이룬 곳이란 의미다. 청수장은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매입해 삼각산 탐방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정릉 청수장 유원지

■심곡암 가는길

서울 내부 순환도로에서 정릉을 거쳐 국민대 입구를 지나 북한산 입구로 들어서면 된다. 정릉길에서는 북악터널을 지나기 전 우측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북한산으로 오르면 심곡암을 찾을 수 있다. 평창동에서 올 때는 북악터널을 지나 국민대 앞에서 유턴을 하면 된다. 북한산 탐방소 입구에서는 등산길을 20~30여분 걸어야 한다.



新 사찰 건축
13. 부산 안국선원

'우주'의 무한성 표현한 창조적 실험작


부산 안국선원은 우주의 무한성을 표현한 원형구조를 택해 독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까지 이뤄 사찰 건축의 특수성이 지역의 공공성으로 자리잡게 됐다.

지구는 둥근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네모난 것들이 많다. 우리는 대개 네모나게 생긴 집에서 네모난 TV를 보며 마찬가지로 네모난 베개와 이불에 파묻혀 잠을 잔다. 손에 닿으면 가까운 것일수록 네모난 것들이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 안국선원은 일상적 '네모남'을 거부했다. 컴퍼스를 대고 그린 듯 둥근 건물 세 채가 대지에 서 있다. 야트막한 산의 굽이진 능선을 배경으로 건물의 곡선역시 보드랍게 흐른다. 형태는 독특한데 그리 튀어보인다는 느낌이 없다. 건물의 색깔 때문이다. 초록색 산과 어울리도록 수수한 회색을 썼다. 콘크리트와 통유리가 가로띠처럼 교차해 주변 아파트와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산을 깎다 맞닥뜨린 거대한 암반은 그대로 건물 뒤를 병풍처럼 감쌌다. 건물 사이로 만들어진 산책로는 기존 나무와 풀을 살리면서 조심스레 길을 냈다. 지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대신 산의 높낮이를 그대로 활용해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안국선원에서는 은근한 멋이 배어나온다.

산 모양에서 지명이 유래한 부산(釜山)과 어울린다고 2006년 '부산다운 건축상'도 받았다. 종교건축물이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꼽혔을 정도니 사찰 건축의 함의가 더욱 넓어진 셈이다.

우주를 표현한 건축물

안국선원 건물의 완만한 곡선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우주의 무한성을 담고 싶었다"는 안국선원 설계자 박건 소장(건축사사무소G.A)은 건물의 컨셉을 이렇게 정리했다. 우주 진리,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불교를 건축으로 치환해보고자 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원에서 그 답을 얻었다. 생을 거듭해 맞물려 돌아가는 순환적 관계, 인과의 원리 역시 원안에 담겨있었다.

선을 참구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 역시 본래면목, 깨달은 경지에서 나타나는 자연 그대로의 심성일터. 윤회의 무한한 굴레를 상징하는 곳에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해 자성을 드러내는 것은 참선도량인 안국선원을 읽는 키워드가 됐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역시 박 소장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였다. 스님이 2002년 박 소장에게 건축의 설계를 의뢰하며 주문한 것도 전통 사찰 건축 형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불교에는 고착화된 상이란 존재하지 않을 터. 있다면 부단히 깨트려야 했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성을 표현하되 동시대인들과 호흡하고 젊은층에게도 거부감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건물을 부탁했다.

박 소장 역시 불교 건축의 역사성이 근대에 들어와 단절됐다며 어설픈 전통 흉내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찰을 복원했을 정도로 고건축계에서 뼈가 굵은 이의 판단이었다. 고건축을 고집할 경우 경제적 비용도 만만찮았다. 일반 건물에 비해 4배가량 공사비가 더 소모될뿐더러 냉난방, 공간 낭비까지 감수해야 했다.

박 소장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원'을 현대식 공법으로 구현해내는가였다. 건축학적으로 원은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 박 소장은 대학시절 은사를 찾아갔다. 일본 오사카예술대 카노 타다마사 교수와 머리를 맞대고 안국선원에 응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곡선 찾기에 나섰다. 큰 방 천장에 실의 양 끝을 매다는 설치미술을 통해 곡선의 다양한 모습을 실험했다. 타원형의 길쭉한 행원과 요사채, 봉긋한 돔 모양의 지붕을 얹은 본동이 만들어졌다. 세 채는 공간적 성격에 따라 나눴고 가운데 본동을 중심으로 건물과 건물을 실내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했다. 행원에는 공양간과 교육관 등이 자리잡았다. 대지 3610평, 건평 1964평의 안국선원은 설계에만 1년, 완공에 2년이 걸려 2005년 개원했다.

형태미 독특한 원형구조 건물
주변 환경과 조화 자연미도 살려
2006년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둥근 발코니 · 나선형 계단
곡선 살린 절묘한 공간 활용

'참선' 위해 3중 유리창 방음
신도들 위해 탈의실 마련
온전히 '공부' 위해 지어진 곳


교육관 내부 모습. 천장과 바닥의 곡선이 강조됐다.

백미로 꼽히는 법당

둥근 공간은 시각적으로는 유쾌할지 몰라도 생활하기에 단점이 많은 것이 아니다. 네모반듯한 건물이 공간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비해 둥근 공간은 죽은 공간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책상 하나를 놓아도 어정쩡하게 죽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국선원의 묘미는 이 단점에서 시작된다.

본당의 좌우는 원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나선형 계단이 됐고, 건물의 앞뒤 역시 둥그런 발코니와 법당으로 태어났다. 덕분에 건물 중앙에는 사각형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을 구획별로 나누어 짬지게 쓴 것을 보면 감탄스럽다. 아몬드처럼 생긴 방 모서리에는 자그마한 찻상을 두고 팽주가 앉을 수 있게끔 공간을 냈다. 그럴듯한 외관에 머물지 않는 내실있는 공간 활용이 절묘하다.

총 4층으로 이어진 건물 중 맨 위층은 안국선원의 백미라 꼽을 수 있는 높이 18m의 원형 법당이 자리하고 있다. 웬만한 체육관 천장보다 높은 것은 돔형 지붕이 있기 때문이다. 철골프레임으로 모양을 잡고 무게가 가벼운 티타늄으로 덮었다.

확 트인 높이에서 오는 장엄함과 아치형 법당의 부드러움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연화장 세계를 그려낸다. 천장에 달린 백열등마저 연꽃 모양이다.

전면 통유리 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덕에 환한 분위기가 법당을 감싼다. 밝은 나무 바닥과 흰 벽 그리고 가운데 자리잡은 불단의 색감역시 화사하다.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한 석가모니상 뒤로 부처님의 10대제자와 여러 보살이 12m 높이의 나무 부조로 표현됐다.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 덕분에 6m에 달하는 석가모니상이 위압적이지 않다.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로 있는 청원 스님의 작품이다.

천장 양 옆으로는 티베트 깨달음의 사원이라는 뜻의 보드나트 스투파에 있는 지혜의 눈을 연상시키는 창이 자리하고 있다. 선원에 다니는 이들은 정신의 눈과 물질의 눈이라고 부른다. 두 개의 눈으로 우주를 실지실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바람이 투영됐다.

참선 수행 최적의 도량

본당이 선원으로 쓰이는 만큼 2층 사무실을 제외하면 1층과 3층에도 소규모 법당이 마련돼 있어 신도들은 어디서든 참선할 수 있다. 법당과 각 방에는 3중 유리로 된 창을 달아 완벽에 가까운 방음을 보장한다. 실제로 창문을 닫으면 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지은 도량"이라는 수불 스님의 말처럼 안국선원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는 것 또한 그렇다. 탈의실에는 재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법복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1, 2층에 남녀별로 마련해놓았다. 이곳에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참선 공부에 충실한 신도들의 법복이 빽빽이 걸려있다. 언제든 편하게 와서 정진하라는 수불 스님의 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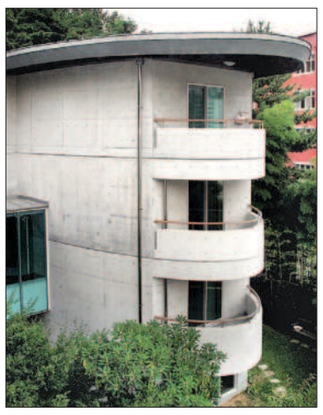
이처럼 살뜰히 만들어진 도량이라면 누구든 경애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어진지 10년이 지났지만 선원에는 사람 손을 타서 더러워진 곳을 찾기 힘들다. 큰 건물이라 관리가 어려웠을 텐데 곳곳이 깨끗하고 정갈하다. 도량이 공부하는 이들을 배려한 만큼 신도들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원을 내 집처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건물은 건축가의 의도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됐다.

인터뷰를 위해 오랜만에 안국선원을 찾았다는 박건 소장 눈에도 뿌듯함이 가득했다. 벽을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애정이 담겨 있다. "지금껏 설계한 건물 중에 가장 즐겁게 몰두했던 작품"이라고 했을 정도로 박건 소장은 선원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조경, 화장실 타일, 방문의 서체까지 꼼꼼히 기획했을 정도다. 나선형 계단에는 층마다 관조 스님의 사진이 은은하게 조명을 받고 있으며 1층 입구에는 반가사유상이 유리관안에서 고고하게 빛을 발한다.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센스가 돋보인다. 한국 사찰의 창조성을 실험해보고자 했던 수불 스님의 뜻이었다.

사찰을 가운데 두고 건축가, 스님, 신도 세 주체가 만들어낸 상호작용이 조화로운 곳, 바로 안국선원이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부단히 깨달아가고 있다.

부산 안국선원=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요사채로 쓰이는 타원형 건물. 둥그런 앞부분은 발코니다.


높이 18m 법당 내부. 돔형 지붕 지지를 위해 뒤쪽으로는 기둥이 둘러섰다.

건축가 박건 소장 인터뷰



1953년 생. 오사카예술대학과 동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고 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일본에서 건축설계를 하다 1996년 한국에 건축사사무소G.A를 설립했다. 주로 부산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동주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시설 다수를 디자인했으며 울산남목성당, 천주교 양산추모관, 울산 장대벌 순교성지 기념관 등의 종교건축물도 설계했다. 그 외 작품으로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 양산 다이아몬드 컨트리클럽 등이 있다.

영산불교 현지사는 왜 불자들의 성지라고 말하는가?

지구촌 보물 대적광전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성지 중 성지 현지사 춘천본사로 불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첫째,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신 부처님의 원만보신이 상주하는 부처님 회상

■ 마음이 부처?

부처님은 계십니다.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닌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에 계십니다. '마음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족하고 계시고, 현지사는 원만보신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유일한 도량입니다.

■ 왜 현지사에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가?

다른 절에도 부처님이 계셔서 불자들의 소원을 섭수하고 중생을 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은 화신이지 보신부처님이 아닙니다. 보신불이 부처님의 본체이고 화신은 방편으로 나투신 한시적 불신입니다. 현지사에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원만보신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현지사는 부처님 회상

부처님이 사바세계 남섬부주에 오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에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받아 응화신으로 오는 경우이고 둘째는 지금 현지사에 오신 것처럼 원만보신 빛의 몸으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두 제자의 수행을 이끌어 불과를 이루도록 하고 정법을 다시 펴기 위해 불신으로 현지사에와 계십니다. 현지사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만보신 노사나부처님을 위시하여 문수 보현, 다보여래불 등 기라성같은 부처님이 상주하는 부처님 회상입니다.

둘째, 불과 이룬 대성자가 주석하는 도량

■ 광명만덕 자재만현 두 분 큰스님

두 분 큰스님은 영산당시 가섭존자 아난존자의 후신으로서 수없는 생 동안 보살도를 성만하고 금생에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으로 불문에 들어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절대적인 가피력으로 불신을 증득했습니다.

■ 불과를 이룬다는 것

불과를 이룬다는 것은 불신(보신)을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신을 증득하면 법신과 화신을 증득하여 삼신을 구족하게 됩니다. 대적정삼매 속에서 육신 속에 있는 네 개의 영체가 이 보신과 하나로 완전 계합할 때가 불과를 증득한 때입니다. 이 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함께 증득하게 됩니다. 광명만덕 자재만현 두 분 큰스님은 1998년, 2000년에 각각 불신을 증득했습니다. 현지사는 이렇게 불과 이룬 두 분 큰스님 대성자가 주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절대계(부처님 세계)와 빛으로 링크(연결)되어 있는 도량

■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부처님들이 머무시는 세계를 〈화엄경 노사나불품〉에는 연화장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큰스님들께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무아속 절대계'라고 말합니다. 이 부처님세계는 실제로 있습니다. 서방극락세계처럼 보살들이 가는 정토세계도 있습니다. 모두 윤회를 벗어난 해탈오계입니다.

■ 영산일회 염연미산(靈山一會 嚴然未散)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 스님은 영산일회 엄연미산(영산 당시 법화회상의 모임이 엄연히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화삼매 속에서 영산정토 영산회상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 절대계 부처님 세계와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량

현지사에는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부처님과 석가탑 다보탑이 실제로 부처님세계와 빛으로 연결(도킹)되어 있습니다.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부처님상은 실제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가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영산정토의 탑과, 다보탑은 보정정토의 다보여래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다보탑과 빛으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고성의 약사성전과 대전의 미타성전도 각각 약사여래부처님 세계와 아미타부처님세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희유한 도량입니다. 이러한 일은 불교역사상 전무후무한 희유한 사건입니다.

불과를 증득한 대성자가 점안하면 부처님께서 불과이룬 제자의 중생구제와 정법홍포를 돕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주기 위해 부처님세계와 도킹을 시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력이 실재로 발휘되어 우주적인 정화작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까닭으로 현지사는 불자들의 성지 중 성지입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은 빛의 인격체로서 현지사에 엄연히 상주하고 계십니다.
억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회상, 성지 중 성지 현지사에 참배하시어 세세생생 좋은 인연 지으십시오.


▷ 부처님 오신날,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부산분원 정기법회
8월 17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5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51)554-5150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화엄의 꽃 절집 천정
〈4〉 안동 봉정사 대웅전

적멸의 공간, 중도의 색채 구현

대웅전 불단 고려 공민왕 10년 조성

봉정사 대웅전 건물은 보물 제55호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9년 문화재적 비중을 반영하여 국보 제311호로 승격되었다. 그것은 1997년 대웅전 후불탱화 보존수리과정에서 국내최고로 비정되는 (1435년경) 영산회상 후불벽화가 발견된데 이어, 2000년 대웅전 해체수리과정에서는 종보 보아지, 종도리, 어칸 기둥, 불단 상판 등 네 곳에서 상량문과 묵서가 발견되어 건축내력이 드러나게 된 까닭이다.

특히 대웅전 지붕의 맨 위 종도리를 받치는 종보 보아지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신라대 창건 500여년이 지난 세종17년(1435년)에 법당을 중창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지금의 대웅전 건물이 근 600년에 이르는, 고려양식을 계승한 조선초기 건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묵서기록은 최근 충북대연구팀의 목재연륜연구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통해 밝힌 1434년 연대 측정값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전 불단상판 밑면에서 발견된 묵서에는 지정21년, 곧 1361년에 불단을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봉정사 대웅전 불단이 고려 공민왕 10년에 조성된 고려시대 장엄임을 확인해 주며, 또한 봉정사 대웅전이 1435년 중창 이전의 고려시대 요소를 간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묵서를 통해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찰에만 조영되어 있는 사찰불단의 제작연대 및 제작기법을 비교추론할 수 있는 귀중한 절대연대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건축과 미술사학의 보고…절대연도와 기준모듈

그런가하면 대웅전 어칸 서쪽 기둥에 쓰인 묵서도 불교미술사학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어칸기둥 묵서에 따르면 "1436년 여름에 대웅전 내부를 수장(修粧)하고, 단확화주는 각종, 해영, 성월 등 이었음"을 밝혀 시공 연대와 참여자 이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단확'은 '단청'을 이르며, '수장'이라는 말은 수장공사라 하여 바닥, 벽체, 천정마감 등 건축내장 마무리공사를 의미한다. 이 묵서를 통해서 봉정사 대웅전 천정장엄이 근 600년에 이르는 중세의 빛임을 짐작할 수 있고, 기록대로라면 영산회상 후불벽화와 천정에 베푼 장엄문양들이 미켈란첼로가 그린 시스티나성당의 프레스코벽화 보다 적어도 70년 이상 앞서는, 거룩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봉정사 대웅전은 건축, 벽화, 불화, 불단, 청정장엄 등에서 편년비교의 절대연도와 양식상의 기준 모듈을 제공하는, 건축과 미술사학의 보고라 하겠다.

천정에 태극기 조형원리로 베푼 육자진언

봉정사 대웅전 천정은 어칸과 양 협칸이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조성된 우물천정이다. 우물칸 수는 어칸에 36칸, 양협칸에 55칸씩, 후불벽 뒤칸에 12칸해서 총 158칸이다. 후불벽 뒤칸을 뺀 모든 우물칸에는 범어로 '옴 마니 반메 훔'의 육자진언을 넣었다. 그런데 어칸과 양협칸에 넣은 문양이 서로 다르다. 두 문양 모두는 태극기의 조형원리를 닮았다. 태극과 건곤감리 사괘 자리에 고도로 관념화 된 연꽃문양을 베풀었다. 우선 어칸의 문양은 천원지방을 상징하듯 태극 자리에 커다란 원형을 넣었고, 사괘 자리에는 피어나는 연꽃의 형상을 시문하였다. 중앙의 원형은 여섯잎으로 육등분하여 왼쪽으로 도는 육자진언을 입혔다. 칸마다 바탕은 검정색 느낌이 들 정도로 짙은 갈색을 두텁게 올렸다. 그 어두운 바탕색에 명도 높은 노랑과 금니의 색채로 육자진언을 입혀 노랑과 금니의 발채를 극대화하고 있다. 원형의 연판 둘레에는 고려불화의 광배에서 보이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빛이 파장으로 퍼져나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탕에는 생명력과 신성의 기운들이 넝쿨처럼 뻗치고 있다.



봉정사 대웅전 천정에 경영한 두 문양. 위의 문양은 어칸의 것이고, 아래 문양은 양협칸의 문양이다. 어칸은 36칸이며, 양협칸의 우물칸수는 55칸이다.



대웅전 천정은 어칸과 양협칸이 평평하게 조성됐다.



대웅전 불단 위에 경영한 감입형 보개천정. 위로 밀어올려 장엄한 닫집이다.



벽면 평방, 대들보 벽화 바탕에 장엄된 인드라망 벽화. 연기법의 화엄세계를 표현한 기하적 추상이다.

어칸과 양협칸 높이 같은 우물천정

후불벽 제외한 모든칸 육자진언 넣어

조형구도는 변화무쌍한 비대칭속 대칭

무위사 극락보전과 비슷한 화려한 진채

순환과 역순환, 비대칭의 대칭

그에 반하여 양협칸의 문양에는 태극과 사괘 자리에 같은 크기의 연꽃을 경영했다. 조형구도는 대칭과 순환인데, 변화무쌍한 비대칭의 대칭이다. 자전, 공전하는 코스모스적 운행질서와 순환성이 엿보인다. 가운데 태극자리의 연꽃을 중심으로 네 개의 꽃자루가 반시계방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순환하고, 하나의 꽃자루에는 덜 핀 연꽃 봉우리와 시계방향으로 돌아 활짝 피어나는 연꽃이 뻗쳐 나간다. 순환과 역순환이 통일되어 있다. 이 구도를 기하적으로 간결히 도형화하면 卍자가 될 것이다.

무시무종의 태장계와 금강계 만다라

어칸의 문양이 생명력의 자궁, 곧 메트릭스를 간직한 여성성이라면, 양협칸의 문양은 운동에너지가 느껴지는 남성성이다. 그것은 마치 여성성의 태장계만다라와 남성성의 금강계만다라를 격자 한 칸에 압축해놓은 듯한 상징적 모티브를 느끼게 한다. 문양의 개략적 구도에서 도 두 만다라적 모티브를 자아낸다. 두 문양은 어칸에서, 양협칸에서 음양의 이치로 반복적으로 변주된다. 그 반복 속에서 광대무변의 법계가 구현된다. 법의 진리가 가득한, 진공묘유의 무진법계다. 어칸에는 태장계의 만다라가, 양협칸에는 금강계의 만다라가 무시무종으로 펼쳐져 있는 셈이다.

색채의 중도…수월관음도 압축한 기하적 추상

봉정사 내부단청은 그 시기에 입혀진 진채인데, 전란과 화마가 유난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우물천정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고색창연한 진채다. 차분하고 진중하며 두터운 신뢰감을 자아내서 마치 색채의 중도를 구현한듯 하다. 유위의 색이 무위의 공으로 돌아간 경지다. 들뜸도 없고, 번뇌도 사라진 색이다. 뜻은 드러나고 색은 잠겨 있는 열반의 경지다. 그 빛 속에 공간은 은은하고 고요히 침잠한 관조의 세계를 운영한다. 적멸의 공간이다.

특히 봉정사 대웅전 천정장엄에 입힌 진채에는 고려불화의 전통이 고스란히 읽혀진다. 일본 단잔진자나 다이산지 수월관음도에 베푼 색채조합, 곧 검은 갈색계통의 바탕에 붉은 주사와 금니(노랑)의 주된 색조조합으로 색의 어둠 속에 형상의 맑은 빛이 드러나게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천정의 연꽃에 베푼 다라니가 '옴마니반메훔'이니 연꽃 속에 대자대비의 관음보살께서 환희심으로 나투시고 계신다. 따라서 봉정사 천정 한 칸은 수월관음도를 고도의 관념으로 형상화하고 단순화한 기하적 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웅전 어칸 불단 위로는 붉은 주사를 입힌 대략 50cm 깊이의 감입형 보개를 경영해서 공간의 위계성을 드높였다. 보개형 감실에는 축소된 포작으로 공간이 가진 신성의 깊이를 더한 위에, 발가락 다섯을 가진 황룡과 적룡이 보주를 다투는 벽화를 올렸다. 이러한 감입형 보개양식의 천정은 대체로 시대가 이른 건축연대를 지닌 무위사 극락보전이나 장곡사 하대웅전 등 서너 곳에서 나타날 뿐이어서 문화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고구려벽화, 고려불화 전통 이은 진채기법

봉정사 대웅전 천정장엄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채색기법이다. 채색기법에는 수묵이 있고, 담채가 있고, 진채(眞彩)가 있다. 수묵은 먹을 물에 풀어 쓰고, 담채는 대개 식물에서 얻은 염료로 색을 입히고, 진채는 광물안료를 아교 녹인 물에 개어 사용한다. 진채는 고구려 고분벽화, 고려불화, 조선불화, 민화의 책가도에 사용된 채색기법인데, 보통 비단이나 종이에 색을 두텁게 쌓아 입힌다. 봉정사 천정장엄의 문양은 진채기법으로 색채를 입힌 진채화다.

그런데 봉정사 대웅전이 중창되고, 단청장엄이 이루어졌던 시기인,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1441년) 12월 2일 기록을 보면, 세종께서 사찰불사에서 금과 진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내린다. 즉 세종께서 승정원에 이르기를 "금은주채(金銀珠彩)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니 지금 후 금으로 부처를 도금하고, 진채를 써서 단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육전을 두루 살펴 법을 밝혀 모두 영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이른 것이다. 이 금령은 엄하게 내려져 1445년에 이르면,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개성의 관음굴, 석왕사 등을 중창하면서 단청을 진채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도 불허하기에 이른다.

벽면 평방에 베푼 연기법의 인드라망

뿐만 아니라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대들보와 벽면 평방에 베푼 문양과 벽화도 주목된다. 문양의 바탕은 육각형과 삼각형, 그리고 원의 얽히고 설킨 결합이다. 이런 문양을 단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솟을 줏대금'이라 부른다. 그런 용어는 조형에 담긴 아무런 뜻도 담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석가탑을 두고 돌무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평방과 대들보 용 벽화 바탕에 입힌 연속문양의 본질은 연기법의 인드라망이다. 인드라망은 제법무아의 연기법으로 관계하는 우주만유의 그물망이다. 그물망의 매듭마다는 서로를 비추이는 거울이 있다. 만유는 자성이 없는 일체의 연기로서 상입상즉 하는 중중무진의 유기체다. 그래서 부분은 전체이고, 전체는 부분이다. 세계는 연기의 화엄세계다. 그 연기법의 화엄세계를 드러낸 기하적 변상벽화가 봉정사 대웅전 평방과 대들보에 고색의 원형으로 경영되어 있는 것이다. 짙은 녹청의 그물망에 노랑 보주가 빛나고 있다. 저 진리의 연기법을 깨쳐서 하화중생의 보현행원으로 무소의 뿔처럼 갈 때, 그 사람이 진여의 빛, 중도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천등(天燈)의 등불일 터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사량분별 여의면 본래의 지

중생불 ④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아니여. 그러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소의 혓바닥이 설법을 하네. 이거 조금 더 여러분 아는 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설법 내가 하는 것 아니죠? 이건 알죠? 대혜승 보살, 말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은 이걸(몸) 갖다 내라 할 거라 말이죠. 이걸 갖다 김백봉이라 할 거라. 내 혓바닥에 성품이 있나요? 설법하게. 내 입에 성품이 있나요. 설법하게. 아니거든. 솔직한 말로 아니거든. 그럼 우리 이 색신 여기에 백혈구 적혈구, 색신 가죽주머니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 성품 없는데 어떻게 설법하죠? 보는 것도 못 보고 듣는 것도 못 듣지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생각도 못하고 그거 참 묘하죠? 무형무색인 말이지 우리의 법신 자리, 법신이라 해도 좋고 허공신이라 해도 좋아. 뭐라 해도 좋아. 이 이치를 알면 뭐라 해도 좋아요. 요놈이 생각을 딱 결정해서 이 말 하겠다 저 말 하겠다, 이것을 빌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없는 이 내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하니 이걸 모르고는 생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죽 말하자 할 테면 우리의 육신이라 하는 것은 아무 성품도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 내 몸이라 하고,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이라 해서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만 년 하기로니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나 복은 지어. 복은 짓더라도 그건 쇰에 속하거든. 쇰복에 속하는 거여. 세는 거. 유루복.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더 말할 거 없고 안데

그러면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불법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 이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좋고 나쁜 걸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굴릴 줄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대성으로 모든 걸 갖다가, 몸을 나투어서 즐겁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은 말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할 테면 네 가지 태란습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이 전부다 이런데, 결국은 뭣이냐.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러한 복은 저절로 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란 것도 알았단 말이지. 중생불, 여러분 중생불이거든. 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사실로 중생불이지 중생불이 아니냐 말이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씨앗이 없다면 중생불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씨앗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간직하고 있으니 중생불이지 뭣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서 중생불이냐 말이지.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불이란 말이에요. 또 경계에 휘둘려서 거기에 들어앉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들어앉지 않고 그

> **육신은 성품이 없는데**
> **세상 사람들은 이를**
> **자신의 몸이라 하고,**
>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 **자신의 마음이라 생각하니**
> **근본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래서 사량 분별 말쑥하게 여읠 줄 알아. 말쑥하게 여의어 버리면 본래의 지. 저 제비가 집 짓는 것 탄복하지 않았어요? 그것 본래지지 뭣이에요? 지푸라기 갖다가 전등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거 본래지지 뭣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지가 있다는 걸, 본래의 우리의 슬기, 본래지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 의심 안할 거라 말이여. 이를 잡아도, 이란 놈도, 요즘 이는 없더라. 뽈뽈뽈 도망가는 거 본래 지거든. 잡히면 큰일나겠다 말이지. 겁이 나서 도망간다 말이지. 그거 본래의 지지 뭣이에요. 누가 니는 잡히면 큰일난다 하고. 어쨌든지 우리가 본래의 지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의심 안할 거라 말이야. 의심안하고 그거 요새말로 절대성자리라 말이여. 그러니까 이 절대성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거라.

그까짓 거 요 절대성자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뒤죽박죽 되도 이까짓 거 문제없어. 이까짓 거 문제없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기 때문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뒤죽박죽 된다할지라도 여러분 콧구멍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 밖에 안 돼. 그 얼마 안 돼.

왜 그러냐. 실제 여러분의 몸뚱이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위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밑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옆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말이여.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한정이 있잖아. 그까짓 거 한정.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여기에다 한정있는 걸 대면 그거 뭣이에요? 좁쌀만한 것이지 무엇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하나의 좁쌀알에 지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허공 속에 있어. 이것만 내다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들어앉지 마라 말이여. 사실로 여러분 들어앉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늘 내라고 하면서 공연히 자꾸 들어앉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죽주머니 안에 들어앉지 않았어요. 어디인가 찾아내지 못해요. 가죽주머니 안에 들어앉았으면 어디가 있죠? 여러분 눈에 있는가 귀에 있는가 허파에 있는가 대장에 있는가 소장에 있는가 팔이나 다리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여. 찾아내 봐요. 못 찾아내. 못 찾아내.

죽도록 해봤든 찾으려면 못 찾는데 어찌 여러분이 가죽주머니 속에 들어앉아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여러분이 여기 들어앉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쓰긴 써. 시시로 변하는 이 가죽주머니를 쓰긴 써. 하지만 여기 들어앉은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이것만 딱 여의어 버리면 말이지 허공이 여러분 속에 있어. 이거 실감이 나요? … 실감나나? 이걸 여의어버리면, 니 몸뚱이를 여의어버리면 허공이 니 속에 있어. 실감 안 가나?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내 말이 거짓말이여. 전부 거짓말이여. 어떻노? 실감 안 가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나? 논리적으로 맞나? 그러면 됐어. 사실이여. 여기에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이거 내다 하는 생각이 있어 놓으니, 허공이 니 속에 있다 이래 놓으니 당최 이거 실감이 안 가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止'와 '觀'의 공상조성은 수행신심 초석

⑩-4보개 회향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이다. 앞에서 지(止)와 관(觀)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먼저 이 지를 닦아 나가는 방법으로 기시론(起信論) 같은 데서는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고요한 곳에 한가롭게 있어야 된다. 둘째는 지계(持戒)가 청정해야 되다. 셋째는 의식이 구족해야 된다. 입을 것, 먹을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정신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어 그칠래야 그쳐지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좋은 스승님, 선지식(善知識)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는 모든 속무(俗務)를 쉬이 버려야 된다. 인연 되는 사무, 그러니까 모든 신상 사무를 걷어치워야 고요해 질 수가 있다. 일가 · 친척 · 아내 · 부모 · 자식, 이런 것이 번거롭게 따르다 보면 고요하기 다 틀렸다. 그러므로 신상은 아주 단순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지(止)에서 특히 주의를 환기할 것은 요즘 선(禪)을 한다. 즉 지문(止門)을 닦는다는 이가 많은데 여기엔 반성할 점이 많다. 인간 생활의 형식을 외면하든가, 일부러 이를 외면하는 것 같은 이즈러진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청정을 닦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불제자의 수행을 하는 데만 주안을 두었으며 그것도 지에, 선정(禪定)에만 한정해 버렸다. 오로지 성정만을 한다. 고요한 지경만 닦고 있으면 자연히 그 정적(靜寂)한 곳에서 그만 마음이 침잠해져 맥이 풀리고 가라앉는 병이 든다. 명산의 공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자지러져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머리가 텅 비어 버리는데 이것을 벽하병(碧霞病)이라고 한다. 혼자 드높은 유현한 철학이라도 더듬는 양 자처하는 것이지만 실상인즉 망상을 달리거나 부질없는 몽상을 일삼는 멍청한 부류다. 그밖에도 아주 게을러 빠져서 남이 농사지은 것, 옷 해 주는 것, 다 갖다 쓰고 도사리고 앉아서 손끝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일하지 않고, 놀고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나, 뭇 선(善)을 달갑잖게 여긴다. 이것은, 그러니까 에고이즘이다. 입으로만 중생을 뇌까리고, 뭣을 위한다 하지만 실천궁행과는 거리가 멀고 보니 이건 아주 개인주의, 그것도 다분히 이기주의적인 자신에게 꽉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대자대비와는 멀리 동떨어진 자리에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통을 부수고 깨트리기 위해 우리는 또 관(觀)을 닦는다.

관, 이를테면 위빠사나를 닦아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세간(世間)의 선이란 것은 제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오래가면 폐단을 일으킨다. 법구생폐(法久生幣)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란 순간순간으로 자꾸 변천되어 나간다. 천변만화하는 그 양상을 부단히 깊이 관찰하고 분석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므로서 사물을 심각하게 이해한다. 이 관, 위빠사나를 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다. 법상관(法相觀) · 대비관(大悲觀) · 서원관(誓願觀) · 정진관(精進觀)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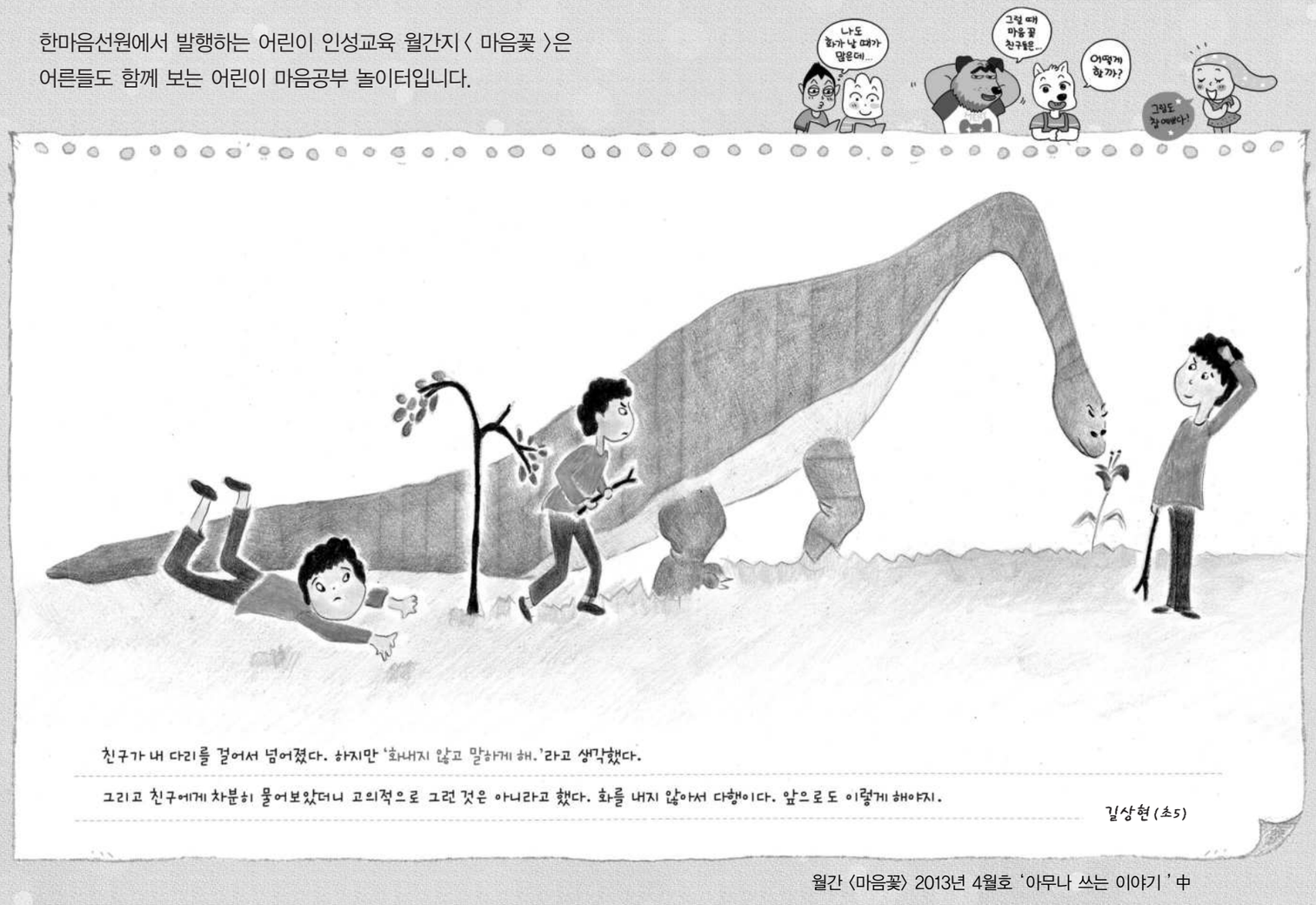
위에서 지(Samasatta)와 관(Bipasana)을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는 한데 합해져

> **관을 닦아 선근을 일으켜**
> **악에 애착하는 버릇 버리고**
> **좋은 일하면 힘차게 나가야**
>
> **이치에 순합하는 지와 관**
> **한 쌍의 수레바퀴 이루어**
> **한가지로 수행해 나가자**

야 한다. 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순(隨順)이 따라야 되며 그러면 서로 순종하고 떠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관문(止觀門)이라고 하는 것이며, 행동에서 머무는 데나 멎거나 일어나거나 간에 항결같이 지관(止觀)이 수행하여 움직여져야 된다. 비록 모든 진리라는 것이 그 자체에는 그러한 상(相)이 없다손 치더라도 마음의 생각에 응하여 일어난 인연(因緣)의 집합(集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善惡)을 깨치게 되고 선악에 따라 고락(苦樂)도 깨닫게 된다. 고락뿐만 아니라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시 커다란 즐거움을 향유할 수도 있다. 그런 과보(果報)를 우리는 실지로 받고 있다. 과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그런 상(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해질 수 없지만 인연을 따라 선악의 업보가 일어나는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어디까지가 선이며 어디서부터 악인 것일까? 고락이란 또한 어떤 것을 일컬음인지, 그 자체는 도무지 얻어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알게 된다. 세간(世間)에 너무 애착하는 어리석은 범부들로 하여금 치(癡)를 다스리기 위해 지의 문을 닦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이승(二乘)과 소승(小乘)들을 위해, 그들이 나 하나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비겁한 생각을 버리도록 지의 문을 닦게 한다. 그리고 관(觀)을 닦으면 이승들의 대자 대비를 일으킬 줄 모르는 용렬하고 막혀 버린 마음의 과실 · 허물 · 착오를 물리쳐 발심(發心)하게 된다. 또 보통 우리 범부들은 관을 닦아 선근(善根)을 일으켜 좋은 일을 힘차게 해 나가게 되고 악(惡)에 애착하는 나쁜 버릇을 여의게 한다. 그리하여 이를 순리고행(順理苦行)의 지관(止觀)이라고 한다. 이치에 순합하는 지와 관을 한가지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관을 한가지로 닦는다. 지와 관이 한데 합치어 한 쌍의 수레바퀴를 이루어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둘 다 구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리(菩提)의 불토(佛土)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치에 순합하여 편파함이 없이 반드시 이 두개는 다 갖추어져 병행해야 되고 둘째는 이장(二障)의 하나, 번뇌장(煩惱障)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에 끄달려 얽매어서 큰 탈을 내는 것을, 또는 소지장(所知障)이라는 아는 지식의 그릇된 작용을 다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지관을 닦아 이로써 그 폐단을 없애야 된다. 이 둘은 서로 돕고 받들므로서 이루어진다. 즉 공상조성(共相助成)이다. 지와 관은 둘 다 합친 행동이라야 새의 두 날개로 공중을 날고, 수레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바퀴 하나가 없으면 그 수레에 어떠한 물건도 일을 수 없다. 이렇듯이 수행신심(修行信心)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상으로 회향(廻向)은 대강 다 얘기하였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마음꽃 피어라,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9〉

화두, 간단(間斷) 없는 참구가 중요



조창환 선생에게 보낸 답서

삼가 편지는 받고서 그간 체후(體候)가 만중하시며 집안도 두루 평안함을 알았으니, 우러러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또 화두공부도 여일(如一)하게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순혈하기(純血下氣 : 혈기가 가라앉고 안정됨)도 잘 되는 모양이고, 잡념도 많이 제거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옛 선승들께서는 공부가 잘 되어도 기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아니 되어도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으니, 견고하고 깊은 신념으로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화두 참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마음을 한 결 같이 하여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간단(間斷)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석(朝夕)을 논해 무엇 하겠습니까?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 간단(間斷, 끊어짐) 없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그리고 행주좌와와 깊은 산속, 도시를 막론하고 다만 화두를 참구하여 오래토록 익히는 것에 주력하십시오.

또 부처(佛)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覺性 : 깨달음의 성품)이 신묘자재(神妙自在)하여 능히 고요하게도 하고 능히 움직이게도 하며, 능히 말하고 능히 침묵하게 하며, 능히 중생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미(迷)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나니, 그 각성을 깨달으면 성인이고 미혹하면 범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神)이라는 말이 귀신(鬼神)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佛性)을 한 번 깨달으면 불생(不生), 불멸(不滅), 불구(不垢), 부정(不淨)이고, 또 옛과 지금에 걸쳐 무량무변해서 본래부터 불사(不死)인 것이니, 귀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혼백(魂魄)과 귀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중생은 미(迷)하면 선악의 업을 지어 죽은 뒤에는 업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니, 절대 부처(佛)를 귀신(鬼神)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이 들어온 이후에 재가자(신도)와 출가자(스님)를 막론하고 참선하여 도(道)를 깨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꼭 부처님 앞에서(사찰에서) 참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를 보는 복잡한 가운데에서 득력(得力)하는 것이 적정(寂靜)한 곳에서 득력하는 것보다 10만 억 배나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의 신심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기축(1949년) 2월 초4일
산승 방중원(方重遠) 올림

공부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깨침엔 견고한 신심이 필요해

이 편지는 강릉 사천초등학교 교장인 조창환에게 답한 편지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마음을 한 결 같이 하여 일체처 일체시에 간단(間斷) 없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佛)란 깨달았다는 뜻으로,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覺性 : 깨달음의 성품)이 신묘자재(神妙自在)하여 능히 중생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미(迷)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나니, 깨달으면 성인이고 미혹하면 범부이므로,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신(神)이라는 말이 귀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대 불성과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일제시대 자료 수집은 동국사 의무 근대 통해 현재 우리를 바로 본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부터 104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 39년간의 암흑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을 맞는 2014년의 8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한일 관계는 조금도 진전 없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강성기조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침탈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일제의 수찰기지 역할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다. 이곳 주지 종걸 스님은 사재를 털어 일제 만행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찾은 동국사에서 종걸 스님을 만났다. 대여섯평 남짓한 종걸 스님의 방은 수많은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구에 자료정리를 위한 컴퓨터 앞에 겨우 앉을 공간만 남아있을 정도다.

사실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못하다. 더구나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작은 엽서크기의 사진에서부터 일본군 총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집한 자료가 5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이유를 종걸 스님은 '동국사가 가진 시대의 의무' 라고 설명했다.

"동국사의 역사적 가치는 일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남아있고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은 동국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무르는 동국사가 일제 강점기 자료를 발굴하고 홍보해 그 시대의 아팠던 역사를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시기도 모두 각각이다. 일제 강점기 초기 자료에서부터 광복 직전의 사료, 수탈의 현장 사진, 근대불교 관련 자료 등 그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아직 채 정리하지 못한 자료도 수 백점이 넘는다. 그동안 자료 수집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자료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장자들이 쉽게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려면 소장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소장자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구입 자금의 어려움, 시간적인 제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국내에는 실제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너무 고가의 자료들이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주목해서 연구해야할 자료들도 상당수가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불교 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자료도 그중 하나다.

근대사 연구하며 자료 5천여 점 수집
일본군 총검 · 엽서 등 분야 '각양각색'
지난해 '쌍림열반도' 日서 환수 성과도

동국사에 日조동종 참사문비 제막 이끌어
이치노헤 스님 도움 커… 표지석 작업도

올바른 한일 관계, 日 진심어린 사과 우선
깊이 있는 원인 분석으로 얽힌 문제 풀어야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고서점을 운영하던 백두용 선생의 개업 당시 백용성 스님과 박한영 스님이 축하시를 남겼는데 박한영 스님은 '금강산 비로봉' 이라는 한시를 썼다. 특이한 점은 박한영 스님은 조선불교월보사장 박한영이라고 썼고, 백용성 스님은 31본산개교사장 백용성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스님들의 소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종걸 스님은 설명했다.

또 이종욱 스님의 은사이자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홍보룡 스님의 명함은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된 일제 헌병일기 수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1910년대 만들어진 스님들의 명함이 남아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밖에도 현재 조계사가 각황사 교당으로 처음 지었을 당시 '각황사'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 1928년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개운사에서 열린 최초의 학인대회 전말을 기록해 놓은 책 등도 중요한 자료다. 특히 학인대회에 대한 책은 국내에 몇 권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최근에 입수한 혜화전문학교 교지, 중앙불전에 교재로 쓰였던 책, 강원도 전통 너와집으로 지어진 설악산 봉정암 사진 등도 근대불교의 민낯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꼽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주목해야할 전적으로는 백양사 청화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 스님이 스스로 깨닫고 이를 문자로 남긴 〈관음문자〉라는 책이다. 훈민정음과 같은 맥락으로 범어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읽고 쓸수 있는 특이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출판됐다. 이 역시 학자들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5000여 점에 이르는 자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가로형 '쌍림열반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해 환수하게 된 문화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초 '쌍림열반도' 가 일본에서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종걸 스님은 일본의 '동국사를 지원해주는 모임' 회장인 이치노헤 쇼코 스님에게 그림의 가치 확인을 부탁했다. 이후 조선 초기 이전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착수하게 됐으며, 결국 120:1의 경쟁 끝에 이치노헤 스님이 낙찰받아 동국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환수했다.

'쌍림열반도' 가 한국에 입국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 관세청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서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환수 이후 '쌍림열반도' 는 서울대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했으며, 500년 전의 작품이 확실하는 판명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쌍림열반도' 환수와 같이 종걸 스님 곁에는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동국사와 종걸 스님, 이치노헤 스님의 인연에는 동



2012년 9월 16일 군산 동국사에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지난해 4월 21일 남산에 있던 약초 관음사의 유구들을 둘러보고 있다.



올해 열린 동국사 기획전을 군산 이성수 부시장이 둘러보고 있는 모습.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부터 104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 39년간의 암흑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을 맞는 2014년의 8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한일 관계는 조금도 진전 없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강성기조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침탈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일제의 수찰기지 역할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다. 이곳 주지 종걸 스님은 사재를 털어 일제 만행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찾은 동국사에서 종걸 스님을 만났다. 대여섯평 남짓한 종걸 스님의 방은 수많은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구에 자료정리를 위한 컴퓨터 앞에 겨우 앉을 공간만 남아있을 정도다.

사실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못하다. 더구나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작은 엽서크기의 사진에서부터 일본군 총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집한 자료가 5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이유를 종걸 스님은 '동국사가 가진 시대의 의무' 라고 설명했다.

"동국사의 역사적 가치는 일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남아있고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은 동국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무르는 동국사가 일제 강점기 자료를 발굴하고 홍보해 그 시대의 아팠던 역사를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시기도 모두 각각이다. 일제 강점기 초기 자료에서부터 광복 직전의 사료, 수탈의 현장 사진, 근대불교 관련 자료 등 그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아직 채 정리하지 못한 자료도 수 백점이 넘는다. 그동안 자료 수집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자료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장자들이 쉽게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려면 소장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소장자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구입 자금의 어려움, 시간적인 제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국내에는 실제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너무 고가의 자료들이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주목해서 연구해야할 자료들도 상당수가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불교 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자료도 그중 하나다.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고서점을 운영하던 백두용 선생의 개업 당시 백용성 스님과 박한영 스님이 축하시를 남겼는데 박한영 스님은 '금강산 비로봉' 이라는 한시를 썼다. 특이한 점은 박한영 스님은 조선불교월보사장 박한영이라고 썼고, 백용성 스님은 31본산개교사장 백용성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스님들의 소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종걸 스님은 설명했다.

또 이종욱 스님의 은사이자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홍보룡 스님의 명함은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된 일제 헌병일기 수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1910년대 만들어진 스님들의 명함이 남아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밖에도 현재 조계사가 각황사 교당으로 처음 지었을 당시 '각황사'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 1928년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개운사에서 열린 최초의 학인대회 전말을 기록해 놓은 책 등도 중요한 자료다. 특히 학인대회에 대한 책은 국내에 몇 권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최근에 입수한 혜화전문학교 교지, 중앙불전에 교재로 쓰였던 책, 강원도 전통 너와집으로 지어진 설악산 봉정암 사진 등도 근대불교의 민낯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꼽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주목해야할 전적으로는 백양사 청화스님의 은사이신 금타 스님이 스스로 깨닫고 이를 문자로 남긴 〈관음문자〉라는 책이다. 훈민정음과 같은 맥락으로 범어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읽고 쓸수 있는 특이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출판됐다. 이 역시 학자들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5000여 점에 이르는 자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가로형 '쌍림열반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해 환수하게 된 문화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초 '쌍림열반도' 가 일본에서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종걸 스님은 일본의 '동국사를 지원해주는 모임' 회장인 이치노헤 쇼코 스님에게 그림의 가치 확인을 부탁했다. 이후 조선 초기 이전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착수하게 됐으며, 결국 120:1의 경쟁 끝에 이치노헤 스님이 낙찰받아 동국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환수했다.

'쌍림열반도' 가 한국에 입국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 관세청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서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환수 이후 '쌍림열반도' 는 서울대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했으며, 500년 전의 작품이 확실하는 판명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쌍림열반도' 환수와 같이 종걸 스님 곁에는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동국사와 종걸 스님, 이치노헤 스님의 인연에는 동



종걸 스님은 …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거창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원광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선운사에서 재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다. 군산 성불사 주지와 군산경실련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군산 동국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국제 포교사, 법무부 교정위원, 군산대 대불련 지도법사, 군산 경찰서 경승, 반민족언론청산포럼 고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舊 일본불교사연구소) 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전법일기

출가의 인연

운명이라는 말로 모든 삶을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내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우연이 불교 동아리를 만나게 되면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불교반 지도 법사님으로부터 '너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인생관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가치관입니다. 가는 실이 있고 굵은 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가늘 게 사는 사람과 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가늘고 길게 사는 길과 굵지만 짧게 사는 인생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의미있는 삶, 가치있는 삶을 찾아보세요."



그림 · 박구원

법사님의 설법은 내게 오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했다. 진리란 '거짓이 아닌 참된 이치' 로 오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민족을 초월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되었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를 출발해 2500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전쟁이 없던 종교라는 점에서 존경이 일었다.

출가를 결심하고, 1년쯤 지나 속리산 법주사로 떠났다. 당시 조계종단은 출가자는 반드시 고졸 학력이상이어야 한다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세속 학력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S공고에 다니던 나는 고 3이 되어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하던 1980년 9월에 입산했다.

출가를 하면 6개월간의 행자 생활을 해야 한다. 그 기간을 거쳐야 예비 승려인 사미가 된다. 남자는 사미, 여자는 사미니로 불리는데 이 때의 예비 승려과정 4년 동안 불교 교리와 참선 수행을 학습해야 한다. 이후 정식 승려에 해당되는 비구, 비구니로 인정받게 된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불보 부처님, 두 번째가 법보 가르침, 세 번째가 승보인 부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스님이다. 그런 만큼 스님이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는 행자 생활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3시에 아침 예불을 하고 4시부터 공양 준비를 한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장작불을 떼고...모든 스님을 만날 때면 90도로 반배를 한다.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규칙이다. 밥을 소리 내어 먹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공양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고개를 약간 숙여야 한다.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19살은 어린 나이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이 생활을 하려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번민 속에서 법사님이 해 주신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떠올랐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으로 영험이 있단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니 힘들 때는 소리를 내어 염불을 외우도록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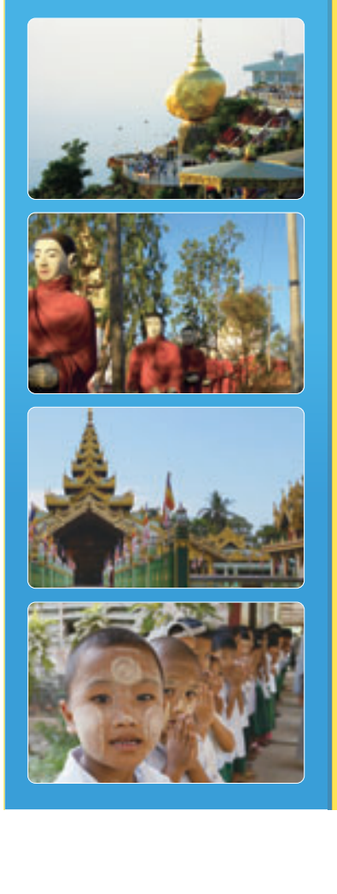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응답이 있다는 것' 을 나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밥을 지을 때마다 염불을 외웠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행자로 들어가면 1인 1실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해도 행자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다. 쉽지 않기에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은 값지다. 행자 과정을 6개월간 마쳐도 사미 생활에서 20% 정도가 스님이 되기를 포기한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십중팔구 중도에서 그만둔다. 이 과정조차 버티지 못하면 수행을 담아내기 어렵다.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은 모든 공동체에서 존재한다. 스님이 되었다고 이런 갈등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9월 5일. 9월 1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10월 21일. 11월 25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9월 3일. 10월 11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9월 10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8대 성지/아그라 11일 11월 25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라싸, 티베트 문화 보존 '청신호'

밴쿠버 썬, 티베트 '라싸' 현장 취재 보도 눈길

라싸에서 티베트 문화는 잘 보존되고 있을까? 〈The Vancouver Sun〉 지가 이 같은 '의문' 을 품고, 일주일 동안 취재한 결과, '긍정적' 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현장 취재' 라는 점이 보도의 '신뢰' 를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The Vancouver Sun〉 지의 "라싸 지역의 가정, 사원, 학교, 관광지에서 만큼은 티베트의 '적극적 참여' , 중국의 '행정적 지원' 이 어우러져 티베트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라싸 지역에서 티베트 문화 보존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집' 이다. 라싸 지역의 티베트인 가정 대부분 예불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예불의 일상화' 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문화의 꽃이 바로 불교"라고 전제한 〈The Vancouver Sun〉 지는 "라싸 지역의 티베트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라싸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자본화' 등에 맞서 티베트인이 자신의 정신문화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이는 조캉 사원을 방문하겠다며 '관광안내소' 에 등록한 '순례자' 수가 하루 5000여 명을 넘고 있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목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사원 관광 안내소' 의 씨렌(Ciren) 소장의 말을 인용, "조캉 사원 순례자의 수는 추수를 분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때는 순례 희망자에게 '방문 번호' 를 발급, 그 수를 제한할 정도"라고 전했다.


닝치 구앙동(Nyingchi Guangdong) 학교의 교실. 라싸에 있는 이 학교는 1년 과정의 유치부과 12년 과정의 초 · 중등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 70%가 티베트인이다. 총 15개 교실에서는 티베트 · 중국의 언어 · 문화 등이 주로 강의되고 있는데, '대화형 디지털 칠판' 등이 설치될 정도로 최첨단의 면모를 보인다.

티베트 적극 참여… 中 행정 지원
가정 · 사원 · 학교 · 박물관 등에서
현대 · 자본화 맞서 티베트 전통 이어

라싸의 바코르(Barkhor) 광장이 추수를 기점으로 순례자들 사이에서 명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코르 광장은 사원 방문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온종일 오체투지를 하는 순례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바코르 광장이야말로 티베트 불교문화의 교두보"라고 전제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이곳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반 중국 시위' 가 가장 치열했던 현장이었다"며 "순례자, 관광객, 상인 등으로 온종일 북적이는 바코르 광장은 티베트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티베트의 노력과 '행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중국의 '유화정책' 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싸의 닝치 구앙동(Nyingchi Guangdong) 학교와 티베트 대학 등도 손꼽히는 '티베트 문화의 첨병' 이다.

〈The Vancouver Sun〉지에 따르면, 1년 과정의 유치부와 12년 과정의 초 · 중등부로 운영되고 있는 닝치 구앙동 학교의 재학생 70%가 티베트인 가정의 자녀들이다. 티베트 전역에서 찾아온 재학생들은 총 15개 교실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한편 현대적인 교육과정도 밟고 있다. 중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닝치 구앙동 학교의 15개 교실은 '대화형 디지털 칠판' 등이 설치될 정도로 최첨단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티베트어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는 라싸의 티베트 대학도 뒤지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 사용되는 있는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티베트를 자유롭게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 프로젝트를 설명한 게상 두오지(Gesang Duoji) 교수는 "윈도우, 리눅스 등 OS 프로그램의 '멀티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워드프로세서에서 자유롭게 티베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티베트 언어와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The Vancouver Sun〉 지는 라싸 지역에서 티베트 관련 박물관 수의 증가에도 주목했다.

"라싸를 중심으로 중 · 소형 사설박물관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The Vancouver Sun〉 지는 지미 왕쵸(Jimy Wangts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문화는 상호 작용의 패러다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며 "고대와 현대의 상호소통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박물관의 증가는 티베트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리모 아닌 엄마로서 가미 키울 것"

세간 울린 태국 우바새의 모정… 성금 잇달아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버림받음 가미(Gammy · 7개월)와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Pattharamon Janbua · 21)

"어릴 적에 단기출가도 했던 불자로서 '낙태' 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가미' 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국제 사회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생후 7개월 아이 가미(Gammy)의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Pattharamon Janbua · 21) 씨는 〈LifeNews〉 지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찬부아 씨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호주인 부부와 '대리모 출산 계약' 을 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신생아 중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가미(이란성 쌍둥이 중 남자)를 '대리모' 가 아닌 '엄마' 로서 키우게 되면서부터이다.

"가미를 사랑해요. 내 뱃속에서 키웠잖아요.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어요"라는 찬부아 씨는 "호주인 부부는 처음에 낙태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라며 "가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어요. 모두 어른들이 잘못한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가미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호주인 부부에게 국제적 비난이 쇄도했다"고 전한 〈LifeNews〉지는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가미에게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며 "덕분에 가미는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덧붙였다.

한편 태국정부는 '가미' 사건과 함께 자국에서 생부가 같은 아기 9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리 출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업적 대리 출산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수행 통한 중독 치유… 美 서부에서 각광

노하 레빈 저서 〈Refuge Recovery〉 눈길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병증' 중 하나가 바로 '중독' 이고,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노하 레빈(Noah Levine)이 〈Refuge Recovery〉(HarperOne 刊)에 게재한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이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는 〈San Jose Mercury News〉 지의 보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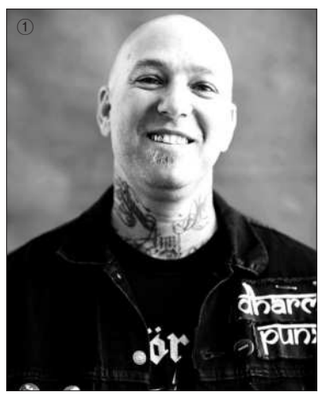
노하 레빈 씨는 '불교 명상가' 로 널리 알려진 '잭 콘필드' 와 함께 수학한 독실한 불교도이다.

〈San Jose Mercury News〉 지에 따르면, 독실한 불교도인 노하 레빈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불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앞서 세간에 알려진 다른 종교계의 방법론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노하 레빈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 크루즈, 시애틀 등지를 필두로 전국의 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San Jose Mercury News〉 지는 분석했다.

'중독 치유 프로그램' 은 자아인식 · 수정 · 형성 등으로 구성된 12단계 과정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San Jose Mercury News〉지는 "중독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학습 과정' 이 필요하다"는 노하 레빈의 말을 인용하고, "12단계 과정에는 중독 행위 중단뿐만 아니라, 망가진 뇌기능과 미성숙한 행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도 포괄되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①노하 레빈 (Noah Levine)



②노하 레빈의 〈Refuge Recovery〉 (HarperOne 刊) 표지

오종욱 편집위원

왕조현, 캐나다 밴쿠버서 불교수행 중

사원에서 승복입은 모습 목격 돼

천녀유혼으로 잘 알려진 홍콩스타 왕조현(王祖賢 · 왕주셴)이 불교에 심취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예매체 텐센트위러(娛樂)는 8월 4일 "왕조현이 캐나다 밴쿠버의 한 사원에서 검은색 승복을 입고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한 누리꾼에 의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왕조현은 머리를 반묶음하고 발목을 덮는 긴 길이의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다. 승려처럼 옷을 입은 왕조현은 사찰에서 수행을 하는 듯 경건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왕조현 측은 부모와 함께 사원을 찾은 것일 뿐 출가한 것은 아니라고 세간의 '왕조현이 비구니가 됐다' 는 설을 부인했다.


캐나다 밴쿠버 한 사원에서 검은색 승복을 입고있는 왕조현의 모습이 포착됐다.

2002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왕조현이 베이징위성TV 예능프로그램 '사인정제(私人訂制)' 로 연예계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헌종법 개정안내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우리 일붕종도(一鵬宗徒)와 일붕법손(一鵬法孫)의 영원한 번영을 발원(發願)하면서

불기2532(서기 1988)년 9월 19일 제정 공포되고 5차에 걸쳐 개정된 종헌종법을 이제 불기2558년 5월14일 제48차 임시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개정 공포한다.

불기 2558(서기2014)년 8월14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 사용 불교달력 정직한가격!!

小 25.8㎝×26.5㎝ 12절

2백부 이상@1,000원

3천부 이상@800원

大 30.5㎝×31㎝ 국6절

2백부 이상@1,200원

3천부 이상@1,000원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마하반야바라밀다경	6절 (6종) 1,900원	1,2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400원 ※ 2000부 주문시 1,100원 ※ 3000부 주문시 1,000원
2호	산사로 가는 길		
3호	연향이 머무는 곳		
4호	천진미소		
5호	행복바라밀		
6호	향기로운 말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3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2000부 주문시 9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8호	관 음 도		
9호	기달마도		
10호	찬년기와 동자		
11호	마음이 머무는 곳		
12호	물소리바람소리		
13호	반야동자		
14호	반야심경		
15호	부모은중경		
16호	부처님사랑합니다		
17호	선의 세계		
18호	세계의 명찰		
19호	연꽃이 있는 풍경		
20호	홀로있는 시간		
20호	맑은 향기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 2000부 주문시 400원
21호	우리말 반야심경		
22호	연꽃향기		
23호	자비의 향기		
24호	천 진 불		
25호	행 복 동 자		
26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6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800원 ※ 2000부 주문시 600원
27호	미 소 동 자		
28호	아름다운 풍경		
29호	천 진 동 자		
30호	청 정		
31호	마음의 소리		
32호	마음에 핀 연꽃[비닐]	차걸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33호	마음에 핀 연꽃[홀더]		
34호	동자 꽃[비닐]		
35호	동자 꽃[홀더]		
36호	선	2,400원	1,600원(200부 이상)
37호	행복한 하루	2,400원	1,600원(200부 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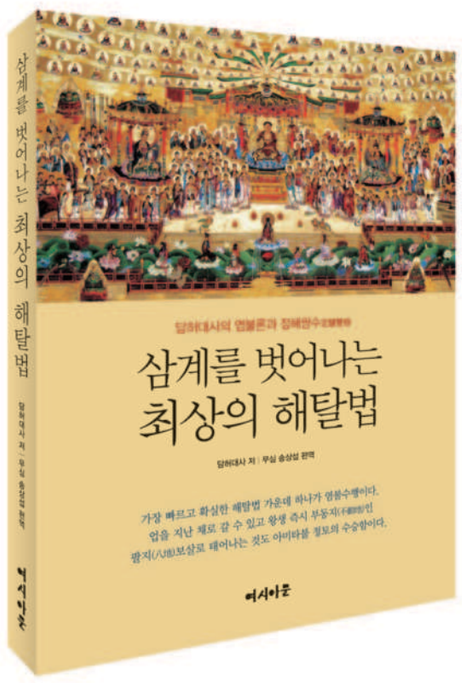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脫)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開悟成就)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닦는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큰 깨달음)을 얻는 제일 똑똑한 수행법이고 닦으면 번뇌가 싱거울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력을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 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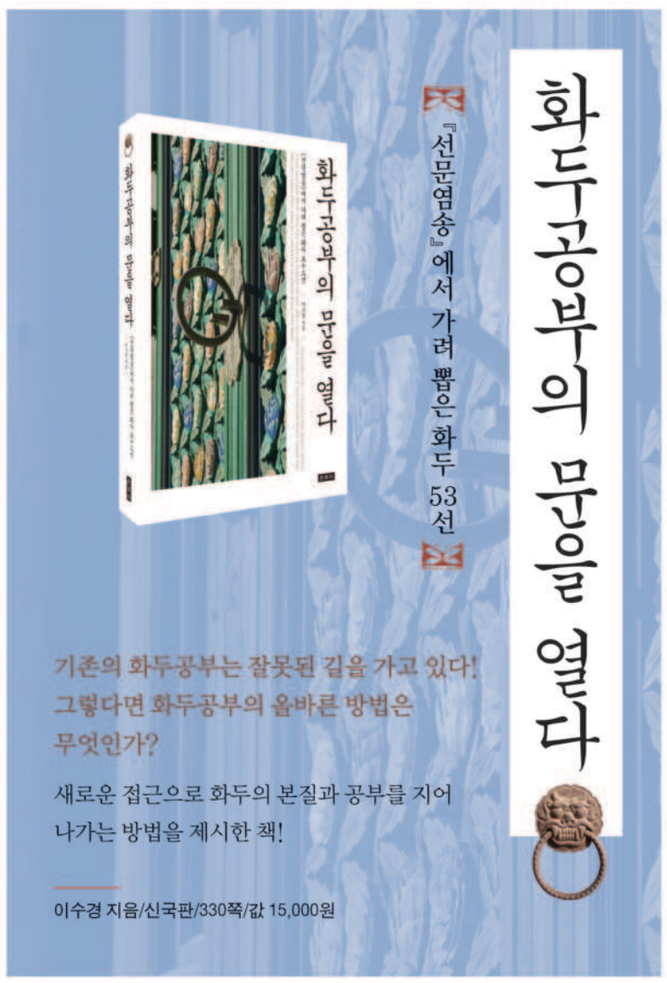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신간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상에 생명력 넣는 '불복장' … 의식 아닌 문화유산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 … 8월 6일 아리랑 TV서 방송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을 담은 아리랑TV 다큐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가 8월 6일 전파를 탔다.

불복장이란 점안될 불상의 내부 공간에 넣는 유물 또는 이를 넣는 의식을 가리킨다. 단순한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 불상에 갖가지 문서와 곡식 등으로 부처님의 5장 6부를 만들어 넣어 생명, 신성(神性)을 불어넣는 것으로 중국, 일본에서도 불복장 의식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의식이 사라졌고 현재는 티베트와 한국만이 불복장 의식의 맥을 잇고 있다. 복장의식은 비밀리에 행해져 왔다. 불상을 모시고 점안식 전날쯤 사찰의 스님들과 복장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이 모여 비공개적으로 행해 왔다. 불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 신성한 의식이기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을 담은 아리랑TV 다큐멘터리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가 8월 6일 전파를 탔다. 담당 최한영 PD는 "불복장 의식을 주관하는 태고종 수진스님과 경남 창원 반야사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복장품을 불상에 넣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불복장 의식의 전 과정을 카메라에 영상으로 담은 것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미를 전했다.

불복장 의식은 무엇보다 사찰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부처님의 영혼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사찰과 그 주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청정해야 한다. 그리고 오곡, 오향, 보석 등 70여가지의 복장품과 부처님의 사리를 넣어 부처님의 목소리가 출입한다는 후령통을 제작한다.

그리고 시주자들의 발원문이 적힌 경전과 옷가지 등 다양한 복장품과 함께 불상에 넣게 되는데 이때 불상에 복장품을 넣는 광경은 일반인들과 다른 스님들의 참관이 금지되어 있다.이러한 불복장 의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점안식 이전에 행해지는 의식으로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당시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나누어 탑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도입된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인에게 성역인 불복장 의식
전 과정 카메라에 담아 방영
국보 40%가 복장 유물서 출토
양호한 보존 상태 '오향' 때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복장 의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불복장 의식을 단순히 불교의식의 하나로 보지 않고 한국의 문화유산적 가치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불상 안에 복장물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국보, 보물 중의 40% 가량이 바로 불상 안에 들어 있던 복장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복장유물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는데, 경북 안동의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는 고려 인쇄술의 절정을 상징하는 1천여전의 목판인쇄물인 보협인다라니경이 발견되었고, 순천 송광사의 관세음보살상에서는 조선시대 직물을 연구할 수 있는 옷감과 직물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양한 복장품을 정리하는 스님들(사진 위)과 진열된 복장품.

불복장 유물은 수백년, 천년이 지나도 다른 유물들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복장품 중 하나인 오향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오향은 전단향, 침향, 정향, 울금향, 용뇌향을 합친 다섯가지를 의미한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넣었던 오향이 오늘날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불상 내부에서 방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복장유품들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보존가능했고 이것들이 오늘날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 PD는 "불복장의 의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복장 안에 출토된 귀한 보물들을 소개해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송광사 불복장 안에는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내용의 글귀가 나오고 상원사 동자좌상에는 세조의 명주 적삼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조선시대 의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역사적 유물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지혜 광명 빛의 예술로 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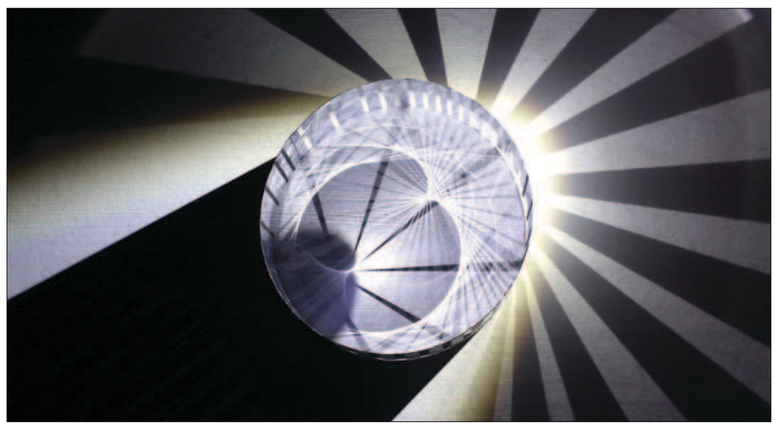
불자 작가 서현 전시…
14일~31일 파주 헤이리서

"마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선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수행을 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불화를 배우며 마음의 위안도 얻었죠. 그래서 제 작품을 통해 자성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불자 작가 서현이 8월 14일~31일 경기도 파주 헤이리 갤러리 카페 더 장미에서 전시를 갖는다. 서 작가는 거울 같이 빛이 자연스럽게 반사 되는 설치물로 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빛으로 보여준다.

"불교에서 빛은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불화를 공부하면서 자성을 빛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불교적 세계관은 설치물 작업을 하며 실제적인 빛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번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비어있음의 힘'이다. 반복되는 상실은 당연하게도 마음에 구멍을 남긴다. 또한 그것을 얼마나 여러 번 겪는가와 상관없이 어떤 상실도 고요하지 않다. 상실의 경험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을 더 선명하고 담담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숨구멍이 된다. 비어있지만 그것으로 훌륭하다. 조금 비어있는 것이 가득 찬 것보다 더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그 때, 까만 구멍 같던 공백은 여전히 비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밝은 여백으로 변한다.



서현 작가의 '상실의 풍경', 빛을 이용한 설치물로 생성과 소멸의 불교적 내용을 담았다.

반사체 이용한 설치물로
구도의 과정 빛으로 표현

"비어있음의 힘을 알아채고 공백이 여백으로 변하는 상황을 빛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빛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고이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 작업들은 많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고인 빛들은 그들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아차린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그 빛이 드러나는 상황을 표현해 낸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빛을 통해 암흑과 공백 속에서도 자기 내부의 온기, 진동, 빛을 찾아가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곧 내 안의 부처를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031)945-2340 **정혜숙 기자**

백제 금동대향로 독립 전시공간 마련

국립부여박물관 8월 6일 재개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구일회)은 1993년 개관 후, 20년 만에 박물관 특성화 사업으로 전시환경을 개선 8월 6일 재개관했다.

전시품으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287호)를 비롯한 국보 3점, 보물 5점 등 총 1,50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 대표 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는 독립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백제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집중 감상할 수 있게 연출했다. 이밖에도 신설된 정보 검색실과 각 전시실에는 부여 관련 정보, 유물, 유적 검색이 가능한 최첨단 정보 검색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전시 관람 중에 생기는 호기심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전시기법과 다양한 시각매체를 활용하여 전면 개편된 상설 전시는 총 4전시실로 나뉘어 '부여의 선사와 고대문화', '사비백제와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의 불교문화', '기증으로 빛난 문화재 사랑'을 주제로 사비백제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부여의 선사시대부터 고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1전시실을 시작으로 사비시기 생활문화, 정치행정, 종교의례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2전시실, 백제인의 우수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불상'과 '사찰건축' 관련 유물이 전시된 3전시실, 박만식 교수를 비롯한 50여명의 뜻있는 기증자들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는 4전시실로 구성된다.



백제 금동대향로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명 스님 3집 '아제아제 바라아제' 발매

자명 스님이 세 번째 음성공양집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발표했다. 자명 스님의 간절한 기도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음반에는 빙하착, 어디로 가야하나, 옴마니 반메훔 등 12곡이 실렸다.

자명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꼽으라면 음악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불법의 홍포에도 음악을 비롯한 문화가 가진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일상의 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스님은 취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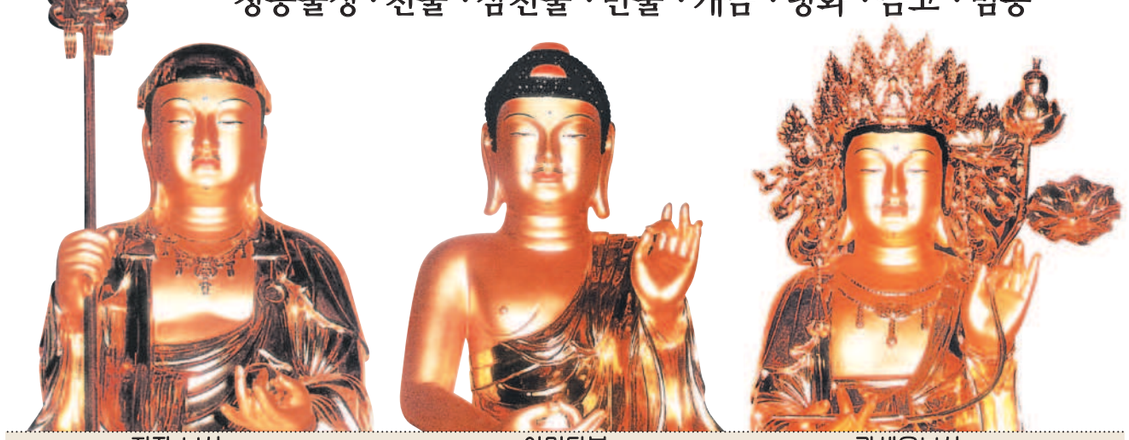
자명 스님은 그동안 스스로 문화공양주를 자임하며 땡큐붓다콘서트와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를 기획, 제작하여 서울 무대에도 올리는 등 다양한 문화불사를 행하고 있다. 9월 중 서울에서 찬불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반발매와 함께 전국 108도량을 순례하는 '찾아가는 땡큐붓다콘서트'도 연다. **정혜숙 기자**



아제아제바라아제 앨범 표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문화人

“불화와 제가 하나될때만이 성불 가까워진다는 걸 깨달았죠”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은 전시, 불화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불교미술을 알리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선아트스페이스는 이름 그대로 불교미술을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 불화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가치를 알리는 선아트스페이스 박경귀 원장(51)을 7월 6일 삼청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불화작가로 시작해, 선아트스페이스 운영, 사찰 법당 장엄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영역을 넓혀왔다.

“20여년 전 일본식 2층집을 사서 작업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했는데, 삼청동이 개발 되면서 8년전 집을 헐고 5층 건물을 짓게 되었죠. 불화 작업공간과 무료 전시공간을 두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줘 공간 운영 대안을 찾았죠.”

특히, 지하에 위치한 스페이스선+는 2009년부터 무료전시 공간을 제공,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여기서 ‘+’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진작가와 추천작가 등을 선별해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80여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죠.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이를 통해 창작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살 때부터 불화를 시작한 그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화를 그려왔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렇듯 작가로서 그의 삶도 녹록치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돈이 없어 물감은 물론 쌀을 사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울때마다 예외없이 어디선가 작업 의뢰가 들어왔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며 작업을 이어왔다.

스페이스선+ 무료 전시공간 운영
20여년간 150여 사찰에 탱화 작업
‘법당장엄’ 불교미술 영역 확장도
최근 세월호 소재 관련 작품 완성

“이상과 가치중심적인 제 성격이 종교화 즉 불화와 잘 맞아요. 청년시절에는 칼라와 선에 심취했고 불교철학을 공부하며 그 내용적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죠. 그리고 어느날은 ‘자타일시성불도’에 대한 의미가 가슴에 와 닿으며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성불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갤러리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와 내 자산에 대한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의 운영자 이전에 불화작가인 박 원장은 지금까지 성관사 아미타극락변상도, 수원사 관음도, LA태고사 석가모니후불도, 조계사 시왕도 등 사찰 150여 곳의 탱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또한 조계사, 수원사, 불광사 등 10여 사찰의 법당 장엄(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불교미술의 영역을 확장시켜왔다. 이외에도 ‘링크붓다’ ‘만월’ ‘여시아문’ 등의 선화를 통해 창작의 세계를 넓혀왔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달이다. “태양은 온전히 그 모양으로 항상 존재하지만 달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우리네 삶을 표현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달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세월호를 소재로 한 작품도 완성했다. 팽목항에 웅크리고 앉은 유가족 모습과, 달 속에 피어난 아이는 극락왕생을 기원했고 또 달 안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추모댓글을 빼곡히 담아 원을 완성했다. “이 작품을 본 제주도 우리절에서 탱화 의뢰가 들어와서 짝을 이루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절은 진도 앞바다를 향하고 있어 희생자가 환생해 제주도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어 뜻 깊은 작업이 되었죠.”

그는 그간의 작품을 모아 내년에 개인전을 여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온 사찰법당 장엄 작업의 노하우를 모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사찰은 변해가고 대중들의 요구도 달라지니 사찰 디자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다양한 분야의 후배들과 팀을 이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분야를 잘 개척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한 ‘달이 되어 비추네’



‘아미타 극락도’. 박경귀 원장은 150여 사찰 탱화 작업을 이어왔다.

갈 길이 멀어 요사에서 잠드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㉜ 화엄사 ㊦





화엄사 일주문과 단풍. 우체통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다.

산사에서 세속의 먼지 씻기

황현의 ‘약속대로 해학과 함께 화엄사에 가다[赴海鶴華寺之約]’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두 번째 수는 시각과 청각을 총동원하여 화엄사를 느끼게 한다.

봉봉류수쇄춘성(蓬蓬流水碎春星)
환패종쟁갱가청(環佩琮琤更可聽)
화하문승미빈백(花下問僧眉皤白)
산중견조우모청(山中見鳥羽毛靑)
흥란주찰빈투현(興闌酒札頻投縣)
음고혜성구재정(吟苦鞋聲久在庭)
회수오갱종락처(回首五更鐘落處)
영원도사불증경(靈源都似不曾經)

출출 흐르는 시냇물에 봄밤 별빛 부서져라
쟁글쟁글 패옥 소리를 다시 들을 만하네.
꽃 아래서 스님 만나니 눈썹 귀밑털 희고
산중에서 새를 보니 새의 깃털은 푸르구나.
흥 무르녹자 술 받으러 자주 읍내 보내고
괴로이 읊어라 뜰엔 신 끄는 소리 들리네.
새벽 종소리 울리는 곳에 머리 돌리니
별천지가 온통 일찍이 못 보던 곳 같구려.

화엄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속진을 씻어내는 일에 몰두하는 황현의 마음이 두 수의 시를 통해 가감 없이 전해진다. 앞에서는 절의 풍경을 통해 무상감을 느꼈지만 뒤의 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흥을 통해 인간세상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출출 흐르는 시냇물과 별빛, 패옥소리, 꽃, 흰 귀밑털, 새, 푸른 깃털 등의 원색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들이 최대한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흥이 무르익은 봄밤의 정취도 새벽종소리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한다. 바야흐로 새벽종소리 울리는 절집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지로 보이는 것이다.

매천이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시에 다시 화엄사가 등장한다. 중앙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구례에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던 시절이다. 〈매천집〉 제4권에 전하는 시의 제목은 ‘저녁에 화엄사에 들르다[暮投華嚴寺]’이다.

노흑난분백안천(路黑難分百眼泉)
수초요견탑등현(樹梢遙見塔燈懸)
음음류벽경비서(陰陰溜壁驚飛鼠)
알알계림기단선(閼閼溪林記斷蟬)
전의청소쌍각올(殿倚晴宵雙角兀)
산함만월반규원(山含滿月半規圓)
일정상원등라외(一程尙遠藤蘿外)
차입동료차탑면(且入東寮借榻眠)

감감한 길 백안천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나무 끝 걸린 탑등 멀리서 보이네.
축축하게 젖은 벽에선 날다람쥐에 놀라고
콸콸대는 시내 숲에선
끊어진 매미 소리 떠올리네.
전각은 갠 하늘에 솟아
지붕 양끝이 우뚝하고
산은 만월을 가려 반쯤 둥글어 보이네.
등라 저 너머로 갈 길이 아직 멀어
우선 동쪽 요사에서 침상 빌려 잠드네.

시의 말미에 ‘봉천(鳳泉)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밤이 깊어서 승당에서 머물렀다’라는 첨언이 한 줄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잘 곳을 찾아 화엄사에 들린 듯하다. 이 시는 37세 때 쓴 시와는 달리 매우 관조적인 자세가 드러난다.

수련의 ‘백안천’은 눈물이 솟구치는 샘 즉 눈을 뜻한다. 저무는 길에 사방 분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멀리 탑등이 보여 절집으로 가는 방향이 잡힌 정황이다. 그래서 절에 이르는 동안 다람쥐를 만나고 매미울음소리를 기억하는 등 자연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미 절에 당도하여 달 빛 아래 고즈넉한 산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등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 우선 화엄사에서 머무는 정황도 담담히 그려내며 시를 맺는다. 여기 등장하는 등라는 ‘산 위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등라 저 너머에 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깜깜해야 꼭대기까지 오르겠군(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추사 김정희가 본 화엄사 풍경

황현보다 앞 시대를 살았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문집에는 화엄사와 관련된 칠언절구 한 수가 보인다. 〈완당전집(阮堂全集)〉 제10권에 나오는 시의 제목은 ‘화엄사에서 돌아오는 길에[華嚴寺歸路]’이다.

불만추산영취미(佛巒秋山映翠微)
수전백첩학승의(水田百疊學僧衣)
종성욕단사양원(鐘聲欲斷斜陽遠)
천점한아일객귀(千點寒鴉一客歸)

부처 머리 가을 산에 푸른 안개 비치는데
백첩이라 수전은 스님들의 옷을 배웠구려.
종소리 끊기는데 석양은 아슬하고
천 점의 갈가마귀 외론 길손 돌아가네.

전반부에 시인의 눈에 비친 화엄사는 매우 찬란하게 묘사되고 있다. 가을 산의 울긋불긋한 모습이 부처님의 머리 즉 화려한 장식으로 장엄된 화관에 비유되고 있다. 그렇게 화려한 산에 안개가 비치어 더욱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것인데, 곡식이 익은 논은 스님들의 옷자락처럼 백 겹으로 펼쳐져 일렁이고 있다고 그려내고 있다. 절창이다.

종소리 끊어지는 석양 무렵, 시간은 아득하게 느껴지고 하늘 가득 나는 갈가마귀는 돌아가는 외로운 길손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 물경(物景)에 빗대어진 사람의 심사가 매우 서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중생의 근원적인 고독이 묻어 있다.

모름지기 시란, 사물에 빗대어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러는 풍경 속에서 더러는 이치 속에서 무상한 인간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시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의 시로 화엄세상을 드러내려는 시인의 마음도 화엄세상의 한조각 구름 일 뿐이겠지만.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0 ~ 8/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3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4	수트라 (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한글 아함경 (재개정판)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7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선화상인 염불법문)	정원규	민족사
8	현판기행	김봉규	담앤북스
9	계 정 혜 인간불교의 근본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10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모든 '궁극' 설명하는 '영원의 철학'

영원의 철학

올더스 헉슬리지음 | 조옥경 옮김 | 오강남 해제
김영사 펴냄 | 1만9천8백원

여러 문학의 장르를 섭렵했을 뿐 아니라 철학자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예언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인생 후반기에 인간의식의 궁극을 탐구했다. 그 궁극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헉슬리는 그것을 '신성한 실재'로 설명했다. 책은 그 신성한 실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개념인 '영원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신성한 실재를 이해하고 거기에 접촉하고자 한 동서양의 철학자, 사상가, 성자, 현자들이 남긴 글과 체험을 망라한 선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원의 철학'이란 무엇일까? '영원의 철학'은 세계의 본질인 '신성한 실재'를 인정하는 형이상학이자, 인간의 영혼에서 '신성한 실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심리학이며, '모든 존재의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바탕에 대한 앎'을 인간의 최종 목표로 두는 윤리학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져온 보편적인 개념이다. 모든 원시민족의 전통 구전설화에서 '영원의 철학'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고등종교에서 완전하게 발달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즉 '영원의 철학'이란 '세계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으로서, 이들 모든 종교적 지식이나 원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를 말한다. 고도로 발달된 종교 및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원의 철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16세기 이탈리아 구약성경학자 아고스티노 스테우코가 자신의 저서 〈Deperenni philosophia〉(1540)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후 라이프니츠가 '역사를 초월해서 전승되는 형이상학적 근본진리'라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사용했으며, 19세기 초월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와서는 헉슬리에 의해 영어권 대중들에게 알려져 뉴에이지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에 와서는 켄 윌버가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철학자, 사색가들이 채택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언급했고, 영원의 철학을 자신의 통합사상의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또 다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헉슬리는 모든 존재의 '근본', '궁극'인 '신성한 실재'를 사고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영적 앎'의 영역이라며, 여러 종교들의 전통은 개인들이 경험한 '신성한 실재'를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헉슬리는 종교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나 신비적 합일, 해탈 같은 개념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의식의 심연에서 '신성한 실재'를 만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종교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 뿐, 모두 '신성한 실재'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책의 핵심으로, '영원의 철학'이란 '존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다. 헉슬리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불교, 힌두교, 도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신비주의 등의 여러 경전을 면밀하게 탐구한 후,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찾아 종합했다. 책은 스스로 거듭나고 깨달음으로써 '신성한 실재'를 직접 통찰한 이들이 여러 시대와 장소에 걸쳐 토로한 420여 개 구절들을 소개하고 헉슬리가 해설을 붙인 지혜의 모음집이다.

진정한 깨달음 위한 420개 나침반
존재의 본질인 '신성한 실재' 인정한
형이상학 · 심리학 · 윤리학의 철학적 개념
'신성한 실재'는 '직접적 영적 앎'의 영역
'깨달음' 등은 '신성한 실재' 체험하는 것
현자들 가르침 정수 한데 모아
〈능가경〉 등 다양한 불교 경전 인용

가톨릭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윌리엄 로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했으며, 다양한 불교 경전도 인용하고 있는데, 〈능가경〉이 가장 많고, 그밖에 〈육조단경〉 등 선(禪)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들과 함께 대승과 소승, 교종과 선종의 핵심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 영적 천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총결집시킨 헉슬리의 방대한 독서량과 사유의 지평, 그리고 해설에서 묻어나오는 체험의 깊이는 그의 천재성이 주는 경이감과 함께 의식이 고양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박재완 기자

한국 불교 근현대사서 읽어야 할 것들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김광식 지음 | 선인 펴냄 | 4만7천원

"한국 근현대 불교는 지난 130여 년간(1876~)격동의 세월을 거쳤다. 격동의 세월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불교는 생존, 발전 도전과 응전, 변화 등 다양한 행적을 노정하였던 것이다."

책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불교 근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한 성과물이다. 불교 근대화는 근대기의 시공간에서 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식 및 행보였다. 즉 변화된 세상인 근대 공간에서 불교를 존립,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흐름을 말한다.

한국의 근대불교는 한국 불교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대불교는 근대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불교와 현대불교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한국 현대불교의 본질,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심화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도 근대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상, 소재, 성격, 이념 등등에 대한 문제가 연구의 주제로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교 근대화를 추진한 불교 인물들의 고뇌, 지향, 구상 등을 전해주는 자료, 문헌 등이 빈약한 실정이다.



1955년 8월 3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니대회.

불교 근대화에 대한 내용은 그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해 개괄적 이해는 도출되었지만, 그에 걸 맞는 개념화 작업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불교 근대화의 개념화와 유관한 '불교의 근대성'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했다.

필자는 (불교의)근대성 검토의 우선점이 불교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인식'에서 나온 역사의식이 아닌가 하는 단상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주체의식, 자율은 기본적으로 수반된다. 이 전제에서 불교의 근대성을 검토하면, 조선시대의 불교와는 전연 다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불교인들의 각성, 주체의식이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강한 주체의식 하에 불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고민, 활동, 대안, 불교 개혁론, 신식학교 설립, 도회지에 포교당 개설, 외국 유학, 교단 재건 등이 뒤따르는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에 불교가 처하였다는 불교계의 역사의식을 점검하는 것이 불교 근대성 연구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본다. 그 연후에는 근대시기(개항~8.15 해방) 불교계의 총체적인 움직임(의식, 흐름, 운동 등)의 본질(성격, 특성 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근현대'는 조선후기 · 현대 가교
근현대불교사 개념화 작업 미진
'새로운 시대에 처해진 불교' 인식이
불교 근대성 연구의 첫 걸음
이상과 현실의 간극 연구 정리
진보 관점 '근대화 연구'와 차별

이번 책에 수록된 연구 성과는 위에서 제시한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불교계 내부 구성원의 자각을 거쳐 다양한 대안과 방향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가 나아갈 노선에 대한 단일적인 흐름(시대정신)이 형성된 것과 그 구도에서 나온 다양한 변화상, 역사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 당시 불교인들은 불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고뇌를 하고, 그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불교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은 간단치 않았다. 즉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간극에는 대립, 저항, 열정, 비판 등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책은 그 간극에 있었던 제반 역사상을 정리한 연구이다. 한편, 불교 근대화의 범주를 기존 연구 경향에서는 진보, 혁신, 개혁의 관점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 근대화는 보수, 중도, 개량, 진보 등 모든 노선에서 자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책은 다양했던 근대화 노선의 실상, 사례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라 하겠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불교 근대화의 현실인식'에서는 근대기 최초의 포교당인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일제하의 역경, 일제하의 불교출판,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의 포교 등을 다뤘다.

제2장 '불교 근대화의 다면성'에서는 건봉사 재일 불교유학생과 봉명학교,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경봉의 자생적인 불교 근대화의 전범, 만암의 사상, 청담의 불교 근대화와 교육문제, 화엄사 승가대학의 어제와 오늘 등을 다뤘다.

제3장 '불교 근대화와 불교 개혁론'에서는 근현대 불교 개혁론, 일본불교에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한용운의 불교개혁사상과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용성의 대각교, 해방공간의 불교, 태허의 불교혁신론, 광덕사상,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련원, 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 신도회 역사에 비추어 본 신도회의 지향 등을 다뤘다. 이와 같이 책은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에서 읽어야 할 것들을 읽어주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6권의 저서 출간!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 죽고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한 글자에도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다

현판기행

글·사진 김봉규 | 담앤북스 펴냄 | 1만6천원



장면 하나

사찰의 전각이나 일주문에는 유독 조선의 왕이 쓴 글씨(御筆)가 눈에 띈다.(불국사 대웅전, 마곡사 영산전, 선암사 대복전 등) 유교를 숭상하던 서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풍경이다. 왕이나 왕의 친척의 명복을 빌던 원당이 사찰 안에 세워졌던 경우 외에도 이런 일은 흔했다. 숭유억불 시대 사찰은 심심하면 유생들이 가서 행패를 부리던 곳이다. 이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사찰은 앞다투어 왕이나 왕의 친척(대원군 등)이 쓴 글씨를 내걸었다.

장면 둘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한다. 불은 거침이 없었고 금세 모든 걸 삼켜버릴 기세였다.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즈음 다급한 명령이 떨어진다. "현판을 사수하라!" 추사 김정희도 서울에 들르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다는 숭례문 현판은 누가 보아도 명필이었다. 소방대원 두 명이 다급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10여 분의 톱질 끝에 현판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현판이 떨어지고 10분쯤 지나 숭례문은 완전 전소되었다. 현판도 사람의 목숨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여하튼 그 덕분에 숭례문의 옛 현판만은 지금도 복원된 숭례문 위에 걸려 있다.

이렇듯 이 땅에 남아 있는 '현판'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고, 남아 있다. 혹자는 이를 '역사'라 하고 어떤 이는 '문화'라 부른다. 저자는 이런 역사의 현장, 문화의 현장을 하나하나 발로 답사하고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남겼다. 현판 글씨는 다른 글씨와 다르게 대단한 공력과 실력이 요구된다. 그런 만큼 아무나 쓸 수 없었다.

중국 삼국 시대의 대표적 서예가로 위탄(179~253)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현판 글씨가 백미였다고 한다. 위탄이 제서를 쓴 일과 관련해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위나라 명제가 높은 누각을 짓고 이름은 '능운대(凌雲臺)'라고 정한 뒤, 글씨를 쓰지 않은 현판을 걸어 놓았다. 그러고는 위탄에게 커다란 바구니에 들어가게 한 뒤 도르래를 이용해 지상에서 25자(약 7.5미터)나 되는 허공에 매달아 놓고 거기서 글씨를 쓰게 했다.

위탄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큰 공포를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글씨를 써야 했다. 그런데 위탄이 글씨를 쓰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그의 머리카락이 삽시간에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위탄이 얼마나 엄청난 기력을 쏟았는지를 말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위탄은 이 일이 있은 후 다시는 현판 글씨를 쓰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후에 후손이 지켜야 할 가문의 법도를 적은 항목을 남기면서, 자손들은 절대 현판 글씨를 배우지 못하도록 한 항목을 넣었다 한다.

물론 일부는 후대 사람들이 가감했겠으나 현판 글씨를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력과 실력을 요구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비해 현판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글편액과 주련이 걸린 봉선사 큰법당. 최초의 대웅전 한글편액이다.

현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적 없어
현판글씨 선택받은 이만 가능
사원, 사찰 등 35곳 현판 역사 수록

현판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추사 글씨인 봉은사 '판전(서울시유형문화재 제84호)' 현판과 명종 글씨인 영주 '소수서원(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 현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판 글씨는 특히 금석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大)자 글씨의 특별한 서체와 서풍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다. 그런데도 그 가치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선조들은 건물이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소실되거나 파괴될 때도 현판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다. 밀양에 영호루 현판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호루는 건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현판 하나가 있었기에 다시 복원되는 역사를 갖고 있기도 했다.

그동안 궁궐의 현판이나 사찰의 주련 등에 대해 다룬 책은 있었지만 궁궐, 고택, 사원, 사찰, 정자, 누각 등 우리의 옛 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교양서로는 이 책이 처음이지 싶다. 비록 '기행'이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정설과 야사를 포함한 '역사' 그리고 당대 학문의 흐름과 서체의 발달 등 '문화'에 대해 풍부하게 다룬다.

저자는 이렇게 옛 현판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한다. 글씨 자체가 가진 가치뿐 아니라 그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주는 가르침, 그 현판에 담긴 일화, 글씨를 쓴 서예가의 예술혼 등 유무형의 값진 유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부록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서, 예서, 행서 등 서체 종류와 변천사도 소개했다. 모두 35곳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사선과 간화선의 요지 밝힌 최초 강설서

선요, 선사의 체험으로 풀어내다 상·하

설우 스님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선방에서만 선이 살아 있고, 일상 가정서 밥 해 먹고 청소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선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이고, 거기서 살아 있는 선을 해야 하는데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게 심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 공부는 내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기 위해서지, 선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이 희생돼야 한다는 것은 전도된 것입니다."

〈선요〉는 참선수행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실참실오(實參實悟)' 하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요체를 설해 놓은 것으로, 과거 전통강원의 이력과목 중 사집의 한 과목이기도 하다.

이 책 〈선요, 선사의 체험으로 풀어내다〉에는 개당보설(開堂普說)을 시작으로 양산화상에게 답한 편지 등 모두 29편의 법문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고봉어록 상권의 내용 72편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로부터 〈선요〉의 대지(大旨)를 분대지투현관(奮大志 透玄關)이라 말해 왔다. 이는 큰 뜻을 세워 분발해 조사현관 곧 화두를 타파하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선요〉서문의 첫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參禪은 雖以不立文字하며 不假修證으로 爲宗이나 然이나 旣可參則必有要라' 즉 '참선(參禪)은 문자를 세우지 않으며 닦아 증득함을 빌리지 않음을 종지로 삼는다. 그러나 이미 참구한다면 반드시 요점이 있다.'라는 의미다.

조계종 출판사의 이번 책은 지난 6월에 발간한 도서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의〉에 이은 조사어록의 발간이다. 조사어록은 수행가풍을 중시하는 조계종 종지에 부합하는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발간의미가 크다.

저자인 설우 스님은 이 책에서 '무심과 평상심, 깨달음과 보살만행, 정과 혜, 지혜와 자비'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편견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수행 문제를 균형과 조화로 승화시킨다. 특히, 설우 스님은 선원장급으로서 지난 40여 년의 수행과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선요〉를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선요〉에 대한 역해서는 더러 발간됐으며, 몇몇 스님에 의해 강의가 펼쳐진 적이 있었지만 주요 본문 내용에 대해 그 전거를 밝히고 수많은 예화와 비유를 통한 강설서의 발간은 드문일이다.

〈선요〉는 고봉 스님이 간화선 화두 수행을 실참하고 깨달은 체험을 바탕으로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는 어떻게 탄생됐으며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을까?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1만4천원



지난 2004년 출간돼 불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입문서로 꾸준한 호응을 얻은 〈하룻밤에 읽는 불교〉가 개정판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책에서는 기존의 흑백 지면을 듀오톤 컬러로 바꾸어 세련미를 더했고, 복잡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지식을 한눈에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00여 컷의 지도와 도표, 사진의 정보 디자인을 보강했다. 내용 면에서 꼼꼼한 보완을 거쳤고 한글세대에 부담을 안긴 한자어를 많이 덜어내는 등 읽는이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명상, 참선, 힐링 등으로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본래 우리 문화 면면에 녹아있는, 한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종교이다. 우리나라 유적의 약 60~70퍼센트가 불교와 관련될 정도로 우리 문화 곳곳에는 불교의 자취가 스며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는 대다수 아시아 나라가 받아들여 각자 나름대로 발전시켰을 만큼 동양 정신문명의 기둥이 되는 사상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 동양문명의 원류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불교를 이해하기란 녹록지 않다. 낯선 범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불교용어를 비롯해 형이상학적이거나 모호한 개념, 오랜 세월 동안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변화해온 모습 등은 불교를 난해하고 복잡한 종교로 보이게 한다.

이 책은 현대인과 불교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가급적 평이한 우리말 표현으로 불교의 역사 및 사상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정리하기 어렵거나 헷갈릴 소지가 있는 불교 지식은 지도와 도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핵심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불교 역사부터 시작해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의 불교 역사를 짚어보고, 초기불교사상부터 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정토사상을 차례로 살핀다. 제 1장에서는 불교의 탄생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본다.

제 2장에서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경로를 들여다보고 중국의 토착 종교인 도교, 유교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는지를 돌아본다. 또한 제 6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 초기불교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룬다. 제 9장과 제10장에서는 화엄사상과 천태사상을 조명하며, 마지막 제 12장에서는 극락정토에의 왕생을 요체로 하는 정토사상을 살핀다.

또한 각 꼭지의 말미에는 불교사 속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담은 '역사 메모'를 삽입해 풍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도 이 책이 지닌 장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소운 스님은 한국 스님 중 처음으로 미국 내 불교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대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비구니 학승이다. 그는 처음 불교에 귀의했을 때 불교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당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교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을 대중에게 한눈에 보여주고자 자신이 공부했던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저자는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나 흥미로운 부분부터 읽을 것을 권한다. 처음 산에 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면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어느 정도 불교를 공부한 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책을 통독해보라고 권한다. 불교라는 숲의 생김생김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출신 소운 스님 쓴 불교역사
100여컷 지도와 도표, 사진 보강
불교속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삽입

김주일 기자

▲저자 소운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곧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동경대서 중국불교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동대학원서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 인도·티베트불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하버드대는 오래전부터 티베트, 일본, 중국 등의 불교를 활발히 연구해 온 미국 내 불교학의 본산이었다. 8년간의 하버드 생활 끝에 우리나라 승려 중 최초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13년에 걸친 유학생활을 마치고 2002년 귀국했다. 그리고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당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대중들에게 불교의 세계를 차근차근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 동명대 교수로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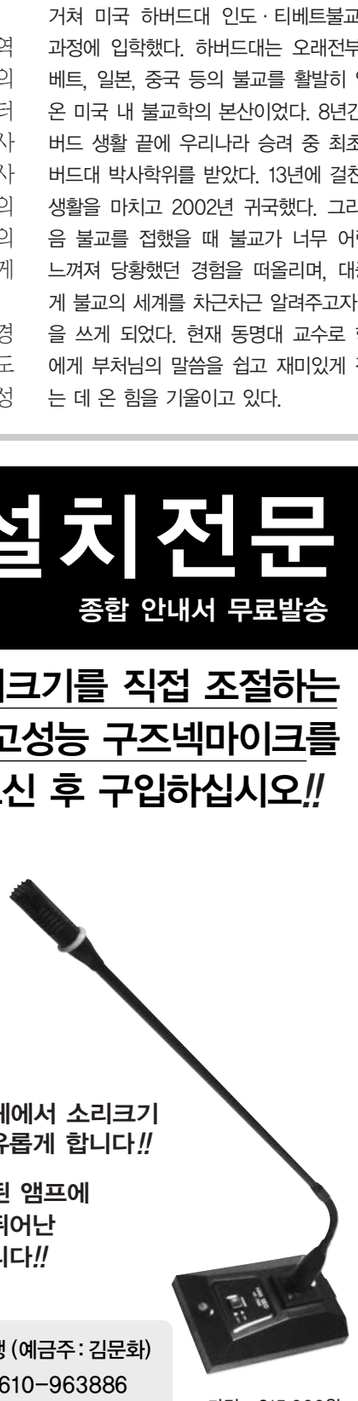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불교적 구원, 개인에 국한”… 삐뚤어진 편견 시작

불교로 읽는 古典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현대 사회과학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적 거대 산맥’이다. 그는 근대사회론, 사회과학방법론, 법사회학, 지배사회학, 경제사회학, 종교사회학, 심지어 음악사회학 등 인간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저술을 남겼고 그 모든 것이 이른바 그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서 베버의 고전을 모두 소개하고 해석을 가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해서, 여기에서는 베버의 종교사회학의 업적들 중에서도 특히 베버의 불교연구에 해당하는 〈힌두교와 불교〉의 불교 부분을 소개하고 약간의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의의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베버의 동양사회론, 나아가 베버의 종교사회학 일반 및 문명사에 대한 맛보기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베버가 왜 그리고 어떤 방법론에 의해 〈힌두교와 불교〉란 저술을 썼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베버 사회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은 근대 서구의 합리화 과정의 산물인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베버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단지 근대사회만을 고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고대사회와 중세 사회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가졌으며, 지리적으로는 전세계의 모든 문명권에로 관심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철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힌두교와 불교〉는 그 보편사적 기획의 일부이며, 그리한 점에서 일종의 ‘허수아비’다.

베버는 〈힌두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서, ‘왜 동양사회는 서구사회가 보여준 그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생활양식의 창출의 발전 방향을 취하지 못했는가?’라고 묻고, 마르크스와 달리 그 해답을 동양의 종교와 연관시켜면서 풀어나갔다. 그 불교부분의 핵심 내용을 그 저작의 내재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베버는 약 1/3의 분량을 할애하여 불교 전반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베버는 고대불교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는 고대불교를 두 가지 차별성, 즉 정통파인 힌두교와의 차별성과 대승불교와의 차별성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대불교란 표현이 대승불교와의 차별성을 전제한 표현이며, “고대 불교는 아트만이나 ‘개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진술은 정통파인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전제한 표현이다. 그러나 베버는 구원론의 차원에서 보면 고대불교의 구원론은 대승불교의 구원론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그것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의 상태(certitudo salutis) 즉, 구원받은 자가 현세에서 누려야할 평안의 향유야말로 인도의 종교가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마치 지반무크티(jivanmukti-현세해탈)처럼, 인도의 성자들은 지금 여기에서조차(even here and now) ‘세상을 초탈한 삶의 축복’(the bliss of the world-detached life)을 향유하고자 할 것이다. 고대불교 특유의 최후의 목표달성도 바로 이것 그리고 바로 이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야말로 고대불교를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행복의 신정론’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원론이 절대신에 의한 구원 추구(현세거부)와는 달리 불교 특유의 ‘현세거부의 윤리’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환상의 근본원인은 소멸되지 않은 불멸의 단위로서의 영혼에 대한 믿음이다. 바로 이러한 불교적 입장 때문에, 이승뿐만 아니라 저승의 삶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바램, 희망 그리고 모든 혹은 그 어떤 좋아하는 것 등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무에 집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추구된 것은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죽음의 평안함을 지향하는 구원이었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불교의 구원론은 개신교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는 통상적인 구원 개념을 부정하였다. 의도성의 윤리에 기초한 죄의 개념은 그것이 힌두교에 부적절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도 적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죄가 구원을 가로막는 전부는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방해하는 힘은 죄에 있지 않았다. ‘악’이 아니라 무상한 삶 그 자체가 구원의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불교에서 구원의 수단은 지혜일 수밖에 없다고 베버는 지적한다. “불교에서도 구원은 지혜를 통해서 확보된다. 이것이 세속이나 천국의 일 혹은 사물(things)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란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초기 불교는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지식욕에 대한 극도의 억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오히려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혜’는 고(苦)의 본질(nature), 기원(origin), 조건들(conditions), 그리고 그 파괴의 수단들(means of destroying suffering)이란 네 가지 위대한 진리(四聖諦)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이다.(Max Weber, 1958:209)”



독일 근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모습. 그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사회학으로 연결한 지성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서구의 근대적 합리성을 창출하지 못한 이유를 동양의 종교성에서 찾았고, 이는 뿌리 깊은 오리엔탈리즘으로 이어졌다.

서구의 편견 ‘오리엔탈리즘’ 어떻게 시작됐나
‘근대 자본주의 기원’ 주제 동양 종교들 비교 연구
부재적 잣대의 ‘허수아비 불교론’… 부정 문화론 귀결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붓다는 아트만(atman)을 지적 구성물(intellectualistic constructions)로 보지 않고 주체의 자원론적 구성물(a voluntaristic construction)로 간주하였다. 거기에는 ‘에고(ego)’도 없고 ‘세계(world)’도 없으며, 오직 모든 종류의 감각들, 의지적 노력들, 그리고 표상들-이들이 함께 모여 '실재(reality)'를 구성한다 – 등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경험되어지는 개개의 구성요소들도 ‘하나의 통일체’ 속으로 결합되어 질뿐이다. ‘개인성(individuality)’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성을 지탱하는 의지나 욕망은 무지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신의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명상의 댓가일 뿐이다”.

베버는 이러한 불교적 구원론이야말로 ‘이웃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구원’으로 특징지워지며 그러한 점에서 거의 아무런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의 감정은 불교적 구원의 교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또한 독특한 유형의 불교적 이타주의인 자비조차도 단지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존투쟁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감성이 통과하는(스쳐지나가는) 단계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점진적인 지적 깨달음의 조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형제애(active brotherliness)의 표현은 아니다. 합리적 행위의 세계와 아라한의 이상을 연결할 다리가 없다. 또한 거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적’ 행위로 이어질 통로도 없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자력적인 개인의 개인적 수행이다. 아무도, 특히나 그 어떤 사회적 공동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 모든 신비주의의 반사회적 특성이 바로 여기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게다가 베버는 이러한 구원론조차도 계층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전망을 세속으로부터 초탈한 사람(출가자;승려)에게 국한시켰던 것은 인도의 전통과 일치한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그 이유는 불교의 구원 교리의 독특한 본질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원히 윤회하는 개인성의 끝없는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적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세계와 생존투쟁에 연결시키는 모든 ‘갈애’를 포기하는 길밖에 없었다. 따라서 매우 자연스럽게도 그러한 구원상태는 ‘머무를 곳 없는(無住)’의 신분집단, 즉 교리에 따르면 만행하는 제자들(후에 비구라 불렸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다. 교리에 따르면 재가자집단은 은총의 상태를 열망하는 불제자들에게 보시를 지속할 목적으로만 존재하였다.”

베버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계층적 한계성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고대불교가 평신도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승불교로 전형을 이룬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 증거로 베버는 ‘대승불교의 설립자’이라고 간주한 용수(Nagarjuna)와 ‘대승불교의 마지막 보살’이라고 칭한 세친(Vasubandhu)의 사례를 들고 있다. 베버는 용수가 수행과 지혜로 공(空)을 깨달은 자에게 주술적 힘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리고 그 후 400년 뒤 세친도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면 기적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승불교 조차도 주술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적 종교성이 낳은 사회적 결과다. 베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지혜가 신비적인 특성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는 낳는다. 첫째, 신비적 초영지를 갖는 능력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구원귀족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특성을 수반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렇듯 초세속화된 구원론은 세속적인 실천 활동과 분리되어 버렸고, 그 빈 공간에 들어 선 지극히 반-합리적인 보편적 마술의 세계(most highly anti-rational world of universal magic)가 일상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 세계로부터는 그 어떤 합리적인 세속내적 생활방식을 도출할 방법이 없었다. 문맹 대중들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아시아인들조차도 그러한 (마술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마술의 정원으로부터는 그 어떤 합리적인 실천윤리나 생활방법도 도출될 수 없었다.”

아직까지도 불교에 대한 사회학적 저술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는 불교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회학적 저술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명백한 점은, 베버의 비교연구의 잣대, 곧 〈힌두교와 불교〉를 비판하는 잣대가 절대신(神)에 의한 구원을 전제하는 신교윤리 특유의 종교성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동양사회의 부재적 잣대’였고, 그 잣대로 해석된 베버의 동양사회론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구적 의미의 합리화가 보편자로 설정되는 순간 동양사회가 취한 발전방향은 자동적으로 특수자로 전락하게 되고, 인간 자신의 내부에 비인격적인 초월자인 불성(佛性)이나 천성(天性)을 전제하고 그것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동양의 종교성은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베버가 서구의 근대적 합리성을 저지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한 ‘주술의 정원’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게다가 베버는 매우 특이한 조건들의 결합(highly particular historical constellations)에 의해 탄생한 서구 사회의 예외적인 발전 경로와 그 역사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그의 비서구연구는 의식적으로 서구문화와 대비되는 요소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힌두교와 불교〉야말로 부재적 잣대(신교윤리의 종교성이란 잣대)로 재구성된 ‘허수아비’ 불교론인 동시에 동양사회의 자본주의 불임(不姙)을 입증하는 동양사회론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의 동양사회론은 결여된 것을 탐색하는 부정적 문화관으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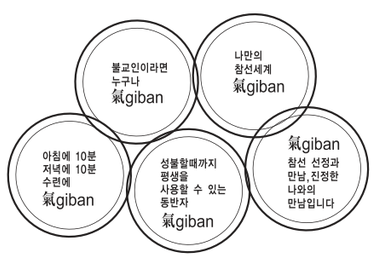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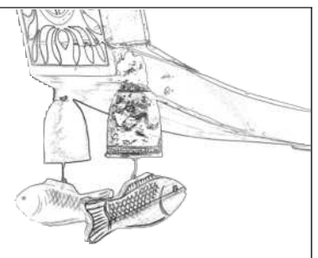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4.5×4.5) 4만원, 1Box(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재물과 법(法)으로 중생에게 보시하고 밤 낮으로 생각하여 고뇌와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다라니를 얻느니라.

- 사리불다라니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774-4099



가난한 60대 비구입니다

산속이나 시골 외딴 곳,
200-300평 땅이나
토굴, 암자 저렴하게
주시거나 임대해 주실
인연 기다립니다
010-9443-5535

울산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여법하게 불사하며
오래계실 스님을 찾습니다
약간의 보증금으로
월세 없이 계실분
법당 15평,산신각2평,용왕당,
요사채 등 일체 구비되어 있음
010-2500-1514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이 있어도 무관
* 가족처럼 계실
분만 연락바람
010-4587-1011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불국사 정인스님 직강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박사학위 (명예)

미국령
꼭 필요하신 분
055)384-2032

선묵화 및 한문 개인지도

내용 : 문학, 한학, 선묵화
수강료 15만원
주 2회강의(오후)
숙식 별도 문의
전화 010- 3749-4553
합천 보림사 금강학림

중풍예방

010-5096-9870

각종비법 지도

재택수업 가능
사암, 포교원 종도등록
창종 14년
저서 100여권. 동방진인
02)907-5858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제(49제),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겹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로 415

(절) 공양간 철거 (30평)

목재, 기와, 문짝,
기둥 돌 받침 8개
총150만원
016-545-0211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신비의 꽃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불사중인 스님,
사업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010-6707-6048
055)351-33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02)766-9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3770-5313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효사비결 2014

(효사활인천역집 제7판 육임 CD프로그램)

"뭐니 뭐니 해도 그거 하나면 끝나 데"
"자기만 아는 비밀한 사정들이 아예
다 써져 있는 거라!"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하면 딱 딱 맞는거야"
"가지가지 귀신, 부정이 다 드러나고,
'방법' 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

- 기존 것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738-8680
고복자 효사

육임도서 · 운세 컨텐츠 · 육임CD프로그램 개발 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309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경을 자세히 널리 배우고 공양을 탐하지 않으면
속히 이 경의 가르침을 얻으리라"

- 반주삼매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월내리
- 총부지 : (평지) 200평
- 건물 : 18평 4동 (법당, 산신각, 칠성각)
- 몽땅 9천 5백만원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사 찰
- 위치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50평,요사채,산신각,다실,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외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33,000평
- 법당 : 30평외 3채
- 요사 : 60평,수모장지
- 양도가 : 44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10억

※ 30년신용과,믿음으로 일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비밀보장>

*포천시 전망좋은 사찰양도
*건물 3동 340㎡ 법당, 요사, 공양간
*토지 2200㎡.산속이며 조용한 사찰
*양도금액 : 5억원(융자가능함) 실인수가 3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 관계로 10억이상 되는 실 불사금 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재개발 예정지
- 인법당 약 100㎡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탱화, 산신, 용왕전,방2칸, 공양간
- 기도하기 좋고 상담하기 좋은곳
- 재개발 예정지로 확정 발표
- 가액 : 4천 5백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중개보조원)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사정상 급양도(밀양IC근교)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010-3456-115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포교원 안내

- 위치: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A급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주불 아미, 관음, 지장, 소불, 인등
- 가액 : 전세 2천 월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비품대 및 시설비 1,700만원 약간절충

010-2553-882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소재
- 부지 : 10,000평(대지 5000평, 밭 5000평)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3동 200평(신축2동 : 현대식)
- 가액 : 17억원
- 특징 : 대구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경,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가람으로 종단의 복지관, 연수원 용도로 아주 적합한 도량입니다.
- 위치 : 포항시 북구 소재
- 부지 : 400평(종교 용지)
- 법당 : 40평(2층 단청, 청기와)
- 요사 : 40평(1층)
- 기타 : 석탑 15자(일억원 소요)
- 가액 : 6억원
- 특징: 유럽풍의 현대식건물로 불사되었으며 신도시 인근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도량으로 아주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2,000만원

010-4680-9322

수도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평수: 2층 건물의 2층 80평
- 구조: 법당.대방3.주방거실. 욕실.화장실.가스보일러
- 서울근교 도심포교적지. 아파트주변.검단산 등산로입구
- 가액: 합9천만원.월130만원

010-9669-13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산 143-30 외
- 자연녹지 13,000㎡
- 청도군청 2분거리에 있고 최고의 조망권과 주택1동, 야외 음악당시설이 있습니다
- 가액 : 6억 1천만원

010-5658-667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토굴 (터) 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청옥산 아래 조용한 터
- 대지200평 계곡 접
- 앞 트여있고 해발 600고지 상류, 주변 국유지 관심 있으시면 지번을 알려드립니다
- 가액 : 5,5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암자 부지 안내

- 위치 : 문경읍 고요리 산 123-2
- 면적: 임야 694㎡(210평) 건물 시멘트 단층 주택 52.4㎡ (16평)
- 토지이용 :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역
- 가액 : 1억

010-8555-4480

사찰 토지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765
- 지목 : 전(관리지역) 1,014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 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절충가능) (융자 : 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 허가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변산반도 뒤로는 소나무 숲이며 앞으로는 저수지도 있음
- 총평수 130평
- 요사채, 법당, 종각, 접견실, 미륵부처님, 산신당
- 가액:1억 6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큰사찰(터)찾는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철 도보 3분거리
- 125평 3층
- 가액 : 2억 5천만원 (융자 9천8백만원)
- 승계가능

010-9150-8633

사찰로 좋은곳(한옥)

- 위치 : 홍천 → 양평 서울방향 4차선 6번국도 옆
- 대지: 800평, 사유지 1,000평 사용중,
- 건평: 약 100평, 순수 고건축한옥, 큰방1, 작은방2, 대형주방과 홀
- 가액 : 상담후(절충가능)
- 카톡으로 사진 전송 가능

010-8841-338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대지60평, 건평40평(2층건물)독채 시청,남부시장 걸어서 약5분,
- 삼존불, 소불, 연꽃크리스탈인등
-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연등설치
- 에어컨, 1.2층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시설비 일체무료로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669-566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 대지 : 75평 건평10평
- 사정상 급 안내
- 몸만오십시요
- 가액 : 1,300만원

010-4113-1080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61-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방보살, 삼신당, 호신불 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66만 / 3천 월55만원 /4천 월44만원 선택
- 시설비: 700만원

010-4590-6777
010-3869-67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 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3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개인 사찰임대 및 안내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위치 : 조선대학교 인접 - 동산초등학교앞 버스길에서 약 500 야산 밑
- 토지 : 전체 700평(임야650평 대지건평 50평)
- 법당 : 약 20평 요사채 3동 수도, 전기 심야보일러 2대. 사찰 약 100년
- 임대 : 보증금 천만원 월60만원 양도는 상담
- 현지에 가보시고 뜻이 있는분 전화바랍니다

019-379-99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대로변 6층 전망 최고
- 특징 : 베란다 넓은화단, 상추밭 가능, 본존 1불 고불존상, 시원한 맞바람
- 6층 독채사용, 뒷산 배경 운치함
- 평수 : 45평(월세 저렴함)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60만원 (빌딩관리비, 부가세 포함) 시설비 저렴한 1천만원 (원 시설비 2천 5백 소요)

010-5553-38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층건물 내 2층
- 평수 : 45평
- 법당 공양간 접견실
- 시설 및 최상의 위치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010-9036-213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은행 옆
- 3층건물 3층 30평, 3존불,
- 수미단, 운각, 관음소불 108불, 16나한
- 가액 : 보증금 500 월30만원 시설비 2,700만원(시설완벽)

010-7740-600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 2층.. 공양간, 3층..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2〉 수행전 정리해야 할 것들

'얼마나 자주 대상을 놓쳤나'로 수행 점검해야

사마타 수행 전 정리해야 할 10가지

청정도론(위숫디막가)에서는 사마타 40가지 수행을 하려면 10가지를 우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즉 수행하기 전에 수행에 방해될 수 있는 10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비로소 40가지를 수행했을 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40가지 사마타 수행을 위해 우선으로 정리해야 할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머무는 거처에 대한 걱정거리를 갖지 말아야합니다. 출가자는 자신이 머무는 사원이라든지 사원 주변을, 재가자들은 사는 집이나 소유건물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 수행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수행 중에 근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에서 깊은 집중을 갖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거리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출가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수행자나 자신을 후원해주는 신도 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재가자들은 친척이나 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인간관계가 수행하는 데에 방해요인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이것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희 · 노 · 애 · 락이 생기고 또한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를 보면 이로운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번잡한 만남, 쓸데없는 만남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만남도 수행을 하기 전에 정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출가자는 의 · 식 · 주 · 약 4의법 즉 '입는 것, 먹는 것, 거처하는 것, 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소속된 단체나 무리에 대해서 홀가분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단체나 무리에 소속되어 있으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내더라도 마음뿐이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젖소에서 젖을 짜기만 했지 그 젖을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야만 합니다. 내가 절에서 어떠한 책임을 졌을 때 이 책임을 제대로 완수했는지, 그 책임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등의 생각이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또한, 생각뿐이지 실제로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떠남에 대한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홀가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친척이나 가까운 도반과 같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놓여나야만 합니다. 절에서 같이 지내는 스님들, 제자들, 가르침을 주시는 스님, 사부대중 그리고 집안의 형제, 자매, 부모님, 친척들을 우선 편안하게 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아무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불교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부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지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가정의 평온과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물론 불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이가 부처님께서는 처자식을 버렸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출가를 잘못 이해한 견해입니다. 어떤 이가 출가를 원하여 권속, 친척을 떠났더라도 이러한 일로써 손실이나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을 때는 불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의 출가로 집안의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든지 생계가 어려울 상황이라면 그는 출가해선 안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의 출가는 불선업이 됩니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가정에 경제적으로 걱정이 생기지 않을 때 출가해야 합니다.

단지 가족 간의 집착으로 출가하려는 이를 묶어두려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출가해도 전혀 불선업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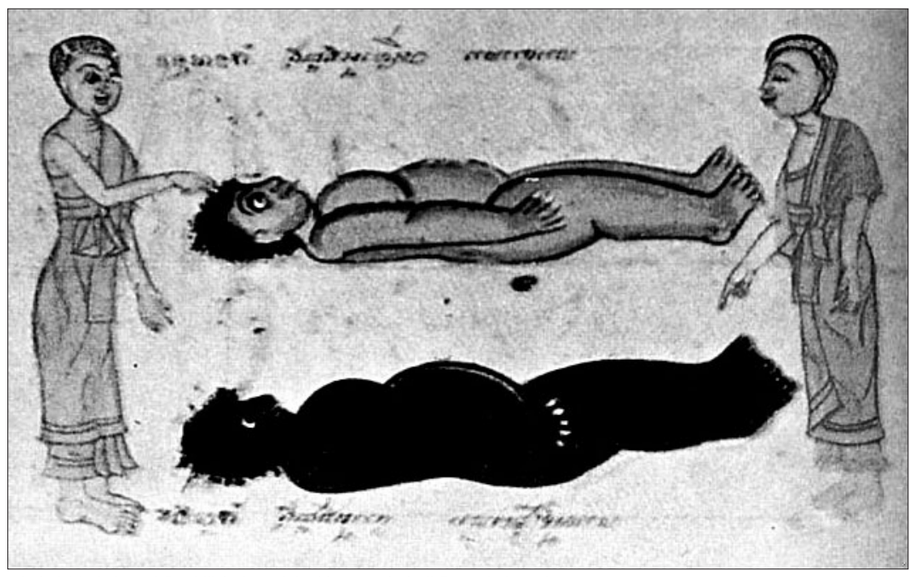
여덟째, 여러분은 질병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의욕이 있어도 몸이 아프다면 먼저 아픈 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 아픈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할까요?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경행을 하고 좌선을 할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앉고, 걸을 수 있는 만큼 걷고, 음식 먹은 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다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몸의 병이 전혀 없기를 바라진 마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이란 '음식 · 열 · 업 · 마음'으로 생기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역시 정각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병들었으며 완전한 열반(빠리닙바나)에 드시기 삼 개월 전까지도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므로 '몸 건강할 때 수행하겠다' 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이므로 수행에 방해받는 장애 요인이 아니라면 현재 그대로의 몸 상태로 수행하십시오. 오히려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 또한 더 평온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아홉째,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경전에 대한 근심, 집착 등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는 단계로써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들어서 알고, 다음에는 사유해서 알고, 그 다음에는 실천인 행위를 해서 알고, 결과로 체험하거나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보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써 우리는 앎의 첫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과 사유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여러분이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사유 단계부터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거나 사유하는 것 모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듦, 곤경, 장애 요인, 난관들은 보거나 듣고, 사유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실천했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좀 더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실천은 과정을 말하는 데,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모르던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몸과 마음으로써 앎을 체득(體得)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뇌하거나 경전을 배우고 외우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관(觀)하는 아수바(Asubha) 수행을 표현한 그림.

수행에 방해될 수 있는 10가지
정리해야 40가지 수행할 수 있어

'건강할 때 수행하겠다' 는 생각 금물
수행으로 몸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

보고 듣고 사유하는 것은
곤경 · 장애 해결해주지 못해
수행 실천할 때 비로소 문제해결

마지막 열 번째, 수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통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력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떠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얻은 수행자는 상당히 삶이 성숙하고 진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수행자가 위빠사나 수행으로 두 번째 지혜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일에 대한 예지력이 생깁니다. 그 예지력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그 단계에서 머물면 당연히 더는 발전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힘이 생긴 것으로써 수행의 진보를 판단하지 말고, '얼마만큼 번뇌가 소멸 되었나' 로 수행의 진보를 가늠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자주 대상을 놓쳤는가?' 하는 사실로만 수행의 진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거나, 어떠한 신통력이 생겼다거나, 어떠한 빛이 보였다는 것들로 수행의 진보를 억측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의 10가지를 충분히 소화하였다면 이제 여러분은 청정도론의 40가지 수행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40가지 수행방법

40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 수행 방법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성향은 자신의 습성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많이 내는지, 탐욕이 많은지, 지적인지, 게으름이 많은지, 부지런한지 등의 자기 성향을 스스로 파악하여 40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자신의 성향은 계속 반복되는 생각들이나 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가까이 있는 스승에게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정신적 수행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스승한테 의지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까시나 10가지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수행방법에서 우선 까시나 10가지 집중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까시나는 개념적으로 땅의 요소[地], 물의요소[水], 열의 요소[火], 바람의 요소[風]이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는 색깔로써 '감청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밝은 빛' 과 '아무것도 없는 허공' 으로 모두 10가지가 까시나의 수행 대상입니다. 그러면 10가지 까시나를 어떻게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지 살펴볼까요?

'까시나' 라는 둥그런 접시 모양에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여 자기 앞에서 약 60cm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앞에 놓인 까시나 원판을 계속 집중하여 응시합니다. 까시나를 응시하면 처음에는 원의 모양이나 색깔이 거칠게 보입니다. 그러나 집중력에 따라서 색깔들이 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투명해지고 원 모양이 완전한 동그라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행자가 눈을 감았을 때에도 원판의 모양과 색깔이 나타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때 그대로 나타나면 선정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 평온함, 고요함에 있게 되기에 성냄, 아만, 감각적 욕망, 후회, 게으름 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자연적 성품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수바 10가지

그 다음 40가지 수행방법 중 10가지는 '아수바 Asubha' 입니다. 이 아수바는 오늘날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시체를 관(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몸의 색깔이 변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시체가 부풀고, 조금 더 지나면 붉은 점, 흰 점, 검은점이 나타나면서 시체가 차츰 썩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썩는 것이 하나씩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시체가 분리됩니다. 관절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지요.

내가 출가한 뒤 두 번째 해에 미얀마의 한 수행처에서 안거를 보냈는데, 공동묘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즉 두타수행인데, 열세 가지 두타행 중 열한 가지를 했었습니다. 미얀마에 서도 현재는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책에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아주 드물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은 벽돌을 쌓아서 시신을 그 안에 넣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벽돌로 외관을 만들지 못하고, 우리처럼 봉분을 만들지도 못하고 땅에다 그냥 묻고 시체가 안 보일 정도로만 흙을 덮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시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게 드러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와 파리들입니다. 또한 들판의 짐승들이나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아수바는 시체가 부패해가는 것, 새와 짐승과 곤충들에게 뜯어 먹히는 것, 사지가 토막토막 잘린 것, 피로 범벅이 된것, 온몸에 구더기가 있는 것, 나중에는 뼈만 남는 것 등의 열 가지를 그대로 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몸도 저것 과 다를 바 없고, 지금은 살아 있지만 죽으면 나도 저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임을 알게 되는 수행입니다. 이 아수바 수행은 탐욕이 많은 사람, 감각적 욕망이 강한 사람이 하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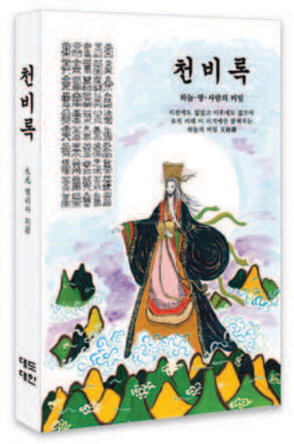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갤러리 색즉시공



다를 수 없는 것들

구름의 크기와 내리는 빗소리가 다를 수 없듯이
바람의 시선과 나무의 시선이 다를 수 없듯이
새벽의 길이와 눈물의 무게가 다를 수 없듯이

나와 나의 그림자가 다를 수 없듯이
나의 가슴과 나의 언어가 다를 수 없듯이
나의 어제와 나의 발자국이 다를 수 없듯이

아득한 시절의 설법과 이 자리의 설법이 다를 수 없듯이
내가 아는 글자와 네가 아는 글자가 다를 수 없듯이
연잎이 디딘 물살과 물새가 디딘 햇살이 다를 수 없듯이

사진 · 글=박재완 기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은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세상 바르게 사는 씨앗 돼

여성성을 일깨워준 은사님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당신은 신사임당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로, 아내로 몸과 마음가짐을 현숙하게 가지도록 해주신 분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권오희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내 마음 속에 진정한 도인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사랑이 그대로 가슴 속에 남아있을 만큼 선생님은 내 인생에 깊게 새겨져있다. 〈도덕경〉의 한 구절을 보면,

"내 마음 속에 귀히 여겨 간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애요(慈) / 둘째는 검약(儉) / 셋째는 남을 앞서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不敢爲天下先) / 자애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고, 검약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으며, 남을 앞서려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또래들과 다르게 성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상담 교사인 은사님 곁에서 조교처럼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상담해주던 것을 귀동냥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몸짓을 해야 상대방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으며,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이라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다.

무용과목을 가르치셨던 은사님은 공부시간에 나에게 칠판에 대필을 시키셨고, 시험지를 채점하게 해서 성적표를 내게 하셨다. 그런 선생님을 나는 무작정 좋아했다. 이국적 용모에 인품이 좋으셨던 선생님은 공부시간에 곧잘 노래도 불러주실 만큼 열린 분이었다.

무용을 전공하신 선생님은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을 지내실 만큼 미적 감각이 뛰어나셨고, 지방 학교에 근무하시면서도 자주 서울에 올라오셔서 무용, 음악회 등의 공연 보기를 즐기셨는데, 간혹 제자인 나를 데리고 가주실 때도 있었다. 때로는 티켓도 없이 서울로 무작정 오셔서는 공연 창구 앞에 가서 "제자에게도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데 남은 표가 없을까요?" 하고 물으시기도 하셨다. 로열발레단이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도 창구에서 표를 사려고 했는데, 로열석은 너무 비싸고 값싼 좌석은 매진되어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서울에 올라오셔서 나를 무작정 데리고 "남은 표 없나요?" 하고 물으시고는 끝내 표를 구하셔서 내 손을 잡고 공연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던 분이었다.

교실 창가에서 손짓을 하면 상담실로 오라는 신호였다. 은사님이 수업시간에도 불러내는 바람에 담임선생님이 통신표 행동발달사항에 "다"를 준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선생님께서는 "란아! 만약 이것 때문에 네가 시집을 못가면 내가 책임질게. 이것은 내 책임이다." 하셨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 선생님은 정말로 중매를 섰다.

"좋은 집안의 아드님이야. 직장도 튼튼하고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신데 한번 보지 않을래?"

"아니요."

"왜?"

"편한 사람한테 갈래요."

나는 그즈음 지금 남편과 교제 중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선생님께서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정작 기억이 없는데 그때 내가 "있는 집에 가서 마음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없는 집으로 시집가서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했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선생님께선 전화를 끊고 많이 우셨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남편을 보시더니, "남편이 귀티가 나네." 하셨다.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다.

"남편이 젊어 보이네. 너도 잘 가꿔라."

딱 한 번,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했더니 손을 잡으시고는, "신사임당의 남편도 늘 현명하지는 않았어." 하고 위로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집에 가끔 오시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기품과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 춤 좀 추세요." 하고 권하면 "해야 돼?" 하고 한 번 물으시곤 바로 일어나셔서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춰 보이셨다. 선생님은 발레를 전공하셨는데, 백조의 호수를 자주 보여 주셨다. 나는 그 어떤 '백조의 호수' 보다도 선생님의 '백조의 호수' 를 좋아한다.

결혼 후 선생님은 나에게 이름을 부르는 대신 "이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셨다.

"이봐요. 이 여사. 스타킹은 말이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준비해놓고 신어. 그리고 남편이 어디에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나서요. 그래야 어디든 데리고 다니지."

남편이 어디를 가자고 하면 바로 갈 수 있게 사계절, 계절별로 옷을 한 벌씩은 준비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남편이 어디를 가자고 할 때, '배가 불러서요, 옷이 없어서요' 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환경에 맞추어 살 줄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며,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니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가르치신 것 같다.

선생님은 천주교신자였지만 우리 집에서 하는 법회에 오셔서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셨고 남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아주고 부엌에 놓인 열무도 다듬어 주셨다.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갈 때도 따라오셔서 몇 가지 헌 옷과 돈을 넣은 봉투를 내밀기도 하셨다. 방학 중에 오시면 법문을 들으셨고 종진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도 법문을 듣고서 "다른 사람이 다 다른 곳으로 가서 공부한다 해도 당신은 이 스님을 끝까지 모시고 공부하세요."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셨다. 아마도 선생님은 당신의 따님보다 제자인 나와의 추억이 더 많을 것이고, 내가 선생님의 따님 보다 더 선생님을 닮지 않았을까 싶다. 참으로 행동도 예쁘고 모습도 고우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신다고 오백 원짜리 동전 열 개를 모아서는 아이들 방 앞에서 손을 모으고 나오길 기다리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보겠는가.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에 목이 멘다.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왜 선생님이 엄마를 찾아오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만큼 선생님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 오실 때는 꼭 호박 썰어서 말린 것과 말린 고구마 줄거리 같은 마른 밑반찬을 봉투에 담아오셨다.

학교에 계실 때, 교장실로 찾아가면 운전해준 친구에게 기름 값만큼은 꼭 주시고, 손님들에게 달아주는 비닐 꽃을 달아주시고는 교무실이며 서무실로 다니면서 "서울에서 제자들이 왔어요." 라고 자랑하셨다.

내가 가정법회를 시작하자 선생님은 내가 제대로 불교공부를 하기를 원하셨다. 어느 날, 서울로 올라오신 선생님은 나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에 등록시켰다. 백팔십만원 정도 하는 등록금을 모두 내주셨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불교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남편도 대학원에 다닐 때였고 아이들도 한창 공부할 때였다. 나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선생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학기부터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 마음 속엔 예쁜 모자를 쓰고 단정한 모습으로 동국대에 나타나셔서는 제자의 첫 등록금을 내주시던 은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대학원 공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천주교 신자인데 한 번도 당신의 종교는 강요하지 않으셨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웠다.

그 후 나는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동국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불교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서 동산불교대학에 등록시켜드렸던 것도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고교시절, 대학에서 모시고 가려고 해도 "난 중고등학교로 만족합니다." 하시며 학교를 떠나지 않으시더니,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다. 퇴임하시면서 받으신 선물 중 손목시계를 나에게 채워주셨다. 인생이라는 만행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로부터 하나씩만 배운다고 해도 얼마다 많은 걸 배우겠는가. 은사님은 나의 여성성을 구축하는데 가장 깊은 영향을 주신 분이다. 며칠 후면 선생님 기일이다. 선생님은 천주교신자이시지만 절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 글이 이번 주 신문에 실린다면 기일에 선생님께 올리고 싶다. 〈여여원 원장〉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대행 스님

모두가 공했는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착을 두십니까

환생하신 조상에게 천도재가 의미 있나요

문) 우리가 천도재를 지내는데 이미 다시 환생하신 조상님들에게도 그 천도재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답) 옛날에 어머니는 노망하시고 그 아들이 죽었더랍니다. 죽어서 그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제사를 해마다 그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지냈더랍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정승의 집안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주 잘 사는데도 그 아들이 해마다 같은 날 꿈을 꾸면은 그 노인네가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 밥을 꼭 그렇게 해다가 상에 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그 집엘 갔더랍니다. 그 집엘 가서 그 노인네하고 같이 공양을 하고 나오고 나오고 했더랍니다. 그렇게 인제 지내기를 스무살이 넘도록 그렇게 꿈을 해마다 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을 꾼 대로 본다면 그 길이 아주 참 눈에 선해서 생시에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갔더랍니다. 꿈에 본 대로 고대로 찾아가니까 그날 정말 밥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 밥을 해 놓는데 그 얘기를 그 노친네더러 물었더랍니다. 왜 오늘 꼭 이렇게 밥을 해 놓으시느냐고. 제가 꿈이면 이 날은 꼭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고생만 하고 죽었으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좀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지혜롭게 살라고 내가 제사마다 잊지 않고 내 죽는 날까지는 꼭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모셨노라고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제사를 지내 줘서 내가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정승에 판사집으로 태어나서 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는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이 인제 밥을 해 놓으신 거를 맛있게 나물에다 비벼서 자시고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나중에는 모셔다가 같이 살았다고, 얼마 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아들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이런다면은 그 원소는 꼭 남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어서 먹어도 씨앗은 꼭 남듯이. 꼭 그것은, 그 에너지는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은 그 에너지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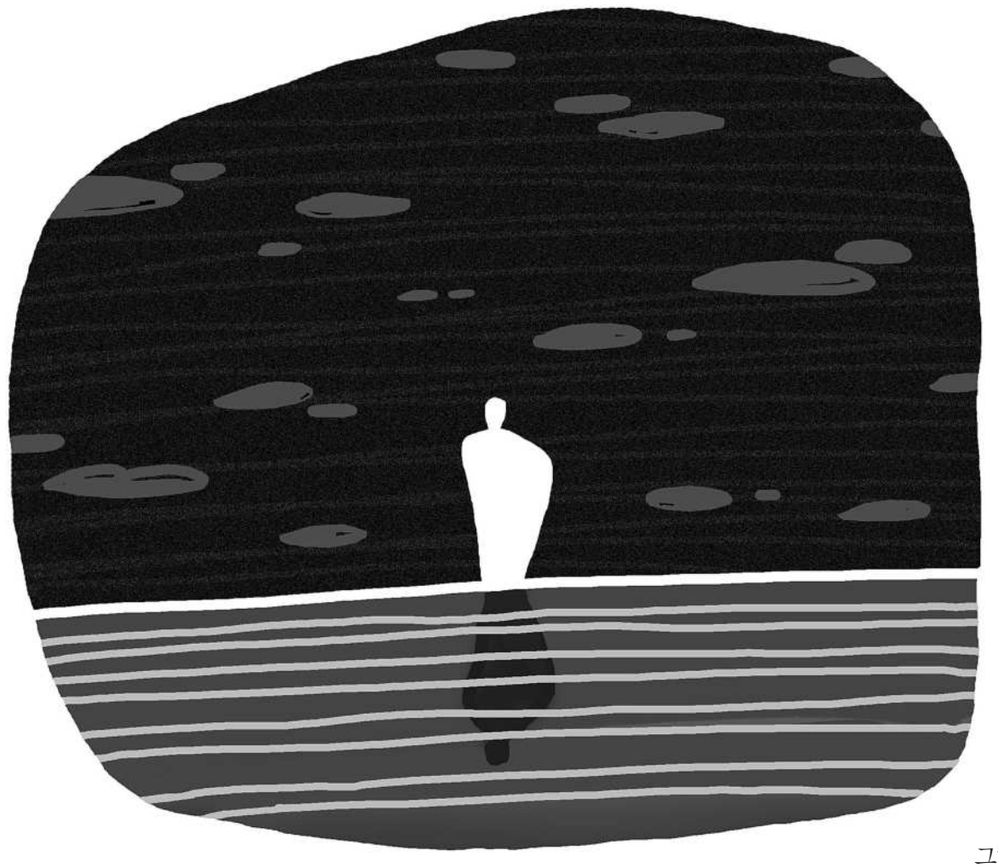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통인데 에너지 주장자로 화한다. 에너지 주장자로 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임제 스님 말씀이 이랬답니다. "네 주장자가 있다면, 그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가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화하지도 않았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주장자를 뺏어 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그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그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 모든 게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영계성을 제거하려면 이렇게 관하시라. 이렇게 한번 관하실 때마다 그건 무너진다. 그 업력은 무너지고 마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 업도 없고 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우리 몸뚱이가 사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공생입니다, 그냥. 우리 세포 하나의 생명도 모두 이것이 살아 있는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하고 갑니까. 근데 그걸 같이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쌈박질이 나서 땅이, 살이 굳는단 말입니다. 굳어서 이치가 벌어지고 또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온통 이 병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영계성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아주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이만큼 벌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깐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생각의 공덕을 그냥 뭉청 쌓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자식 등네에까지도 그게 미치겠으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부모가 그렇게 덕을 지어 놓은 것이 자식등네에까지 내려간다. 그게 자식에까지 내려가서 그 자식에서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소는 항상 남아 있듯이 이 은하계의 별성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져서, 떨어지면은 그게 그냥 아주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까 그것이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 이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듯이, 별왕이 있어서 그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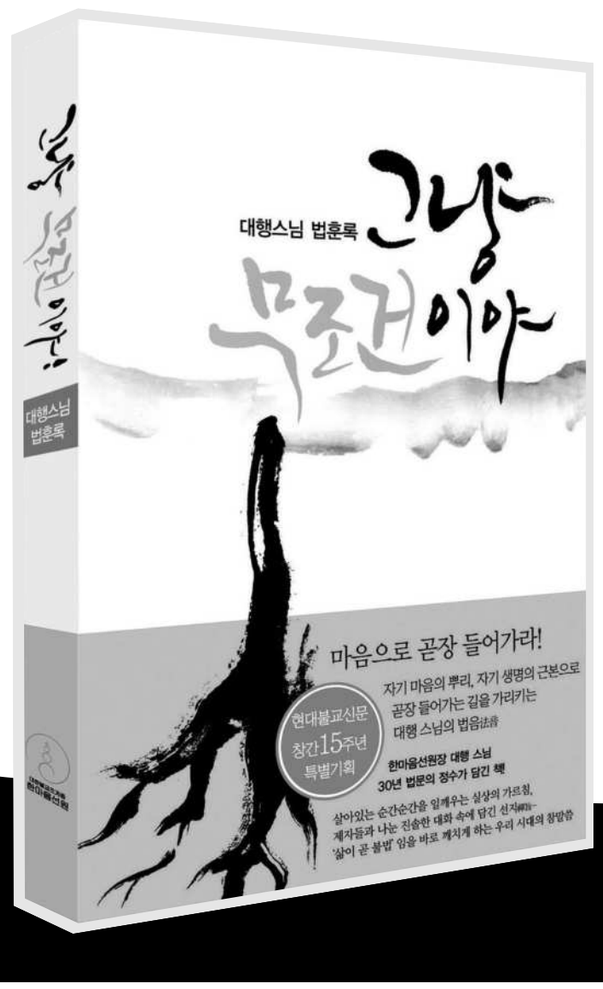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식구가 됩니다. 나쁜 식구가 그 인연이 됐으면은 서로 고생을 하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싸우고 모두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바깥에 나가서 벌여 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하는 거를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정신계의 자동적인 컴퓨터 같은 그런 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저께도 과거고 작년도 과거고 그렇지만 과거에 잘한 거든지 잘못한 거든지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입력이. 꼭 입력이 됩니다. 한마디를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입력이 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현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나와서 좋은데요,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집안에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하시라 이런 겁니다. 어떠한 위급한 일이 앞에 나와서 생기겠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쩌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바로 너만이, 주인공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태어나게 했으면, 화해서 태어나게 했으면 반드시 그건 주인공, 주인이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몸뚱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소 자체가 바로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정신계의 자기가 물질계의 자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 생각 저 생각 지혜롭게 뛰어넘어 좋게만 생각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 끌고 다니게 하려면 생각을 좀 잘하시라. 현재에 사는 걸 봐서 '이거 절대로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관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좋게 하세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은 고것이 좁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렇게 일이 그냥 되고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뛰어넘으세요, 그냥. 뛰어넘어서 좋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흙탕물이 있으면은 그건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맑은 물이 돼서 먹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고 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파서 뭐 암이 걸렸다 이러더라도 그냥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이거를 모두 이 몸 안에 든 그 병 증세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면 '암도 너와 나와 둘이 아니잖아.' 이렇게 안으면은 그냥 안는 대로 그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되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심성과학도 되면서 우리가 심성의학도 됩니다.

그러니깐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좀 편안하게, 자손들도 좀 착하게 이렇게 두시려면 떳떳하게, 조그만 거라도 떳떳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해 나가신다면 그 밑의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그 뜻이,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아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일은 같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같아집니다. 같아져서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내가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를 안 보면서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땐 이럽니다. "이북에서 영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스님 이런데 제사를 지내면 어떡합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이러거든요. 살았다 하시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려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가 고파서 사시더라도 배가 불러서 사실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식의 그 정성으로서 부모가 배고파서 사실 거를 배고프지 않게 사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니깐 얘깁니다. 죽어야만 제사를 지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일도 있고 제사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치 마세요. 항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요만한 걸 정성을 들이더라도 의심하시지 마시고, 또 요만한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생각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치 마시고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저 사람도, 저 애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는데, 임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만이 여기 내가 이쪽의 주인공에 가서 그저 환히 밝게 해 달라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관을 하니까 자식한테도 불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의심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죠. 못났든 잘났든 또 궁하든 부자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자기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 자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이게 나라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오래 전에 스님이 돼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족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면 가끔씩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도 중심 잡고 공부할 수 있을는지요.

답) 나는 예전에 빨치산으로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나무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 자불이 바로 나를 단련을 시켜 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깐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외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친 거는, 죄 없이 맞은 매는 금방 낫는다, 이게 실감이 나요. 돌아서서 얼마 안 갔는데 나았죠.

거기서 인제 예전에 저이 형사들이 사복을 하고 모두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시골집인데 이렇게 나를 방에다가 가뒀는데 한참 있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 문 좀 들어 보자.'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양쪽에 이렇게. 돌쩌귀? 그거 이렇게 끼웠던 게 한쪽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겁니다. 젖혀지길래 나와 보니까 책상을 두 개를 이렇게 해 놓고 양쪽에들 앉아서 그냥 모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건빵 있죠? 쭉 그냥 봉지째 놔두고 먹다가 그냥 저거 하고, 그런 거 '저걸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주섬주섬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나갔죠. 나가니까 뭐 그냥….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냥 몽땅 어떻게 그렇게 자요? 그러니깐 자게 해 놓고 나가게 한 거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이틀 있으니깐 그것이 다 아물고 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그 해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 가 잘 데가 없고 그래서 인제 소나무 위에로 올라갔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갈래 진 데 거기를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눈이 좀 녹아야 어떻게 내려가죠. 그래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잠이 든 채로 아마 글로 떨어진 모양이에요. 떨어져서 이 앞니 두 이빨이 부러진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요. 내가 예전에 생긴 거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거는 잘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잘못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못생기게 한 것은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중노릇하고 있나? 여기 전부 못났으니깐 중노릇하고 있지. 하하. 약삭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이 공부를 못해. 좀 듬직하고 못났으니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자유권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한다고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다. 모두가, 내 식구가 전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다면 내가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또 상대적인 저런 나무 한 그루 모든 게 없다면 내가 그걸 보고서 깨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내 스승이죠, 전부. 천칠백 공안이 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없어요. 없는 이유를 댈까요?

내가 항상 말하죠. 봐도 딴 거 봐야 하고 없어지고, 벌써 앞서 본 건 과거로 돌아가고 또 봐야 돼. 듣는 거, 현재에 들으면 또 금방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저게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한번 만나면 또 딴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니 그게 어디 만났다 안 만났다, 봤다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빠르게 돌아가니까. 화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 법에서는 나툼이라고 그럽니다. 화해서 나툰다,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바뀌는 거를 화한다고 그러죠. 화해서 나툰다. 건너뛴다, 이게. 그러니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 그대로 먹을 뿐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이다. 그냥 모두가 공해 버렸다. 그런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착을 두고 앨 쓰고 울고불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면 내 몸뚱이 통 안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은 대(大) 통 안에서, 이 지구라는 이 통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랴.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내 몸뚱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통 안에서,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몰입하고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밖에,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 봐.' 하고 자문자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석가세존도 자기 스스로 연등불이 바로 수기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다 이런 소립니다. 자기 자불이 연등불에요.

> 그저 의심하지 마세요.
>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 못났든 잘났든, 궁하든 부자든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 자기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 그래야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돌볼수 있게 됩니다.

애를 원하는데 장애아에 대한 두려움이…

문) 결혼해서 얼마 안 되지만 애를 빨리 갖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장애아를 낳는 경우가 많아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죠.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님을 낳게 된 것은 살면서 늦게 자손을 하나 두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인제 절로 올라갔는데 절의 스님이 관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하고 관해도 애기가 들어서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육 년째 하고선 칠 년째는 절에를 안 갔더랍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꿈에 그 스님이 나타나서 "얘야, 빨리 오너라. 네가 좋은 영가를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가를 찾아도 없어서 못 줬는데 인제 하나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깐 빨리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칠 년 되던 해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인제 그러고 왔는데 그 달부터 애기가 있어서 낳은 분이 공자님이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태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큰 자식을 두느냐 작은 자식을 두느냐, 박약아를 두지 않느냐 두느냐 이거에 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많아요. 어느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인데 이게 정상이 아닌 어린애로 나타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이랬다고요. 정말 정상이 돼서 정상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도 정상인 줄 알고 관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으로 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모든 게 그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자유가 있는데도 못한다면 아니 되죠. 그거를 왜 내가,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내 줘서 했단 말을 못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공해서 찰나찰나 없어지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데 어떤 발자국 떼어 놨을 때 내가 떼어 놨다고 할 수 있으리까.'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올 때 발자국을 떼어 놓고 왔을 텐데 그 많은 발자국을 떼어 놓으면서 어떤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내가 떼어 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공해서.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자기'가 과거의 업을 그냥 멸해 주는 거죠.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무효로, 즉 말하자면 과거에 입력이 된 걸 지워 주는 거죠. 그 지워 주는 역할도 능력이 있어야 지워지지 능력이 없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어허,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겠고, 또 해 놨다고 할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도 무궁무진하게 자유의 그 용무를 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불자 세상보기

'철밥통 군대' 와 불편한 진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대표

우리는 흔히 군인을 사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말한다, 그런가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신사라고도 한다.

실제 영화 '탑건' 은 세계적 배우의 탄생과 함께 멋진 군인, 멋진 사관의 꿈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었다. 관타나모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부대에서 사망한 병사의 사인과 관련하여 죽음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려낸 '어 퓨 굿맨' 역시 현역 해병장교의 '명예와 정의감' 을 자극함으로서 잔잔한 감동과 동감을 이끌어냈다.

다른 몇 편의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감동이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들을 본 관객이라면 대부분은 군인에게 있어 명예와 정의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숨보다 소중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윤 일병이 죽었다. 맞아 죽었다. 선배들 여럿이서 집단으로 구타했고 이를 말리거나 막아야 할 지휘자도 묵인하거나 혹은 가담했다. 맞다가 쓰러지면 수액을 주사하고 정신을 차리면 또 때리고, 가래침을 혀로 핥게 했다.

지휘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야만적인 가혹행위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윤 일병을 돕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김 일병은 죽어간다. 찰나지간에 발생한 선임병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혼절해 며칠만에 깨어나 마주한 자신의 모습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안와골이 골절되면서 눈알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중환자였다.

급히 후송된 병원에서 눈에 보이는 외과적 상처만 응급조치한 의사는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었고, 후송해온 간부는 계단에서 굴러넘어진 병사라며 거짓말했다. 상태가 중하니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권고를 받은 간부는 응급조치만 마친 병사를 데리고 급히 부대로 돌아가 생활관에서 재웠다. 도착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김 일병을 보고 놀란 아버지는 아들을 차에 실어 다시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군은 가해병사의 부모와 합의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피해병사의 부모를 압박했다. 현재 중상을 입은 김 일병의 치료를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군대가 좋아졌다고 다들 말한다, 당사자인 군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그리 말한다. 정말일까? 무엇이 좋아진 것일까? 무더운 여름날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간신히 면한 것을 좋아졌다고 말해야할까? 아니면 배가 고파 민가를 기웃거리던 비참함을 벗어난 실정을 좋아졌다고 말해야하나?

동료 간 우애와 배려가 뭉쳐서 전우애로 승화되고, 지휘관의 솔선수범에 부하들이 감동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복종심과 충성으로 발현되는 합리적 리더십을 현재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부하들의 희생과 불이익을 몸으로 막아내는 책임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진급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기형적 가치관이 현재 군대에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엄정하게 집행되고 유지되어야 할 법치는 원칙이 없었고, 그조차도 형량감경권이란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줄이고 늘이기를 마음대로 한다. 아무리 많은 부하가 목숨을 끊어도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않고, 지휘책임에 따른 처벌도 받지 않는다. 병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쉼 없이 공급되고 변화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유지에 문제가 없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급여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두려움을 버려야한다. 우리는 매일 1천 명의 아들들을 군에 보낸다. 우리 아이들이 가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곳의 실정이 어떤지 알아야한다. 알려달라고 말하고 요구해야한다. 우리가 국방과 안보의 부담자이며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면전에서 부모를 욕하는 모욕과 불효를 저항 없이 감내해야했던 야만과 무지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못했다. 불편한 진실을 방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그러니 죽은 윤 일병과 죽어가는 김 일병의 고통은 군과 지휘관이 아닌 내 탓이다.

군복을 입은 채 죽었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해 평화대상 수상 소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2014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에 위안부 할머니들 공동체인 '나눔의집' 이 선정됐다.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눔의집' 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공동체로 2014년 현재 약 10여 명의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대표하는 나눔의집의 만해대상 수상소감을 싣는다. 〈편집자 주〉

'못다 핀 꽃' 들을 위한 평화대상 수여에 감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있는 '만해평화대상' 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수난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은 일본군에 강제 연행돼 가장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소녀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귀국하였으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수요집회' 와 국내외 '증언집회' 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19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눈이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 정오에 가장 평화적인 '수요시위' 와 미국 하원 청문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노동기구, 2000년 도쿄 민간법정, 일본 참의원 회관, 일본 청년관,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증언집회' 는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쟁범죄이자 인권유린사건이라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미성년자 강제노동이라 규정했으며, 국제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도쿄 민간법정에서는 일본 천왕을 전범으로 기소했고, 2007년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님의 피해자 고백 이후, 많은 분이 줄을 이어 일본의 범죄사실을 고백하고, 정부에 피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대부분 결혼을 하지 못해, 보호자나 수발자도 없고 오갈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 1992년 10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설립자 및 대표이사 송월주)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해 1998년 나눔의집 부설로 세계 최초 인권 테마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권문제이자 평화를 외치는 '못다 핀 꽃' 들에게 '만해평화대상' 은 가장 큰 상입니다. 20세기 가장 불행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여성인권활동가로 인정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상금은 또 다른 인권을 생각하고 세계 활동가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공동체)

社說

위기의 성보문화재 대책이 시급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도, 해인사 대장경판도 부실하게 보존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나 불교계 안팎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석굴암과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한 부실 논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본지가 전체 목록을 대조한 결과는 더욱 충격이다.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보존 등급 D이하 문화재는 149건으로 이중 불교문화재는 123건으로 80%에 달한다. 국보만 국한할 경우 보존 등급 D이하의 불교문화재는 절반에 가까운 42%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야외에 노출된 석탑 등 다수의 석조문화재는 재질 풍화, 생물오염 등에 따른 잠재적 훼손도가 높아 1601건 중 642건(40.1%)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석굴암은 대좌부와 궁륭천장이 갈라지고 색깔이 변했으며, 해인사 장경판전 안에서는 습기가 발견돼 자칫 전각과 경판이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엄사 각황전은 처마를 받치는 활주가 크게 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벽체 내·외부 회벽이 떨어져나가고, 마루에 균열이 생겨 당장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에 익숙해졌다. 대형 참사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도루묵이다. 정책을 낸다고 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재는 다르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융성' 은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활용할 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한국 문화재 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그 보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의 제대로 된 문화재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나지 않은 '광복운동' 과 불교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올해로 69주년을 맞았다. 광복절이 되면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받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수요 집회를 연다. 서울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명백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해방을 외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6종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이라고 표현했고 2종은 지도의 일본 영해선(線) 안쪽에 독도를 넣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을 모두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2014년도 외교 청서(靑書)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 이라고 표현했다. 피해자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다 끝난 일이라고 제멋대로 말한다.

하나 더 있다. 최근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외로 반출 문화재 약 16만여 점중 일본이 소장하는 문화재가 악 6만 7000여 점으로 가장 많다.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다. 반성과 사죄는 때가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 및 위안부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매년 열리는 한중일 3국 불교대회도 계기가 될 수 있다. 진정어린 일본의 사죄가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의 광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양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合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合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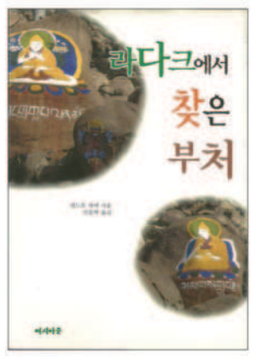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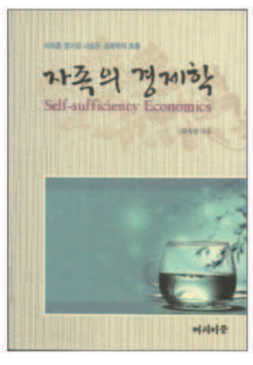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